

[성교요지]의 용어 검토  
-그리스도교의 중국전래와 용어의 변화-

2016. 6. 16. 김학렬(약망) 신부.

I. 서론.

중국에서는 상고시대부터 상제 하느님을 알고 제사를 지내왔다. 그리스도교로서는 처음으로 네스토리오의 경교가 중국에 들어왔고, **경교景教**가 당나라의 수도 長安(오늘의 西安)에 나타난 것은 635년(唐 태종 貞觀 9년)이었다. 阿羅本Alopen(아브라함 rabban수사의 준말?)과 동료 선교사들 일행 21명이 동방(파사국, 페르시아)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황제 대신 방현령으로부터 빈례로 궁중의 영접을 받아 성당(大秦寺, 波斯寺)과 수도원을 세웠다. 서안에서 1625년에 발견된 경교비는, ‘唐 建中 2년 1월 7일 (양력 781년 2월 4일) 일요일 아침에 세운’ 것으로, 중국어와 시리아어로 7-8세기 경교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70여명의 서양 선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번역 용어를 보면 하느님을 천존, 세존이라고 부르는 등,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또한 중국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항해 기술의 발달로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어서 마젤란의 세계일주의 결과로 포르투갈의 선교보호권 속에서 예수회원들이 중국에까지 진출하여, 복음을 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6세기 예수회 신부들의 **적응주의**와 **저술활동**으로 그리스도교는 **한자 문화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초기 예수회 신부들의 활발한 저술을 통한 선교활동은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중국에 잘 적응하였고, 번역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문자>, 곧 서양문자를 그대로 중국어로 음역(가차문자)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18세기 초부터는 본격적인 중국어 **성경번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경번역은 이단을 우려하는 교회당국의 염려로 출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경 번역에서 생성된 천주교 용어가 뒤이어 들어온 개신교의 성경번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성경을 인쇄하여 출판해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개신교에서는 인쇄 출판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대량의 인쇄본들이 천주교에까지 역으로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에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그리스도교 문헌이 개신교의 성경출판과 함께 우리나라 성경번역과 [성교요지] 필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조선)에 영향을 준 중국의 문헌들.

- 그리스도교의 중국전래 -

1. 대진경교景教유행중국비(635, 1625)<sup>1)</sup>와 (동방정교)그리스도교.

가. 성 토마 사도의 중국 선교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전설로만 남았지만,<sup>2)</sup> 네스토리오의 경교景교가 당나라의 수도 長安(오늘의 西安)에

1) Pasquale M. d'Elia, **Fonti Ricciane**, 1942 Roma, 서론(Introduzione Generale Alle Fonti Ricciane) p. 55-57 참조. 앞으로 이를 **FR**로 약칭.; 천학초함, 1976 서울 아세아문화사, p. 19-26.

2) 탕약망, 전정도상설에, ‘두사가 하늘로 올라간 뒤로 그 제자의 한 사람인 **다묵이라는 자가 중토에 도착하였는**

나타난 것은 635년(唐 태종 貞觀 9년)<sup>3)</sup>이었다. 阿羅本Alopen(아브라함 rabban수사의 준말?)과 동료 선교사들 일행 21명이 동방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황제 대신 방현령으로부터 빈례로 궁중의 영접을 받아 성당(大秦寺, 波斯寺)과 수도원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본토 중국인들 가운데서는 극소수의 신자들만 얻을 수 있었다. 적어도 146년간을 전교하다가 황소의 난으로 경교는 중단 되었다. 서안에서 1625년에 발견된 경교비는, ‘唐 建中 2년 1월 7일 (양력 781년 2월 4일) 일요일 아침에 곽자의가 새긴’ 것으로<sup>4)</sup>, 중국어와 시리아어로 7-8세기 경교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70 여명의 서양선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비문에 새겨진 중요한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미시가彌施訶로, 삼위일체를 아삼일我三一, 천사를 神天, 동정녀를 室女, 동로마를 大秦, 페르시아를 波斯, 유다국을 大猷(猷大를 잘못하여 거꾸로 쓴 것으로 보인다), 성령을 淨風으로 표현하였고, 신약성경 27권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삼위일체(하느님)는 이렇게 나뉘어 계신다- 我三一分身. 빛나고 경애하옵 메시아께서는 -景尊彌施訶미시가(메시아), 엄위하옵 본체를 숨기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도다- 灑?隱眞威同人出代.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어, 동정녀가 성자를 (로마제국)대진에 나아 주셨도다- 神天宣慶 室女誕聖於大秦. 빛나는 별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페르시아인들이 별빛의 인도로 찾아와 예물을 바쳤도다- 景宿告祥 波斯觀耀以來貢<sup>5)</sup>. 그분은 24성인이 전해준 구약의 율법을 따르셨고- 圓二四聖有設之舊法, 유대국을 다스리시어- 理家國於大猷(=유대를 잘못 쓴 것), 말없이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새 종교를 세우셨도다 - 設三一淨風無言之新教. 그분은 (마음)그릇을 바른 믿음에 잘 사용하도록, 진복 8단의 행복을 제정하셨도다. 陶良用於正信. 制入境之度. 티끌(죄악)을 제거하고 진리를 완성하도록, 信望愛의 3법도(혹은 지덕.용덕.절덕의 삼덕?)를 여셨도다. 鍊塵成眞 啓三常之門. 그분은 생명을 열고 죽음을 멸하셨도다- 開生滅死. 어둠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하여 빛나는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도다- 縣景日以破暗府. 이렇게 악마의 계교를 없애셨도다- 魔妄於是乎悉摧. 자비의 배를 인도하시고, 빛나는 궁전을 세우시어, 영혼을 구원하셨도다- 棹慈航以登明宮舍靈於是乎.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광명중에(한 낮에 하늘로) 오르심이, 27권의 (신약성경)에 남아 있도다.- 既濟能事華亭午昇眞經留二七部>.<sup>6)</sup>

데, 이로부터 대대로 중도에 가는 자가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cf.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범세형 주교와 정아각백 신부의 공초에서, ‘경교를 전하기 위하여’ 왔다고 자백하였다.; 성교감략, 1883 블랑 부주교 감준, 권이 74-79 참조.

3) [성경직해] 9권, 성모영보첨례에서, 당나라 때에 경교가 중국에 들어왔으니, 이미 천 년 전이었다고 한다.;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1847년 기록) 조에서는 정관 2년(628)에 파사사를 세웠다고 하였다. ‘또 손오 때에 땅을 파다가 십자철을 얻었으니, 이 또한 한나라 때부터 천주교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오나라 대제 손권 적오 10년(247) 무오에 땅을 파다가 쇠로 만든 십자비를 얻었다.’고도 하였다.

4) 테렌츠(등옥함 구수, 왕징 역회)가 지은 [기기도설]의 서문(원서기기도설록최)에서, 왕징은 ‘내가 성의 신종지 땅 속에서 비석 하나를 굴출해냈는데, 이 비석의 이마에 <경교유행중국비송>이라고 써어 있었다. 이는 당나라의 곽자의가 새긴 것으로, 1천제가 지났으면서도 오늘 만든 것처럼 새로웠다.’고 하였다.; Giulio Aleni, 천주강생인의(1640년 간행) 하권, 13장과 14장에서, <정관9년, 유대덕 阿羅本자 전교동래, 태종12년7월, 금교경교비서, 且宗徒多默 敷教於印度地方時 去天主降生 未六十年. 전과기광 한명제 귀사서행, 행지 천축 불능복서, 거이42장 동입중국, 약대서70여국 즉천주경전>이라 하였다.; Giulio Aleni, 직방외기, 여덟아 조에서, 옛 이름은 비잔틴제국 또는 대진이다. 당나라 정관연간에 그 사람들이 경전과 성상을 가지고 와서 머물렀다. 경교유행비가 있어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샤바낙 지음, 유은희 옮김, 진도자증, 2013 도서출판 순교의맥, p. 134.; 정하상의 상재상서에서도, ‘손권의 동오시대 적오년간에 이르러 쇠로 만든 십자가를 얻었고, 당나라 정관 9년에는 경교가 크게 다루어졌습니다.’하였다.; 김혜경, 리치원전제VI, <부산교회사보>제90호, 2016.4. 부산교회사연구소, p. 63-각주 2 참조.; 송강호, 중국어 성경과 번역의 역사, 2007 도서출판 모리슨, 25.;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2000, p. 2 참조.

5) 성교요지 5장 참조.- 동계우사 군광상시.

637년에 처음으로 쓰여졌을 중국어 [예수 메시아경-序聽迷詩詞(所)經]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移鼠**이서라 하였으며(7), 비슷한 시기의 작품으로서, 만유 위에 존경하올 하느님의 자비론을 [世尊布施論]으로, 일신론을 [一天論]으로, 천주교의 **대영광송 격인 성삼찬미가**를 [三威蒙度讚]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주교의 호칭기도문과 같은 기도에서는 성삼위의 이름을 부르면서, **Aloha 阿羅訶**(아라가, 성경의 엘로힘을 연상케 하는 시리아어의 Ala'ha를 따르고 있다.), **Misceho 彌施訶**(미시가), 그리고 **Lokha ni cuscia 盧訶寧俱沙** (로가녕구사, 시리아어의 Ruha d'qudsa-)으로, 한 본성의 3 위격을 고백하고 있다.8)

중국의 수도 장안으로부터 떨어진 지방에도 경교의 수사들은 퍼져 나갔다. 멀리 떨어진 스촨(사천)지역에까지 760년대에 **복음수도원景福院**이 생겨났고, 여기에서 기인된 **경교마을景教故里**도 생겨났다. 경교의 총대주교 **티모테오 1세(823년에 사망)** 시대인 9세기 초에, ‘많은 수도자들이 바닷길로 인도와 중국으로, 지팡이와 자루만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러나 전 제국 내에 전파되던 영광스러운 시대를 뒤로 하고, **845년의 칙령**으로 불교의 사찰을 파괴하면서 경교의 사찰들도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총대주교의 전령이 보고한 **980년**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교회는 완전히 파괴되어, 원주민 신자들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찰들도 완전히 파괴되어 전국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9)

시리아 교회가 이곳에 들어가 선교사업을 한 사실은 **경교비**의 하단부분에 시리아어 새김글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1245년에 몽고 왕실을 방문한 윌리엄 드 노브룩William de Nobruch이 전하는 바, ‘중국의 경교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시리아어 성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Spillett 1975:ix). 분명히 **성서가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헌이 아직껏 발견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1908년에 둔황에서 발견된 경교문헌에는, 징징Jing Jing 이라는 사람에 의해 **성서가 번역**되었으며, 이 문헌들은 모두 가죽함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곧 아라본(알로펜)이 가지고 들어온 530권의 거룩한 책 가운데서, 그가 번역한 **30 여권** 속에는 **창세기, 모세오경(또는 출애굽기), 시편,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지금 전하지 않는 이 번역서들은 아마도 둔황의 어느 동굴에 묻혀있을 것으로, 중국인 왕웨이환 Wang Weifan 목사는 추측한다.10) 그러므로 **경교도들이 성경을 전부, 또는 일부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 북경에서 40 마일 떨어진 한 十字寺 터에서, 960년과 1365년 1월 23일에 조각된 돌들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에 의하면, 7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중국인들이 알고 있던 세례명이 나타나는데, **愛薛(애설=예수=요수아), 盧伽, 保祿과 寶路, 玉函(요한 瑜罕難, 主(注, 尢)安), 雅琬(야고보), Sergio 薩吉思, Carlo 徹里, Giulio 伊瞻?, Zosimo 藥失謨, Giorgio 關里吉思** 등이다.11)

6) 송강호, 중국어 성경과 번역의 역사, 2007 도서출판 모리슨, 30-40 참조.  
 7) 閔畿, 한중일 가톨릭 語彙史, <한국교회사논문집 II>, 1785 한국천주교회사연구소, p. 602에서, 이서移鼠가 ‘귀를 옮긴다’는 의미로서 매우 상스러운 표현이다.; 야소라는 표현은 Ruggieri라명경의 천주성교실록(1584.8.18.간행)의 천주성성장에서(p. 23) 처음으로 표기되고 있다.  
 8) FR 서론(Introduzione Generale Alle Fonti Ricciane) p. 55- 57 참조; 민기, 앞의 책, p. 602 각주 2.  
 9) FR 서론, 60.  
 10)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 중국어 성서, 2000. 9. p. 2에서 재인용.  
 11) FR 서론,62.; 민기, 앞의 책, 602에서는 梅瑟, 達味, 瑪竇, 瑪爾谷, 路加, 若望, 保祿 등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나. 1206년 중국의 북서부에 있는 Karakorum和林에서, 황제Khan이 된 징기스칸은 믿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의 직계에는 동방(동방정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들이 많았다. 대카안의 자리는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 가계로 승계**되었는데, 툴루이의 부인인 Sorghaqtani 唆魯忽帖尼(1198-1252)는 Kereit 족의 공주로서, 제 2의 성녀 헬레나로 불릴 정도로, 몽골 제국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Monka蒙哥 칸과 Kubilai忽必烈 칸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둘째 아들이 제 5대 대칸이 되면서 원제국을 세운 쿠빌라이(1260-1294 재위)였다.<sup>12)</sup>

마르코 폴로는 중앙아시아와 만주 대륙에 분포되어 있던 동방 그리스도교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1271년에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서, 지중해를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몽골제국에 들어갔다. 아버지와 숙부는 두 번째로 쿠빌라이를 알현하러 가는 길이었다.<sup>13)</sup>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가 예수 부활절 기념연회를 베풀었다고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4 복음서를 가져오게 하여 성경에 입맞춤을 한 후, 그의 부하들에게도 입맞춤하도록 명령을 내렸다.<sup>14)</sup> 쿠빌라이가 예수를 숭배하고 부활절과 성탄절 행사를 했던 사실을 보면, 몽골에도 그리스도교가 있었음이 확실하다. 1287년에 징기스칸의 후손인 나얀(? -1287)이 만주 일대를 거점으로 고려인들을 징병하여 반란을 일켰을 때, 그곳에도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마르코 폴로는 나얀의 반란에 대해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나얀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교인이었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고려(한반도 북부와 압록강 일대)와 여진 등에서 온 병력으로 구성되었다.<sup>15)</sup>

이 시대에 조지(闕里吉思, 기와르기스, Georgius)는 1299년에 고려 정동행성의 평장정사로 부임해 와서 개경에서 2년간 살았고, 그의 행적이 조선 세종(1430년 12월 2일)때에 논의되기도 하였다. 조지는 개경에 와서 고려의 노비제도가 잘못되었음을 간파하고 이 제도를 고치려 하자, 고려의 조정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원 제국의 황제 성종은 충렬왕의 의견을 받아들여, 1301년에 조지를 평장정사에서 파면하여 소환했다. 그러나 그가 고려에서 행했던 일련의 조치에는 그리스도교의 색채가 가미되어 있었다.<sup>16)</sup>

<요약정리>. 이상과 같이, 서안에서 1625년에 발견된 경교비는, ‘唐 建中 2년 1월 7일 (양력 781년 2월 4일) 일요일 아침에 광자의가 새긴’ 것으로, 중국어와 시리아어로 7-8세기 경교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70여명의 서양 선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이 비문에 새겨진 중요한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미시가彌施訶로, 삼위일체를 아삼일我三一, 천사를 神天, 동정녀를 室女, 동로마를 大秦, 페르시아를 波斯, 유다국을 大猷(猷大를 잘못하여 거꾸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성령을 淨風으로 표현하였고, 신약성경 27권을 말하고 있다.

1908년에 돈황에서 발견된 경교문헌에는, 징징Jing Jing 이라는 사람에 의해 성서가 번역되었으며, 이 문헌들은 모두 가족함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곧 아라본(알로켄)이 가지고 들어온 530권의 거룩한 책 가운데서, 그가 번역한 30 여권 속에는 창세기, 모세오

12) FR 서론,61.64./그녀는 甘州에서 사망하여 十字寺에 묻혔다.;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pp. 261- 263.

13) 최상한, 앞의책, p. 243.

14) 마르코 폴로,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2008 사계절, p.226/7; 최상한, 앞의 책,p.235 참조.

15) 마르코 폴로, 앞의 책, p. 225; 최상한, 앞의 책, pp. 231, 235- 237, 251 참조.

16) 최상한, 앞의 책, p. 292-298 참조.

경(또는 출애굽기), 시편,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지금 전하지 않는 이 번역서들은 아마도 돈황의 어느 동굴에 묻혀있을 것으로, 중국인 왕웨이환 Wang Weifan 목사는 추측한다. 그러므로 **경교도들이 성경을 전부, 또는 일부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 북경에서 40 마일 떨어진 한 十字寺 터에서, 960년과 1365년 1월 23일에 조각된 돌들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에 7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중국인들이 알고 있던 세례명이 나타났는데, 愛薛(애설=예수=요수아), 盧伽, 保祿과 寶路, 玉函(요한 瑜罕難, 主(注, 亦)安), 雅瓊(야고보), Sergio 薩吉思, Carlo 徹里, Giulio 伊曉?, Zosimo 藥失謨, Giorgio 關里吉思 등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한국천주교회 초기 신자들은 [성경직해], 성모영보첩례의 내용을 읽고 경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하상의 상재상서에서도, ‘손권의 동오시대 적오년 간에 이르러 쇠로 만든 십자가를 얻었고, 당나라 정관 9년에는 경교가 크게 다루어졌습니다.’하였다.

## 2. 천주교의 중국 전래.

가. 마르코 폴로 이후, 쿠빌라이가 사망(1294년 2월 18일)하기 직전에 칸발리크(북경)에 도착한 프란치스코회의 **요한 몬테코르비노(1247-1328)**신부는, 바로 그해에 옹구트 지역의 왕자 **조르시오關里吉思**를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 왕자는 高唐忠獻王으로서 처음에는 경교의 신자였으나, 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sup>17)</sup> 조르시오 왕자는 개종한 후에 아들을 낳아, 신부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 **요한注安, 亦安, 主安**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왕자는 아마도 수단을 입고 미사에 참여하였는데, 미사는 라틴 예식의 **Uigur 위그르어**였다. 왕자는 **라틴어 기도문을 위그르어로 번역**하게 하여, 그의 지역에서 백성들이 찬미가를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1298년에 조르시오 왕자가 죽자, 경교의 열광자들은 이 모든 것을 전처럼 되돌려놓았다.<sup>18)</sup>

**프란치스코회의 몬테코르비노 신부**는 북경에서 약 35년간(1294-1328)을 거주하며 3곳에 천주교 성당을 세웠다. 1305년까지 자주 세례를 베풀어 **6천명 가량의 신자**가 있었는데, 1305년 9월부터 1306년 2월 사이에만도 400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제일 먼저 **위그르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였고, 소년들을 시켜 **시편과 성무일도, 성가를 필사**하게 하였다. 58세가 된 그는 이미 **달단어(蓬鞞語:타타르어)**와 문학을 배웠고, **달단어로 신약성서 전권과 구약의 시편을 번역**하였다.<sup>19)</sup> 소식을 전해들은 클레멘스 5세 교황은 작은 형제회의 총장에게 7명의 형제들을(5명의 이태리인과 독일인과 스페인인 1명씩) 파견하여, 그를 주교로 성성하도록 하였고, **1307년에 칸발리크 (북경)에 교구를 설치하고, 그를 대주교와 동양의 총주교로 임명**하였다. 이후 1368년에 중국에서는 대 반란이 일어나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다음 해인 1369년에, 칸발리크(북경)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은 추방되고 말았다.<sup>20)</sup>

**十字教**는 1289년에 원나라 황제의 칙령에 따른 **그리스도교의 공식 명칭**이었고, 이때 예부의 명칭은 **崇福司**였다. 몽고제국 시대에 교회들은 **十字寺**라고 불렸다. 이들

17) 최상환, 앞의 책, p. 299, 303, 304 -고당왕 조르시오는 충렬왕의 왕비인 제국대장공주(忽都魯揭里迷失 1259-1297)가 죽자 조문사신단을 보내어 부의를 전했다. 공주는 베키의 손녀이자 쿠빌라이의 딸이다.

18) FR 67-68.

19) 송강호, 중국어 성경과 번역의 역사, 2007 도서출판모리슨, p.245.- ‘몽골어역본은 1294년에 원의 수도에 도착했던 프란체스코회의 몬테 코르비노가 번역한 신약과 시편이 있다.’

20) FR 66- 73; 송강호, 앞의 책, p. 64참조.

신자들은 그리스, 그리스 예식의 조지아, 크림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알란 혹은 루텐 출신으로서, 노예와 군인으로 몽고에 잡혀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요한 몬테코르비노의 노력으로 가톨릭이 되었다. 이들이 사용하던 집회소를 638년-745년 9월(음)까지는 波斯胡寺라고 불렀고, 745년부터 900년대까지는 大秦寺라고 불렀다. 이들의 후손 신자들은 마태오 릿치가 찾기 시작하기 전 60년인, 1550년경까지 존재하고 있었다.<sup>21)</sup>

나. 마태오 리치 신부는 여러 차례, 중국 내 그리스도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1602년 9월 초순부터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1607년에 중국인 수사 Antonio Leitaio를 파견하여, 산서성(Shansi)과 호남성 開封부와 산동성 臨淸에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수 살고 있고, 그들의 조상은 중국인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들은 식사할 때나 음료수를 마실 때 성호를 긋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위우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의 기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아마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한때 이 그리스도교도들은 중국 북방에 다수가 살고 있었는데, 문화적 수준도 높고 무장하고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마태오 릿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산다는 곳으로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했지만, 모두 공포에 떨며 그들의 후손임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후손됨을 인지할 수 있었다.<sup>22)</sup>

리치는 호남성 개봉부에서 500-600년간 대대로 거주하던 유대교 신자 12 가정도 만났는데,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시나고가가 있었다. 절강성 杭州에도 더 많은 수의 유대교 가정과 시나고가가 있었다. 리치 이후 100여년이 지난 후, 1704년 10월에 Giovanni Paolo Gonzani 신부가 쓴 편지에 의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修才와 監生도 있었는데, 그들은 공자묘인 聖人廟에 다른 이방인 학자들처럼 배알하고 있었고, 봄가을로 선조들의 사당인 古堂에서 성대한 제사를 바쳤다. 양과 염소(돼지는 안 씀)를 제물로 바쳤고, 일반적으로 음식을 공헌供獻으로 살라 바치며(燒香), 부복하여 절(磕頭)하였다. 만다린들만이 선조들의 사당에 이름과 직함이 적힌 위패를 봉안하였다.<sup>23)</sup> 마태오 리치의 회고록에 언급된,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네스토리우스 교도인지 아니면 가톨릭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종된 사람들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중국내 기독교도들이 明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명백을 보존하고 있었으나, 16세기 중반에는 거의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마태오 리치의 영향을 받은 예수회의 후계자들 가운데, 이태리 출신의 알레니(Giulio Aleni, 艾儒略, 1582-1649)신부는 히브리어에도 능통하여, 하남성 개봉을 찾아 회당에서 유대인을 만나 대화하였다. 이후 곤짜니(Jean Paul Gonzani, 駱保祿, 1647-1732)신부도 1698년과 1704년에, 하남성 개봉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모세오경, 大經이라 함>을 확인하고 祭孔禮式에 참가함도 확인하였다. 프랑스 출신의 안토

21) FR N. 173-주 5, 606, 724-730 참조.

22) cf. FR 서론, 78. N.173, 724, 728.; 김호동,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2009 까치글방, p. 296.

23) FR N. 723 -주 1참조.

24) 김호동, 앞의 책, 296.

니오 고빌(Antonio Gaubil, 宋君榮, 1680-1759) 신부는 1723.3.23.에 하남성 개봉에 가서 유태인회당에 들어가 장로를 만났으며, 양피에 적힌 <모세오경>을 보았다. 유태인들은 祭孔에 참석하고 조상에게도 제사를 지내는데, 위패를 놓거나 遺象을 놓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빌 신부의 저서 가운데는 <中國의 猶太人>도 있다.<sup>25)</sup>

<요약정리>. 이상과 같이 몬테 코르비노 주교는 1300년대에 위그르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였고, 소년들을 시켜 시편과 성무일도, 성가를 필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첫째 성당과 둘째 성당에서 신부 대신 성무일도를 바치게 하였다. 58세가 된 그는 달단어(蓬鞮語:타타르어)와 문학을 배웠고, 달단어로 신약성서 전권과 구약의 시편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음 16-17세기에 진출하는 예수회 신부들의 글들은 많이 남아 있으며, 다음과 같다.

### 3. 초기 예수회 신부들의 저술.

#### 3-1. 조전천주십계와 천주성교실록.

가. 루지에리(Michele Ruggieri(1543-1607), 耶穌會 羅明堅) 신부는 1579년 7월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그가 저술한 [천주십계]의 전과 경로를 보면, 현재로 이어지는 천주십계는 1584. 11월 이전에 출판되었다.<sup>26)</sup> 많은 중국인들이 마태오 리치 일행 신부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물어오므로 중국어로 [祖傳天主十誠]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는 루지에리 신부의 [天主實錄]보다 앞선 것이었다. 신부들은 1584. 11. 30일자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그리고 사도신경과 함께 천주십계의 중국어 사본을 다음과 같이 로마에 보내고 있다.

'祖傳天主十誠. 一,要誠心奉敬一位天主不可祭拜別等神像. 二,勿呼請天主名字而虛發誓願. 三,當禮拜之日禁止工夫謁寺誦經禮拜天主. 四,當孝親敬長. 五,莫亂法殺人. 六,莫行淫邪穢等事. 七,戒偷盜諸情. 八,戒讒謗是非. 九,戒戀慕他人妻子. 十,莫冒貪非義財物. 右誠十條係古時天主親書降令普世遵守 順者則魂升天堂受福 逆者則墮地獄加刑.' (ARSI, Jap.-Sin., I, 189).<sup>27)</sup>

나. 처음 책으로 출간한 루지에리 신부의 <천주성교실록, 1584. 8. 18.>(만력갑신 세추팔월망후삼일)에서, 중요한 교리용어가 이미 확립되었다. 예를 들면, 天主, 십계, 영혼, 승천당, 유일천주제작 건곤인물, 천지만물지주(1) 등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리하다.<sup>28)</sup>

25)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선교사들, 2010 도서출판 순교의맥, p. 239, 337, 375-379.

26) FR N. 248.

27) 1873년에 田 類斯 주교의 감준으로 增刊된 [揀言要理]에서는, '一, 欽崇一位天主萬有之上. 二, 毋呼天主聖名, 而發虛誓. 三, 守瞻禮之日. 四, 孝敬父母. 五, 毋殺人. 六, 毋行邪淫. 七, 毋偷盜. 八, 毋妄證. 九, 毋願他人妻. 十, 毋貪他人財物. 右十誠總歸二者 愛天主萬有之上 及愛人如己.' 하며, 간소화 하였다.

28) FR N. 253. -루지에리 신부는 Pietro Gomez 신부의 도움을 받아, 대화형식으로 된 이야기 교리서를 중국어로 내기에 3년 앞서, 1581년 중반에 먼저 라틴어로 준비하였다. 그래서 세상 창조 시기가 라틴어로는 5547년 전이었으나, 중국어 본으로는 5550년 전이라고 명시하게 된다. 1581. 10. 25 - 11월 12일 사이에 광둥과 조정의 중국학자들이 손으로 쓴 '西[天]竺國天主實錄'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를 보고 A. Valignano 신부는 1582. 12. 31.에 마카오를 떠나면서 빨리 출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1583년이 그냥 지나고, 1584년 5월 경에 Fukien(복건)의 한 학자가 세밀하게 정리하고 나서, 11월 25-29일 경에 王泮의 허락을 받아, 유럽인이 출판해낸 최초의 호교서 [天主實錄正文]으로 1,200부가 인쇄되었고, 호응이 좋자, 즉시 3,000 부가 더 인쇄되어, Cocincina에까지(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많다) 전파되었다.(ARSI, Jap.-Sin., I, 189, 190.). 저자는 天竺國僧(明堅)이고, 39장으로 된 78쪽이며 제목을 제외하고 13,016 자의 글이다. 루지에리 신부가 로마로 귀국한지 얼마 안 된 1590.7.2.에 신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보여주었고, 1591

天主制作天地人物章(p. 9-12)에서, 오천오백오십(5,550)여년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이 천주께서만 존재하셨고, 천주의 은덕으로 6일간 천지인물을 제작하셨다.(自五千五百五十餘年以前之時 別無他物 只有一天主 欲制作天地人物 施之恩德 故於六日之間).<sup>29)</sup> 이렇게天主를 비롯하여, 靈魂(云이 위에)과 天堂(p. 2, 14), 天神과 路祭弗爾(Lucifer: 10, 13), 元祖亞當과 厄襪(11), 地獄과 魔鬼(13), 逐之出地堂(14), 地堂快樂之所(15)라 하였다. 天主性章(p.20-22, 27)에서는, 三位一體에 대하여 논하면서 伯瑣亞(Persona) 중 제 일위가 罷德肋(Pater)이요, 이위가 費畧(Filius)이요, 삼위가 斯彼利多三多(Spiritus Sanctus)라 하였다. 그 신성의 오묘함은(此神性之妙), 과덕특은 아버지요(罷德肋父也), 제 이위 비약은 아드님이요(費畧子也), 제 삼위 사피리다삼다는 성신(斯彼利多三多聖神也)으로서, 비록 삼위로 나뉘어 계시나 실로 한 체(位雖分三體實唯一)이시요, 이는 언어로 형용하기 극난한 신묘함이다.(神妙之極難以言語形容).

세상에 대난이 올 것을 예지한 낙약은 거함을 지어 처자부녀팔인과 금수의 종류들을 함중에 신자, 하늘에서 사십일 동안 홍수를 내려 세계의 사람과 모든 것이 몰락하였다.(是以諾厄預知 卽造一巨艦 將妻子婦女八人 及其禽獸之類 俱載于艦中 後果天降洪水四十日 世界人物 一切淪沒). 락덕(롯)과 두 딸들은 명령에 따라 도피하였다.(25 -落德同二女逃出全命). 매슬(每瑟=모세) 성인이 천주십계를 받았으니( 26, 32), 앞의 3조는 천주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는 것이요 후의 7조는 자기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다.(前有愛天主萬有之上三條 後有愛人如己七條名曰十誡). 석관 양면 가운데, 제 일면에 3조의 내용으로 천주를 공경함이요(故立碑二面 第一面之碑文 有三條之事 奉敬天主), 제 2면의 7가지 조항은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라는 것이다.(第二面之碑文 有七條之事 和睦世人).<sup>30)</sup>

解釋人當誠信天主事實章(27-32)에서, 천주삼위일체는 나누임이 없으시며(天主三位一體不分), 제 일위 罷德肋은 말씀으로 천지를 조성하셨다(獨言造成天地). 그분의 아들(子) 제 이위 費畧은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降生名耶穌契利斯督). 야소는 구세자란 뜻으로(耶穌譯言救世者), 강생하여 세상을 구원하시어 만민의 주님이 되셨으며(降生救世 本爲萬民之主), 계리사독이란 기름을 받은 자란 뜻이다(契利斯督 譯言受油擦찰). 천주께서 세간에 양선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간택하시어 성모님이 되게 하셨다.(當信天主選擇世間良善童貞女名瑪利亞 是爲聖母). 성모는 무반점으로 잉태되시고 온전히 순결한 여인이셨다.(並無半點汗穢에 仍前全體之室女/cf.경교).

모든 성인이 통공하는 역격특서아(Ecclesia) 즉 천주교회를 천하의 총교회이며 보편교회(공교)로 성교를 세우셨다.(30- 額格勒西亞諸聖相通功 額格勒西亞者譯言天主教會也 --謂之聖教 又爲天下之總教會--謂之公教). 원조 아담이 지은 원죄와 입교후 지은 죄를 사하는 예식은 천주교회에만 있다.(31-惟天主教會 有二等赦罪之眞禮).

천주십계장(32)에서 천주교인으로 정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2가지 지킬 것이 있는데, 하나는 천주십계요, 다른 하나는 삼규를 지키는 것이다. 천주십계를 양면에 새겨주셨는데, 한 면에 새겨진 것은 3조항의 奉敬天主요, 제 2면에 새겨진 것은 7조항의 和睦世人에

년에는 Gregorio XIV 교황께도 라틴어로 증정되어, 이것이 Tacchi Venturi에 의해 1913년에 출간되었다.  
 29) 성교요지 제 1장. -육일역작 선벽천지 참조.  
 30) 한국가톨릭대사전 7권, 1999 분도출판사 간행본에서, ‘그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서가 과연 조선에 전래되었는지가 의문이라’며 <만천유고>에 있는 [성교요지]의 사료적 가치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모 신부의 주장은, [그뿐 아니라 ‘성교요지’의 본문을 살펴보다도 △초기 천주교나 박해 시대 천주교 신자들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구약성경 혹은 적어도 구약의 창세기가 번역된 이후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고 하였으나, 이후에 밝히는 여러 글에서도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많고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



관한 것이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십계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解釋天主勸諭三規章(36)에서, ‘일은 住集於會中 凡事請命於會長 할 것이요, 이는 不思色慾 할 것이요, 삼은 不思財利以資日用하는 것이니, 此所以一心奉敬天主也니라’ 하였다.

해석 인당성신 천주사실장에서(27상),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할 사실은(사도신경 12조?) 1. 유일천주를 믿어야 하고, 전능자과덕특께서 화성천지하셨고, 三位一體는 나누임이 없이 모두 전능하시며, 과덕특의 이위가 아드님이요, 삼위가 성신聖神이시다.(p.27상). 제일위 과덕특께서는 조성천지하신 분이시다. 2. 제이위 비약費畧께서는 강생하시어 야소耶穌 계리사독契利斯督이라 명하시니, 역언하면 야소는 구세자란 뜻이요, 계리사독은 수유찰(기름바름)이란 뜻이다. 천주께서 세간에 양선동정녀瑪利亞를 선택하시어 聖母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불요교감<sup>不 離 交 感</sup>의 동신<sup>童 身</sup>으로 천주제삼위 사피리다삼다(성신)에 의한 강잉이었다.

영혼은 일체삼위의 신묘하신 천주를 밝히 보이며, 천신과 같이 행하게 된다.(31상). (사도신경)12조를 믿고 십계와 7조의 살격랄맹다(성사)를 필히 지켜 승천당함을 생각하라.(31하). 천주십계장(31하)에서, 천주교인은 정도를 가기 위해 두 가지를 지키니, 하나는 십계요, 또 하나는 3규이다. 천주께서 보세지주로서 법도를 창립하시어, 십계를 준수하게 하셨다. 일은 봉경천주하는 것이요, 이는 화순호사해지인 하는 것이다. 천주께서 입비 2면 가운데, 앞면에는 3조의 봉경천주를 새기시고, 뒷면에는 7조의 화목세인을 새기셨다.(32상).

해석 제일면 비문장(32상)에서, 제1조는 성심봉경일천주로서, 불가제배별등신상하라 하셨다. 천지일월과 제귀신을 섬기거나, 야몽으로 길흉조를 찾거나, 택일진, 점복괘술 등은 천주의 사정을 불신하여 위계하는 것이다. 제2계는 무호천주명 이발허서 하는 것이다.(33상). 제3계는 당수침례지일 하고 금지백공 하며 天主堂에서 송경침례천주 하는 것이다.(33하).

해석 제2면 비문장(33하)에서, 제2면에는 7조의 규계가 있다. 제4조는 당애친경장이요(34상), 제5조는 무란법살인 하며 여형제지친 하라는 것이다.(34하). 제6조는 무행사음등사 하는 것으로, 천주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어 일부일처로 자손을 낳으라 하셨으므로, 취첩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35상). 처첩의 투와 적서쟁도, 간음타인처자도 죄이다. 기중죄정 다단 역시 제9계에 해당되는 죄이다. 제7계는 무투도제정이고, 제8계는 무참방시비요, 제9계는 무연모타인처자이다. 제10계는 무모탐비의재물이다.(35하).

7조의 살격랄맹다(성사) 가운데 경문에 이르기를, 保弟斯摩(Baptisma)는 번역하면 영수성수인데, 사람이 천주교자가 되기를 원하면 경문을 외우면서 천주께서 세우신 성수를 받는 것이다. 성수를 받으면 전의 죄를 모두 씻고 방가승천하게 되는 것이다.(p.37).

<요약정리>. 이렇게 책으로 출간한 루지에리 신부(耶穌會 羅明堅)의 <천주성교실록>(만력1584갑신 세추팔월망후삼일)에서, 중요한 교리용어와 내용이 이미 확립되었다. 예를 들면, 天主 과덕특 비약 사피리다 삼다 성신, 구세자 야소 계리사독, 성모 마리아 실녀,

31) 성호전집 제55권, 제발, 천주실의 발문에서, ‘於是天主大發慈悲。親來救世。擇貞女爲母。無所交感。(託胎降生於如德亞國。)名爲耶穌’이라고 하여, 천주실의 하권 8편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천주실의 용어와 내용은 이 성교실록에서 비롯된 것이다.(耶穌는 고전번역원의 오류일 듯).

십계, 영혼, 승천당, 유일천주제작 건곤인물, 천지만물지주(1) 등이다. 후에 마태오 리치가 펴내는 천주실의의 용어는 이 성교실록에서 비롯된 것이다.

### 3-2. 교우론 (De Amicitia, 交友論)

가. 마태오 리치(1552- 1610)는 1582년 8월에 중국 마카오에 도착한 이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엘이 선종할 때까지 염원했던 대로, 동방문화의 중심인 북경으로 진출하고자 줄곧 노력하였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국인으로서 간첩혐의로 의심받는 가운데서도, 부단히 북경을 향하여 진출하던 리치 신부는 1595년 8월에 南昌에 도착하여, 두 왕족을 만나 교류하게 되었다.<sup>32)</sup> 건안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 간접적인 선교를 위하여, 리치 신부는 최초의 漢字 작품으로서 [교우론]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 저술은 중국에서 마태오 리치의 최종 목적인 중국선교에 다가가기 위해 채택한, 적응주의적 방법(adattamento, adaptationism)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주변국가에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서선교란 새로운 선교방법을 채택하게 됨을 의미했다.<sup>33)</sup>

왕족들이 리치신부를 1595년 8월 29일까지 3번이나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구태소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특히 建安王Kienan과 樂安王Loan은 리치와 대화하고 교류하기를 원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건안왕(朱多火節주다절 乾齊)은 아주 적극적이어서, 리치 일행을 그의 왕실로 불러 함께 茶를 마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식사에 초대하며 교류를 넓혀 나갔다. 리치 신부는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선물로서, 구리로 된 기름통과 성 라우렌시오의 동상, 지구의와 나침반, 해시계와 책 등을 선물하였다.<sup>34)</sup>

이에 화답하여 건안왕은 비단과 은제품, 먹을 것 등을 선물하였다.<sup>35)</sup> 그가 리치에게 받은 것 가운데, 특히 귀중히 여기는 두 종류의 책은 유럽의 방식대로 일본 종이로 만들어 액자에 넣은 세계지도로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호주와 함께, 4원소와 구천으로 이루어진 지도와, 그밖에도 그 지역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수학책이었다.<sup>36)</sup> 또 하나의 책은 교우론에 관한 것으로, 건안왕이 리치 신부에게 유럽에서는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신부는 성실하게 생각나는 대로 철학자와 성인, 옛날과 근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교우론] 작품이 되었다.<sup>37)</sup> 이렇듯이 [교우론]은 리치 신부가 만든 최초의 漢文 작품이다.

[교우론]에서 리치 신부가 인용한 어구들을 저술가별로 분석해 보면, 성 Augustinus(聖 奧斯定) 10 개조, Aristoteles(亞里士多德) 6 개조, Horatius(荷拉西) 1 개조, Zeno(才諾) 1개조, Cicero(西塞祿) 14 개조, Socrates(蘇格拉底) 1 개조, Diogenes(第奧杰納斯) 1 개조, Seneca(索納加) 7 개조, Plinius(伯里尼烏斯) 1 개조, 성 Ambrosius(盎博羅削) 3 개조, Plutarcos(白羅多亞爾各) 13 개조, Messander(梅桑特爾) 1 개조,

32) FR 12장 20. Aug. - Oct. 1595 참조.

33) 메디나 지음, 박철 옮김, [한국천주교전래의 기원(1566-1784)], 1993 서강대, 89.- 서학서가 조선에 보급되는 데에는 명.청에 와 있던 서양신부들의 전략이 주요했다. 16세기 말부터 서양 신부들은 중국과 만주 지역에 야소교 전파를 위해 서적을 적극 활용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중반에 한문 서학서가 90권 이상이나 발견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종교, 고행자, 도덕적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책은 말보다 더 멀리 퍼지며, 우리가 없을 때에,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도, 설교용으로 가능하므로 영구적인 방법이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통킹, 월남, 조선 등 한자를 쓰고 이해하는 이웃 나라의 신도를 위해서도 유용한 방법이다.’

34) FR 479.

35) FR 480.

36) FR 481 -각주 2에서는 수학책이 아닌, [교우론]이었다고 한다.

37) FR 482.

Valerius(梵勒里烏斯) 2 개조, Haerzio(萊爾齊奧) 1 개조, Casiodoro(西奧陶洛) 1 개조, Erasmus(愛拉斯摩斯) 1 개조, Gelius(杰利烏斯) 2 개조, Publius(勃利烏斯) 1 개조, Ovidius(烏維第烏斯) 1 개조, Quintilianus(昆底里亞諾斯) 1 개조, Cassianus(加西亞諾斯) 1 개조, Marzialis(馬爾齊亞利斯) 1 개조, Demosthenes(特莫斯德納斯) 2 개조, Cassiodorus(西奧道羅斯) 1 개조, Gregorius(額我略) 1 개조, 성 Cyprianus(西潑里亞諾斯) 1 개조, Aelia(愛利亞) 1 개조, 성 Joannes(金口若望) 1 개조.<sup>38)</sup>

하지만 리치 신부 자신이 서양 고전 등에서 직접 채록한 것이 아니라, Andrea d'Evora의 <Sententiae> 란 책에 있는 금언들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옛날 **이교도들의 고전**을 선호하였는데, 이유는 **중국의 고전**과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이었다.<sup>39)</sup>

나. [교우론]은 리치가 저작한 글 가운데 가장 짧은 글로서, **2천여자의 漢字**로 되어있고, 그 자신이 출판하지는 않았다.<sup>40)</sup> 책 제목은 Chiaoieu Lu"en 즉 Trattato sull'Amicizia 交友論이다. 먼저 짧은 서론에서, 리치는 1595년에 어떻게 남창에 도착하였는지, 어떻게 건안왕의 연회초대에 응하였고, 유럽의 식자들은 우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지 알려달라고 그가 청하였으므로, 먼저 76개의 아주 짧은 문장을 - 대부분 단문장으로 된- 써 주었고, 후에 24 문장을 추가하여 100개의 문장이 되게 하였다. 1601. 2. 9일자로 출판된 서문에서 **풍응경**Fomimchin은 말하기를, 교우론이 백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友論凡百章).

[교우론]이 처음으로 출판된 날짜를 교우론의 끝에서 萬曆二十三年歲次乙未三月望日,<sup>41)</sup> 즉 1595. 4. 24일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기록이었다. 리치가 건안왕을 처음 알게 된 날짜가 1595. 6. 28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리치가 써놓은 한문 글자를 읽을 때, 세로로 써진 음력 XI월 15일을 읽으면서( 十 => 三 ) 삼월 15일로 착각하여 읽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일은 음력 11월 15일**이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우론]은 1595년 9월 4일 이후에 남창에서, 라틴어와 이태리어로 된 문장들을 번역하여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1595년 말 이전에 건안왕에게 증정된 작품이다.<sup>42)</sup>

다. 이 작품의 원 출처는 포르투갈의 Andrea d'Evora의 Sententiae/ et exempla/ Ex probatissimis quibusque scriptoribus collecta, &/ per locos communes digesta. 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5판 본(1590년 빠리 발행본)이 아직도 북경의 예수회 고문서고에 있다가 라자리스트회의 문서고로 이관되어 있다. 리치가 축약하여 내놓은 이 작품은 Cicero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라. [교우론]의 **중요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 중에서도 친구관계를 (하느님)상제께서

38) 뒤에 나오는 [성경직해]에서 이들의 이름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 金口若望에 대하여, 민기, 한중일 가톨릭 어휘사, <한국교회사 논문집 II>, p.603에서, [성경직해(광익)] 필사본에는 '피수'였다가, 1893년 활자본[성경직해]에 와서 '금구'로 바뀌었다. 디아스 신부의 [성경직해 1636]의 '基所'에서 피수가, 이어서 金口로 바뀌었다.; 沈定平, 이경규의 번역, 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史 XIII, 2010 부산교회사보 68호, p. 82참조.

39) 노용필, 조선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마태오 리치의 교우론,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2008 한국사학, p. 30. -여기서 Cicero 15회, Plutarch 14회, Augustinus 11회, Aristoteles 6회, Seneca 6회, Diogenes 5회, Erasmus 2회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40) cf. FR. N. 464.; FR. N. 1513, 1558.

41) 천학초함, 1976 아세아 문화사 영인본, p. 94.

42) cf. FR. N. 1475, 1476, 1513.

내려준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상제께서 두 개의 눈(上帝給人雙目), 두 개의 귀, 두 개의 손, 두 개의 발을 주신 것은, 서로 도와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56장) “ 각 사람은 일을 홀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사귀며 서로 도우라고 명령 하셨다.(故上帝命之交友) 만약 세상에서 이 도가 없어진다면, 인류는 반드시 절멸하게 될 것이다.”(16장)고 하였다.<sup>43)</sup>

이같이 우정의 관계를 하느님께서 명하신 기본 관계로 보면서, 동시에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키케로의 격언을 약간씩 변경하여 인용하고 있다. “벗은 형처럼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벗들은 서로를 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형제보다 더 좋은 것이 벗이다.” (36장 - 友於昆倫邇 故友相呼謂兄 而善於兄弟爲友 - 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람과 사람은 모두 형제다’에서 온 것이다). “벗이 피붙이 보다 낫다. 피붙이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릇 피붙이들 간에는 사랑이 없더라도 피붙이 간에 윤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벗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찌 우정의 도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 50장 - 友於親 惟此長焉 親能無相愛 親友者否 蓋親無愛 親親倫猶在 除愛乎友 其友理焉存乎). 이는 키케로의, ‘친구가 가족보다 귀하다. 가족은 사랑이 없을 수 있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 사랑이 없으면 그 즉시 친구가 되지 못하나,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기 때문이다.’에서 왔다.<sup>44)</sup>

마. 마태오 리치 신부와 루지에리 신부는 1583년부터 1588년까지, 5년에 걸친 작업 끝에 葡中辭典을 편찬하였다. 또한 1598년에 리치 신부가 처음으로 북경에 들어갈 때에 종명인 수수사와 카타네오 신부의 협조를 얻어 音韻字典을 편찬하였다. 리치 신부는 1605년에 西字奇跡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라틴문 字母를 한자에 붙여 중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학습하기 쉽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마태오 리치 신부는 라틴문 자모를 한문에 붙인 표기법의 창시자이다.<sup>45)</sup>

#### 마. 교우론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①. 이수광(1563- 1628)의 지봉유설에서는, 마태오 리치 신부가 지은 [천주실의]와 [교우론]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 歐羅巴國을 大西國 이라고 이름 하기도 한다. 利瑪竇라는 자가 있어서, 8년 동안이나 바다에 떠서 8만리의 풍랑을 넘어, 돌월에 와서 십여 년이나 살았다. 그가 저술한 [천주실의] 2권이 있다. -또 그 풍습에는 우의를 소중히 여기며 사사로운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는 [重友論]을 지었다. 초횡焦爨이 말하기를, “서역사람인 이군이 <벗은 제 2의 나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기이하다”고 하였다. 이 일은 속이담에 자세히 보인다.’<sup>46)</sup>

②. 이수광에 이어 유몽인도 [교우론]을 소개하고 있다.

‘ 天竺의 서쪽에 나라가 있어 歐羅巴라고 하는데, 구라파란 그 지역 말로 “커다란 서쪽大西”이란 뜻이다. -그 선비는 친구 간의 사귀를 중히 여기고 (其土重朋友之交), 대다수

43) 천주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문헌상으로는 처음으로 여기서 상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서 천주실의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FR. N 246 참조.

44) 沈定平, 이경규의 번역, 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史 XIII, 2010 부산교회사보 68호, p. 83.

45)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2010 도서출판 순교의 맥, p. 149.; 아마도 이 [라틴어-중문 사전]을 모리슨이 입수하여 [모리슨역] 성경 번역에 활용한 듯하다.

46)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참조; 노용필, 앞의 책, p. 19 ; 벽위편, 이지봉의 유설 참조.

가 천문과 별자리에 정통하다.’47)

③. 성호 이익(1682-1763)은 신후담과 안정복 등의 후학을 양성하여 기호 남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마태오 리치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았고, 리치 신부를 일러 ‘참으로 성인이다’고 할 정도로 천주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한편, 리치의 저술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글이 [교우론]이었다. ‘집에 1권의 외국서적 [교우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친구는 제 2의 나다.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다. 읽기를 모두 하니, 이는 뼈를 찌르는 이야기이다.-그 책에 또 말하기를 孝子が 父의 交友를 잇는 것은 産業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진실 되고 확실하니 가히 생각할만하다.’48)

성호의 제자들 대에 이르러서는 안순암의 천학교에서와 같이, 衆緯(중위:천문역법)와 句股(구고:기하학)의 술법 이외에는, 무조건 모든 서양의 이론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기경은, ‘저들은 父子, 君臣, 夫婦의 인륜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友誼를 존송하니, 이미 재물과 여자를 서로 유통하여 쓰는 기미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우론]마저 왜곡시켜 비하하고 있다.49) 신돈와(신후담)의 서학변에서는 갑진년에50) 이미 [영언역작]과 [천주실의], [직방외기] 등의 내용을 장황하게 비판하면서도, [교우론]은 다루지 않고 있다.

④. 공서과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천학초함]을 읽고 비판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천진암강학에 모여서 공부하던 同學들은 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천학초함] 속에 들어 있는 여러 편의 글들과 함께, [교우론]도 읽고 실천하였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정약전은 서울의 젊은 사류(士類)들과 교유(交遊)하며 견문을 넓히고 뜻을 고상(高尚)히 가져 이윤하(李潤夏)·이승훈(李承薰)·김원성(金源星) 등과 굳은 친분을 맺고(定爲石交), - 학문을 강론(講論)하고 탁마(琢磨)하여 서로 더불어 덕을 쌓고 학업(學業)을 닦았다. (相與進德修業。 ---當此時。李承薰亦淬礪自強). 일찍이 이벽(李檠)과 종유(從遊)하여 역수(曆數)의 설을 듣고는 기하(幾何)원본을 연구하고 심오한 이치를 분석하였다.(嘗從李檠遊。聞曆數之學。究幾何原本)’51) 이같은 내용은 [교우론]을 함께 읽고 실천하였음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⑤. [교우론]을 읽어 잘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정약용은 사돈 형인 이벽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광경을 시로 읊기면서, 同友人李德操檠乘舟入京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고52), 이벽의 장례식에 참석하여서도 友人李德祖輓詞를 짓고 있다.53) 이렇게 文度公 요한사도(약망) 丁若鏞 承旨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장 흠모하며 모시고 따르던 스승격인(從李檠遊 聞西教見西書, -자찬묘지명/ 이벽의 순교시기에 정약용은 천주교에 흠뻑 빠져 있었다), 曠菴 李檠이 非命으로 32세에 殉教하자, 그 장례식에 가서, 당시의 狀況과 世風人心을 輓詞로 표현하였는데, 8살 위의 스승격인 이벽을 友人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교우

47) 노용필, 앞의 책, p. 46.

48) 성호선생문집 상, 1974 경인문화사, p. 533 ; 순암집 제 6권, 권기명에 답하는 갑진년 편지에서도, 칠극을 두고 ‘뼈를 찌르는 듯한 절실한 내용’이라 하고 있다.; 노용필, 앞의 책, 51.

49) 벽위편, 안순암의 천학문답.; 일성록 1795. 7. 24. 천주교인들은 ‘아버이를 버리고 벼를 중시하는 마음으로..’

50) 김시준역, 벽위편, 신돈와의 서학변 참조 -이승훈이 북경에 다녀온 해가 1784 갑진년이므로, 벌써 60년 전 갑진년에 이렇게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혹자는 甲辰의 글자가 甲戌과 비슷하므로, 갑진년인 1724년이 아니라 1754년의 갑술년이라 주장하기도 한다.(cf. 홍이섭, 실학의 理念의一貌, <인문과학>1집, 1957. 12.).

51) 정약용, 선중씨(정약전) 묘지명.

52) 정약용, 第一集詩文集第一卷○詩集 詩 - 同友人李德操檠乘舟入京 四月十五日.

53) 정약용, 第一集詩文集第一卷○詩集 詩 - 友人李德操輓詞.

론] 서문에서 萬曆己亥正月穀旦 友人瞿汝夔序라고 적혀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⑥. [교우론]은 **북학파인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의 마음을 열어, 조선 사회에 **파격적인 벗 사귀**를 만들어 나갔다. 이들의 사귀는 [교우론]에 있는 ‘벗은 제 2의 나’라는 기이한 말을 통해 신분과 문화, 국경을 초월한 수평적 인간관을 낳고 있었다. **북학파는 야소교 교리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sup>54)</sup> 담헌 홍대용을 취사(取捨)하며 학문적으로 교류하던 초정 박제가(1750- 1805)는 담헌이 연행에서 귀국하자(1766년) 즉시 찾아가 홍대용을 만났고,<sup>55)</sup> 박제가 역시 북경을 4차례나 다녀왔으며,<sup>56)</sup> 정파가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덕조(벽)에 대한 추도시**를 지어 남겼다.<sup>57)</sup> 그가 이벽을 이토록 그리워하였던 것은 **어려서부터 봉선사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58)</sup>

홍대용의 부탁으로 **박지원은 [회성원집발문]**을 썼는데, 이는 [교우론]의 1장과 56장의 영락없는 판박이었다. “옛날에 붕우(朋友)를 말하는 사람들은 **붕우를 ‘제 2의 나’**라 일컫기도 했고, ‘주선인(周旋人)’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자를 만드는 자가 **날개 우(羽)자를 빌려 벗 붕(朋)자를 만들었고, 손 수(手)자와 또 우(又)자를 합쳐서 벗 우(友)자를 만들었으니, 붕우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sup>59)</sup>

이같이 홍대용과 박지원이 [교우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삼강오륜의 수직적 봉건 사회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삼강오륜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봉건사회의 윤리

54)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2012 돌베개, p. 94.  
55) 박제가 연보, p. 557.; 기억력이 좋고 암기에 능했던 박제가는 어릴 적부터 글을 좋아해 읽은 책은 반드시 **세 번씩 베껴**졌고, 입에는 늘 붓을 물고 있었다고 한다. **서자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사상을 전개하였고, **남인인 정약용과도 친교**를 맺고 교류하였다.  
56) 박제가는 1778년에 체제공의 종사관으로 1차 연행 중 성당을 방문하였고, 2차는 서호수의 종사관으로 1790년에, 이어서 바로 3차는 1791년에, 유득공과 함께 4차 여행을 1801년에 하였으나 귀국 후 9월에 함경도 중성으로 유배되었다.(서학과의 관련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57) 박제가, 정유각집, 四悼詩; 정민외 옮김, 정유각집 상, 2010 돌베개, p. 519. - 앞으로는 정유각집으로 약칭.  
박제가, 정유각집, 四悼詩, 李德操 藪

진(晉) 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道理를 늘 앞세우고 나가면서, 晉人尙名理, 진인상명리  
淸명한 道理를 알려 春秋戰國 亂世를 밝히고자 하였듯이, 淸譚亂厥世 청담난궐세  
德操는 上下 左右 先後 모든이와 差別없이 對話하였었는데, 德操議六合, 덕조의육합  
어찌하여 이리도 일찍 實存의 現世를 버리고 떠나간단 말인가? 何嘗離實際 하상이실제  
匹夫로서 만나게 되는 運數에 매여 있으면서도, 匹夫關時運 필부관시운  
집안 일 뒤로 하고, 濟民 經世에만 뜻을 두었었지! 破屋志經濟 과옥지경제  
크나큰 온 宇宙, 天上天下를 가슴 속에 모두 품고 함께 보며, 胸中大環衡 홍중대기형  
東西南北 온 누리에 홀로 외로이 드높은 境地에까지 올랐었다. 四海一孤詣 사해일고예  
萬物의 本性和 實體를 直觀하고 알리며, 物物喻性體 물물유성체  
萬有의 類別까지도 서로 견주며 밝혔었다. 形形明比例 형형명비례  
거친 벌 드넓어 아직 모두 未開拓인데, 鴻荒諒未開 홍황양미개  
뉘 있어 그 어떤 유명한 말로라도 서로를 모두 매어 묶으리오? 名言孰相契 명언속상계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 앵무새들에게 다치면, 天風吹鸚鵡 천풍취앵무  
새들은 거꾸로 몸을 뒤집어 새 장을 빠져나갈 꾀를 내듯이. 翻成出籠計 변성출농계  
못 다 낚, 남은 꿈마저 깨버리고, 머물던 움막도 미련없이 떠나서, 遽廬罷殘夢 거려과잔몽,  
그 神靈한 智慧를 靑山에 파묻고 떠나가는구로! 靑山葬靈慧. 청산장영혜  
봄가를 오고 가는 세월은 잠시도 쉬지도 머물지도 않고, 春秋不暫停 춘추부잠정,  
만물의 造化엔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네. 萬化無非逝 만화무비서,  
드높이 나르며 울며 가는 기러기, 그 휘파람 소리에 보내노라! 高嘯送飛鴻 고소송비홍,  
하늘과 땅도 한 쌍이 되어, 소리없이 뜻하며 어두운 눈물 흘리노다! 乾坤暗雙涕 건곤암쌍체.

58) 정유각집 중, p. 388-歷奉先寺余童子時讀書處也; 이벽진, -상천도를 작하여 봉점사 춘파대 사당 증하시더라.

59)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회성원집(繪聲園集)》 발문.

관 속에서, 수평적 관계인 봉우는 오류의 제일 마지막 항목이었고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은 자신보다 4살 어린 이덕무와 벗으로 통했으며, 열두세 살 아래인 제자 박제가(1750-1805), 유득공과도 허물없이 지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은 모두 서얼 출신**이었다. 박제가는 이때의 허물없는 사귀를 기리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시와 편지를 모아 [백담청연집]을 남겼다.<sup>60)</sup> 양반 가문 출신의 홍대용과 박지원은 참된 [교우론]을 알았기에, 서러움을 받는 서얼 출신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과 함께 제 2의 나로 친구처럼 지냈다. 그 때의 편지 및 시문을 간추려 벗의 우의에 대해 야박한 자들에게 경계로 삼기 위해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를 남기기도 했다.<sup>61)</sup> 그러므로 이들은 정파가 다른 남인파의 이벽과도 친구처럼 지냈기에, 이벽이 홍대용에게서 [천학초합]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이벽전), 이벽의 순교 후에는 박제가가 [사도시]를 남길 수 있었다.

또한 이들과 교류하였던 이재 황윤석은 무술년인 1778(정조2)년 11월 26일에 이덕무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덕무가 말하기를, “요사이 서울 안에 서학과 수리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자로 서명웅과 그의 아들 서호수가 있는데, 또 이벽이 있으니, 바로 무인 이격의 동생입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며 사람됨이 고결한데, 지금 저등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정후조(이가환의 매부인 정철조의 동생)가 있으니, 바로 문관 정철조(이가환의 매부로서, 여주 화가 이희영 순교자의 스승)의 동생입니다.”고(1778) 하였습니다.’<sup>62)</sup>

또, ‘내가 나군(나동선)에게 묻기를, “지금 세상의 도성 사람들 중에 또한 총명하고 뛰어난 선비가 있는가?”라고 하니, 나군이 대답하기를, “이벽이란 자가 있는데, 월천군 이정암의 후손이고, 병사 이달의 아들이며, 이격의 형(동생)입니다. 어려운 글 열 줄을 한꺼번에 보면서 비호같이 읽어 내려가고, 동시에 눈 하나로는 위를 보고 다른 하나로는 아래를 볼 수 있고, 하나로는 왼쪽을 보고 다른 하나로는 오른쪽을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 한번 뛰어올라 공중에서 3회전할 수 있으며, 두 질을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평소 서양의 <천주실의>를 몹시 좋아하여, 한때 그 무리의 으뜸이 되었는데, 나이 30에 요절하였습니다. 근년에 임금이 서양의 학문에 대해 율. 역. 수. 종류 이외에 천주실의의 학문을 하는 자들로부터 형조에서 그 책들을 거둬들여 불태우고 경향에 엄히 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군이 당시 세자의위사의 별천에 들자(?) 상소하여 천주의 설을 스스로 아뢰었습니다.”라고 하였다.’(1786).<sup>63)</sup> 또한, ‘북극고도가 한양은 37도 15분이고, 위원(북경을 뜻함?)은 40도 51분이다. 예전에 이벽에게 들었는데, 백두산은 42도 남짓으로, 봉조하 서명웅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다.’<sup>64)</sup>

⑦. 신해박해(1791) 중에 올린 이기경의 상소에서는, 이기경 본인과 채제공 역시 [천주실의]를 읽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sup>65)</sup> 초정 박제가는 1778년 1차 연행에서 채제공의 종사관으로 수행을 하였었다. 박제가 역시 이때를 전후하여 [천학초합] 전권을 읽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벽의 순교 후인, <1786년 1월 22일

60) 백담은 현재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지(圓覺寺址)의 석탑 [白塔] 을 가리킨다. 박제가(朴齊家)의 《정유문집(貞莚文集)》 권1, 백담청연집서(白塔淸緣集序)에 의하면, 한때 그 부근에 연암과 이덕무, 이서구, 유득공 등이 살았다고 한다.

61)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63권,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 정유각집, [관련 서상수에게 주다] 참조.

62) 황윤석, 이재난고 27책 무술(1778) 11월 26일 입자. - 서종태, 이벽의 서학탐구와 서울거처 및 천주교 수용 시기, <이벽 새벽을 열다>, 2015.9.24 심포지엄에서 재인용.

63) 황윤석, 이재난고 38책 병오(1786) 5월 5일 정미. - 서종태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64) 성대중, 청성잡기 권5, 성언, ‘백두산의 위도’ - 서종태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65) 김시준역, 벽위편, p. 151, 153.

朝參時에 박제가가 품었던 생각> 속에 다음과 같이 들어 있다.

“신이 듣기에, 중국의 흠찬감에서 역서를 만드는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기하학에 밝고 이용후생의 방법에 정통하다 합니다. 국가에서 관상감 한 부서를 운영하는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 머물게 하고, 나라의 인재들로 하여금 천문과 천체의 운행, 악기나 천문관측기구의 제도, 농잠, 의약, 기후의 이치 및 벽돌을 만들어 궁궐과 성곽과 다리를 짓는 방법, 구리나 옥을 채굴하고 유리를 구워내는 방법, 화포를 설치하는 법, 관개하는 법, 무거운 것을 멀리 옮기는 기술을 배우게 하십시오.(천학초합, 기편) - 신의 생각에 그들 무리 수십 명을 한 곳에 거처하게 하면, 난을 일으키지 못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도 벼슬도 하지 않고 모든 욕망을 끊은 채, 먼 나라를 여행하며 포교하는 것만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천학초합, 리편) 그들의 종교가 천당과 지옥을 독실하게 믿어 불교와 차이가 없지만, 후생의 도구는 불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열 가지를 가져오고 그중의 하나를 금한다면, 옳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들에 대한 대우가 적절치 않아, 불려도 오지 않을까 염려될 뿐입니다.”<sup>66)</sup>

병오소회를 읽은 3일 후, 정조는 선대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쟁장록] 수정작업에 참여할 명분으로 박제가를 승진시키라는 어명을 내려, 박제가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sup>67)</sup>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정조는 박제가의 간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정조가 북경에 있는 서양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럽과 교류하고 서양신부를 영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sup>68)</sup> 그러나 정조가 48세 라는 젊은 나이로 갑자기 운명함으로써 박제가의 주장처럼 서양신부를 초빙하여 개혁을 추구하려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제가는 이와 같이 서양 선교사들을 등용하여 그들의 과학과 기술을 배우자고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건의하고 있으며<sup>69)</sup>, 정약용과 더불어 종두법을 함께 연구하는 등, 이들은 봉당을 초월하여 실용적인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교류로 미루어 보아, 이벽 역시 박제가의 스승 격인 홍대용을 만나서 연행사실을 듣고 배웠으며, [천학초합]도 전수하여 보았다는 ‘이벽전’의 내용이 -(부연사 홍군사로서 천학전함을 증수하여 몰독주야하시더니)-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이명(1658 - 1722)은 숙종 때 영의정까지 지내다가 숙종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고부사로 북경에 가면서 이기지(1690 - 1722)를 자제군관으로 대동하였던 **노론의 거목**이었다. 1795년에 노론이 야소교를 믿는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 등 남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소를 올렸을 때, 정조는 ‘야소교가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이명의 편지를 인용하여 남인을 보호하였다.<sup>70)</sup> 정조가 평택 안핵어사로 파견한 김희채(1744-1802)는 본관이 청풍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노론이었으나, **이동욱의 종서從嬭**로서 이승훈이 평택 현감으로 있으

66) 일성록, 1786. 1. 22.; 정조 10년 1786. 1. 22.; 정유각집 하, 2010 돌베개, p. 198 - 199; 당시에 이 단락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이본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것도 있다고 한다; 수원화성을 지을 때, 정조는 테렌츠 (등옥함鄧玉函 J. Terrenz)의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참고하라고 정약용에게 책을 주어, 거중기를 고안해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산시문집 제10권, 설(說), 성설(城說); 起重圖說; 목민심서; 자찬 묘지명(自撰墓誌銘) 집중본(集中本); 성호전집 55권, 제발(題跋), [跋天問略]; 박지원, 열하일기, 일신수필, 車制참조).

67) 일성록, 정조 10년 1786. 4. 25.

68) 윤민구역주, 시복자료집 5, 2000 수원교구 시복시성 추진위원회, p. 120 - 'ma ben per capirle bisognerebbe aver letto cio, che sette o otto anni fa, fu mandato in Europa **La lettera del Re di Corea** conferma tutto cio che fu detto della fermezza dei nuovi Cristiani, del zelo e dei sorprendenti progressi della Religione.'

69) 박제가, 정유각문집 권3, 병오정월이십이일.- 東道西器論적인 생각이다. (cf. 위키백과)

70)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면서 3년 동안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지 않은 사실을 엄폐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고, 당시 **보고 선상에 있던 승지도 이동욱의 從兄 이동현**이었다.<sup>71)</sup>

이밖에 **소론에서도** 정과를 초월하여 姜世晷의 아들 姜彝天이 천주교를 수용하였고<sup>72)</sup>, 안동 김문의 봉사손이었던 **노론의 金健淳**과 그의 族兄 金伯淳이 천주교를 신봉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김건순은 애초 주문모 신부에게 복벌을 설득하고 이용후생을 배우고자 접근하였다. 답헌 **홍대용 등과 큰 데두리를 공유**하는 장면이다.<sup>73)</sup> 노론 명문 집안 출신인 김건순은 이미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리치신부의 [기인십편]을 통해 일찍부터 천주교를 알고 있었다. 그는 권철신을 찾아가 교리를 배웠고, 1797년에는 주문모 신부의 편지를 받고 서울로 찾아가 요사팍이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다. 김건순은 이후 친척과 친구들에게 신앙을 전파하여, 이중배, 원경도, 이현, 이희영, 정치상, 김치석 등을 입교시켰다.<sup>74)</sup>

⑧. 朋黨의 벽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진리를 찾고 기뻐하는 士類들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던 한편, 신앙 안에서 **모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班常의 사회적 단절을 사랑으로 극복하여 가는 천주교 공동체인 **敎友村**도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한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면서 하인과 백정까지 정중하게 대우하였던 정약종 순교자의 경우를 보면, 이에 감격한 **황일광 알렉시오**는 “신분으로 보아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정중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나에게서 천당이 두 개가 있다”고 말하게끔 하였다.<sup>75)</sup> 이렇게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정신은 [교우론]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였다고 본다.

### 3. [교우론]이 우리나라 작품에 반영된 흔적들

#### ①. 니벽전

‘시세 무술년 이십오세라. 수시 이성호 종학도와 **賢友賢士** 이씨 정씨네와 면학하시더라.---광주 원양산사에 은거하시때, **道友**가 중도하니 성교요지를 하필하시더라.--- 기해시세 이십육세시 **賢友** 면학 위상(爲上)하야 중집산사하니 공이 기학다박하여--- ’<sup>76)</sup>

이벽을 스승으로 모시고(爲上) 함께 공부하는 **나이 어린 사람들도 모두 현우와 도우로 칭하며, 친구처럼** 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천주공경가

“어화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로 시작하는 이벽의 천주공경가는, ‘수시 이성호 종학도와 현우현사(**賢友賢士**) 이씨 정씨네와 면학하시더라’<sup>77)</sup> 하던 중에, 노래로 지어 부른 단체가였다. 삼강오륜에서 우선시 하는 **수직관계의 君臣, 父子, 夫婦의 관계**에 앞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관계인 벗의 관계로 (朋友)** 보며 중요시하였기에, **노랫말의 제일 앞에** 놓았다. 이에 대하여 이기경은 벽위편에서, ‘저들은 父子, 君臣, 夫婦의 인륜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友誼를 존송하니** 하며, 순암 안정복이 타일러 고치려 하던 천진암강학 관련자들이 벗을 첫 자리에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sup>78)</sup>

71) 정조 15년 11월 11일; 정조 16년 2월 28일; 순조 1년 12월 24일; 정약용, 목민심서 해관 6조, 願留.

72) 황사영 백서, 58행, 60행.

73) 이경구, 답헌의 지식인교유와 지성사적 위치, [답헌 홍대용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p. 363. - 앞으로는 홍대용 연구로 약칭한다. ; 김시준역, 벽위편, p. 273.

74) 황사영, 백서, 54행; 사학정의, p. 119.

75) 달레 상, p. 474; 사학정의, p. 146.

76) 이벽전, 9b.

77) 이벽전, 9b.

78) 김시준역, 벽위편, 안순암의 천학문답, p. 34.; ‘어와 벗님네야 집구경 가자서라’(李滉, 道德歌)는(cf. 이대근, 조선 후기 천주교 수용연구, 2014 대전 가톨릭대, p. 247 각주 71.) [교우론]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것이나,

③. 성교요지

㉞. 한문본 [성교요지]는 ‘讀天學初函李曠奄作註記之’라고 작은 글씨로 부기되어있다. 이는 [천학초함] 안에 들어있는 20권의 책들 중, 전반부에 나오는 ‘唐景教碑附’에서 參初度涼菴居士의 ‘讀景教碑書後’를 읽고 그 형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sup>79)</sup>

㉟. 한문본 [성교요지]는 마태오 리치 신부가 쓴 [교우론]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교우론] 56장에서는, ‘上帝(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두 눈과 두 귀, 두 손과 두 발을 주신 것은 두 벗이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니, 그래야만 비로소 일이 성사되기 때문이다.’(上帝 給人雙目 雙耳 雙手 雙足, 欲兩友相助, 方爲事有成矣.)

原註; 友字古篆作𠄎 卽兩手也 可有而不可無

朋字古篆作羽 卽兩羽也 鳥備之 方能飛 古賢者 視朋友 豈不如是耶.

뒤이어 작은 글씨로 인쇄된, 이 문장을 설명하는 마태오 리치의 원주에서는, ‘友’자는 篆書에서, 又와 又가 위아래로 겹쳐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곧 두 손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又字古篆作- 卽兩手也 可有而不可無).

朋자는 전서에서 ‘羽’로 표기되었다. 이는 곧 두 개의 ‘-羽반쪽’로서, 새는 이를 갖추어야 비로소 날 수 있는 것이다. 옛날의 현자가 벗을 보는 시각이 어찌 이와 같지 않았겠는가? (朋字古篆作羽 卽兩羽也 鳥備之 方能飛 古賢者 視朋友 豈不如是耶?).<sup>80)</sup>

이와 같이 [성교요지]는 그 서술 방법에 있어 [교우론]과 같은 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교우론의 56장처럼 작은 글자체로 부기를 하고 있고, 교우론의 98, 99, 100장에서와 같이 **가차(假借)문자**로 쓴 서양말 등,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교요지는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교우론]을 많이 반영한 작품으로 보인다.

[성교요지]가 [교우론]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몇가지 살펴보면,

제 5 장 예수님의 가족<sup>81)</sup>

東界友師	동계우사	동방 세계 박사들이
軍光詳視	군광상시	별빛 따라 찾아와서
造室辱臨	조실욕림	누추한 곳 나신 분께
伏拜依次	복배의차	엎드려서 문안 했네

5장에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東界友師로 표현하면서, 논어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를 은연중에 암시하였다고 본다.

제 13 장 최후의 만찬

工役貧富	공역빈부	일꾼 관리 빈자 부자
左右近交	좌우근교	친근하게 사귀오며

천주공경가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양업 신부, 천당 산양가(사향가), 오춘백씨(오베드루) 소장본에서, 어화세상벗님느 |야 우리나라토츠즈가자, 지당을 가즈흐이 아담원조느 | 처넛고, 복지로가즈흐이 피스(모세)선인뉘드렷고(1) 하며, 오주예슈강스 |홈이 기모홈이(기묘함)세히로다.(5). 이외에도 ‘어화벗님느 |야 우리고국(고향)차자가세’는 27, 28, 29, 30, 40. 에서도 나오고 있다.

79) 황사영, 백서, 47행에, ‘가환사굴 축구서세랍 이벽여초함서수종 시유성년광익일부’라 하였다.

80) 송영배 역주, 교우론, 2013 서울대학교, p. 15.; 18번 문항의 원주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81) 성교요지 각 장의 내용은, 김동원편저, 영성의 길, 2008 유림문화사. 를 따랐다.

餘論尤服	여론우복	주님 말씀 복종하는
班旅盡招	반여진초	모든 사람 부르셨네

13장 최후의 만찬 부분에서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 15, 15)는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 일꾼과 관리, 빈자와 부자들이 서로 친하게 사귀고, 양반과 상인들이 모두 다 평등하게 살면 하느님의 초대를 받는다는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sup>82)</sup>

**제 34 장 시간**

璣衡驗山	기형험산	시간 재도 세월 가니
忽遽躊躇	총거저주	영복 찾기 주저 말라

璣衡, 璇璣玉衡,<sup>83)</sup> 所以占測者也. 忽遽, 促迫也. 躊躇, 猶豫不決之貌.

기형, 선기옥형, 소이점측자야. 총거, 촉박야. 저주, 유예불결지모.

기형(璣衡)은 선기옥형으로서 시간을 재는 고대의 관측기구이다. 총거(忽遽)는 촉박함이며, 저주(躊躇)는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④. 담헌 홍대용의 교우관계<sup>84)</sup>**

가. 담헌 홍대용은(1731 - 1783)<sup>85)</sup> 남양주시의 옛 미금나루 근처에 있는 **석실서원에서<sup>86)</sup>** 미호선생(溟湖先生) 김원행(金元行)에게 사사(師事)하였다.<sup>87)</sup> 석실서원의 위치는 이벽이 천진암과 두미에 머물면서 서울과 포천을 왕래하던 길목에 있으므로, 그곳에서 1770년대에 홍대용을 찾아 만나 뵈을 수 있었다고 여겨지며, 또한 책도 빌려서 필사하여 간직할 수 있었다고 본다. 담헌은 애초 김원행이 중히 여기던 제자였고, 영조 말년 **書筵에 낙론을 대표하는 신진 학자**로서 세손(정조) 교육(1774/5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sup>88)</sup>

[이벽전]에서는, 이벽이 **홍군사로부터 [천학전함]을 전수하여** 천학공부에 몰두하였다고 적고 있다. 담헌 홍대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제까지의 연행일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홍대용의 부연사행**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청 관계에 있어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홍대용의 연행일기에서 비롯되었다.** 홍대용은 남당과 동당의 성당을 찾아, 4차례에 걸쳐 그곳의 예수회 신부들을 만나 볼 수가 있었고, 이들의 과학과 종교에 대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에, 후에 **고금도서집성 5,020권**에 달하는 책을 정조 즉위 직후인 1777년에 은자 2,150냥을 주고 수입하여 열람하면서 공부를 하였고<sup>89)</sup>, 이들 가운데서 [천학초함]을 이벽이 빌리거나 복사하여 공부하였으리라고 본

82) 김옥희, 한국천주교사상사 I - 광암 이벽의 서학사상 연구, 1990 순교의 맥, p. 193.

83) 성교요지 34장에서, 璣衡驗山 - 시간재도 세월 가니-를, 註에서 璣衡을 璇璣玉衡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璇璣玉衡은 천문을 관측하는 고대의 기구이므로, **이벽이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cf. 정약용, 증이벽 참조 - 의의수불개 7요질서권.) ; 박제가의 사도시- ‘이벽을 추모함’에서도 이와 똑 같이, “크나큰 온 宇宙, 天上天下를 가슴 속에 모두 품고 함께 보며, 胸中大璣衡 홍중대기형” 하며 읊고 있다.

84) 홍대용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참조.

85) 남양, 자는 덕보, 호는 담헌, 천안 수신면 장산리 수촌에서 태어났고, 묘도 그곳에 있다.

86) 현재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치하며, **구산성지의 강 맞은편에 나룻터가** 있던 곳으로서, 서울에서 신부님들이 판공을 다닐 때, 양주 지역의 판공 이후, 미금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신부님의 미사 짐을 받아서 구산으로 모셔들었다는, 부친(김완식)의 이야기를 필자는 들을 수 있었다.

87) 홍대용, 담헌서 내집 3권, 서(書), 미호 선생 김원행에게 올리는 편지[上溟湖先生金元行書] 참조.

88) 홍대용, 담헌서 내집 2권, 계방일기(桂坊日記). ; 홍대용 연구, 2012 성균관대학교, p. 356.

89) 정조 1년(1777). 2. 24. 참조 - 정사 이은, 부사 서호수 등이 장계를 올려 그간의 상황을 알리다. 이후 동지

다. 후에 정약용도 이렇게 도입된 책들 가운데서 [기기도설]을 보고 응용하였다.<sup>90)</sup> 이규경이 언급한 이 [기기도설]에는 기계의 조작과 설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이와 더불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소상히 다루어져 있다. 이를 보면 정조와 정약용은 이 책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알았을 것이다.<sup>91)</sup>

나. 홍대용은 **서장관이 된 계부 홍익을 따라서 자제군관으로** 1765년 11월 2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12월 27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1766년 정월 초하루의 조참례에 참여하여 만주어로 행하는 의례의 소리를 들으며 연행을 시작하였다.<sup>92)</sup> 음악과 관련하여 담헌이 북경에서 목격한 경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월 9일에 남천주당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파이프오르간을 직접 연주까지** 해보면서 서양문물을 상세히 접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담헌 홍대용은 서양 과학을 새롭게 발견하고, 비로소 그 중요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홍대용의 중국여행은 그의 사상 형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서 사귀었던 몇 명의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cf. **교우론**) 나눔과 동시에 학문적인 교류를 전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담헌은 정주학만이 아니라, **양명학, 西學, 불교, 제자백가도, 모두 진리를** 일정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상전개의 국면에서 **유교를 벗어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유교가 강조하는 **차별과 차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등’을 사상적 지향점**으로 내세우게 되었다.<sup>93)</sup>

다. 담헌 홍대용 주위의 지식인 가운데 잘 알려진 그룹은 이른바 연암 박지원 일파이다. 연암 그룹은 담헌과 연암을 중심으로, 선배로는 김용겸, 원중거가 있었고, 후배로는 조정 박제가, 형암, 영재, 이서구 등이 있었다. 원중거가 1763/4년에 일본을 사행하고 기록한 [승사록] 과 [화국지]는 담헌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원중거는 일본 문화를 상세히 전하며, 그들의 시문 융성, 서적유통 등을 높이 평가하여 ‘해중문명’이라 칭하기도 하였다.<sup>94)</sup> 담헌이 원중거를 취사했던 것처럼, **연암 박지원과 조정 박제가(1750-1805)는 담헌을 취사**하였다. 특히 조정 박제가 급진적으로 문명의 위계를 세우고 중국의 선진성을 수용하고자 했다. **문물교류 지향을 서양으로까지 확대시켜 서양 선교사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sup>95)</sup> 조정은 다산 정약용과 절친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천주교 창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벽을 경제의 선비이자 사물의 본성을 깨우친 이로** 평가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를 쓰고 있다.

라. 김원행 문하의 동문이었던 **정철조는 성호 이익의 조카이자 이가환의 부친인 이용휴의 사위**였다(=이가환의 매부). 이가환의 부친 이용휴의 집에는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기하원본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이가환은 매부 정철조로부터 **수리정운**을 빌려보기도 하였다. 황윤석은 정철조로부터 **역상고성**을 빌려 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철조를 매개로 담**

겸사은 정사 정준겸 등이 지난 해 봄에 완성된 <사고전서>를 (3만 6천권에 총목만 2백권) 구입하여 들여오고 있다.(1783. 3. 24.) 이어서 사은사 서장관 이정운은 (1785. 4. 19.) 이미 수입한 四庫全書 3만 6천권의 장서를 4부로 베껴서, 문연각, 문원각, 문진각, 문소각에 갈라서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90) 다산시문집 10권, 城說 - 글이 올려지자 임금의 비답이 융중(隆重)하였는데 ‘용성(甕城)·포루(砲樓)·현안(懸眼)·누조(漏槽) 등의 제도와 기중(起重)의 모든 설(說)을 빨리 강구하라.’ 하고, 인하여 1권(卷)으로 집성(集成)된 내장도서(內藏圖書)를 내리시니, 이는 곧 《기기도설(奇器圖說)》이었습니다. 신(臣)에게 그 제도들을 참고해 보게 하였으므로 신은 삼가 -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도설(圖說)을 만들어 올립니다.

91)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3, 서학 참조.;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2012 돌베개, p. 359.

92) 홍대용, 담헌서 외집 8권, 연기, 경성기략 -북경 관(館)에 머물러 있는 62일 동안에, 돌아다니며 구경한 날이 33일이었다; 홍대용 연구, p. 292.

93) 홍대용 연구, p. 108

94) 홍대용 연구, p. 358; 원중거, 화국지, 2006 박재금 역 ; 원중거, 승사록, 2006 김정숙 역 참조.

95) 박제가, 정유각집 권 3, 병오정월22일; 박제가 년보, p. 563.

현 등 연암일파와 성호학파의 학문적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생전의 담헌은 성호사설을 소장하여 읽은 듯하다. 연암일파와 이가환 등과의 교류는 담헌의 사후에 더욱 긴밀해졌다. 그중 조정 박제가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였다. 조정은 자신과 절친했던 친구 60인을 기린 시(戲傲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에서, 정철조와 이용휴, 그리고 이가환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노래하였다.<sup>96)</sup>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는 조선 후기 서양화법의 효시라고 하는 **이희영(1756-1801)의 犬圖**가 소장되어 있다. 이희영의 견도는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서 장식용으로 가져온 서양화와 북학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영의 스승인 정철조(1730-1781)**는 1772년 이후로,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 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문학과 예술, 실용적인 학문 등을 연마했다. 그는 서양 과학 서적을 연구하여 천문관측이나 역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다. 또한 정밀한 그림에도 뛰어나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sup>97)</sup>

<요약정리>.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벽전]에서 이벽이 **홍군사로부터 [천학전함]을 전수하여** 천학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sup>98)</sup> 이렇게 이벽과 홍대용의 교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노론 집안의 김건순 순교자도 제사문제로 권철신과 교류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까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99)</sup> 이렇게 정과를 넘어서는 교류의 현상은 이제까지의 연행일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홍대용의 부연사행**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성교요지] 34장에서, **璣衡驗山** -시간제도 세월 가니- 註에서 **璣衡**을 **璇璣玉衡**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璇璣玉衡**은 천문을 관측하는 고대의 기구이므로, **이벽이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고 천문학을 매개로 홍대용의 북학파와 교류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cf. 정약용, 증이벽 참조 - 이의수불개 7요질서권.). 박제가의 사도시- ‘이벽을 추모함’에서도 이와 똑 같이, “크나큰 은 宇宙, 天上 天下를 가슴 속에 모두 품고 함께 보며, **胸中大璣衡** **홍중대기형.**” 하며 읊고 있다.

또한 [성교요지]는 그 서술 방법에 있어 [교우론]과 같은 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교우론]의 56장처럼 작은 글자체로 부기를 하고 있고, [교우론]의 98, 99, 100장에서와 같이 **가차(假借)문자**로 쓴 서양말 등,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교요지]는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교우론]을 많이 반영한 작품으로 보인다.

### 3-3. 방적아 저, [방자유전] 1610년(Diego de Pantoja, 1571-1618, )<sup>100)</sup>

**방자유전 1권**, 전시학귀신에서, **성경**에 실린 요점은 4단이니, **1.성박록(사도신경)**이  
詮始學貴信 聖經 性薄錄  
 요. **2. 천주경**이고, **3. 십계요**, **4. 살격랄맹다(Sacramenta/성사)**이다. 성인 **아오사정**.(2).  
撒格辣孟多 亞吾思丁

96)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2월14일, 승문원 정자 이가환을 불러 -질의하다.; 홍대용 연구, p. 362.  
 97) 황사영 백서, 64행; 정조 5년 1781. 9. 4.; 일성록 1791. 9. 4; 최상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 p. 126.; 윤사연 집, 벽위신편 참조.  
 98) 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I, 천주교수원교구 서복시성위원회, 2011, 157쪽에서, ‘이벽이 홍대용에게서 한문서학자들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대용은 노론쪽 인물**이고 **이벽과 그의 집안은 남인에 속하기 때문이다.**’하며, 남인과 노론의 교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한다(쟁점연구, p374).  
 99) 달래, 한국천주교회사 상, 488- 495.  
 100) 방자유전 4권, 인류원시, p. 17하, 23하에 **만력경술년인 1610년**이라 하였다.



**두사**(천주)의 이름은 파덕룩(성부)과 비약(성자)과 사피리다 삼다(성령)이다.(**명위두사**  
(Deus)<sup>101</sup>) 야소는 구세자란 뜻이다.(비약 어 **1600년전** **탁어** **청결동녀** **마리아** **취인성**(3하)  
於 年前 托於 清潔 童女 瑪利亞 取人性

이강탄세명위야소 역언구세자). 사후삼일 **우자부생**<sup>102</sup>) 40일간 **루현현적**(5).  
而 降誕 世 名 爲 耶 蘇 譯 言 救 世 者 又 自 復 生 歷 現 顯 跡

성령으로 인하여 동신 마리아에서 강잉하시다.(전인 사피리다 삼다 **강잉생어마리아**  
證 因 降 孕 生 於 瑪 利 亞  
**지동신**)(23상). 범인은 모두 음양의 교구로 잉태되지만, **모씨** 마리아는 동신을 보존하신 채  
之 童 身  
야소를 낳으셨다.(범인개유 **음양교구이잉** - 이유보존기동신자 독야소불연 **모씨마리아**<sup>103</sup>) 미  
陰 陽 交 媾 而 孕 又 自 復 生 而 保 存 胎 氣 獨 孕 聖 女 不 離 聖 母 瑪 利 亞  
임지선 고시동신 기생야소)(23상).

**방자유전 2권**, 반작 비랄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전 수난어 **반작 비랄다** 거관  
般 雀 比 刺 多  
시 피정 십자가사 **이내예**).(1). 12도중 여답사가 30은전을 탐하여, 파사괘지레 때에 야소를  
而 乃 懸  
팔아 넘겼다.(명**여답사**자 소유탐행, **30은전**, **파사괘지레**(cf.요한 13장).  
名 耶 答 撒 者 所 有 探 行 30 銀 錢 而 懸 聖 母 之 體 (cf. 約 翰 13 章)

**방자유전 3권(성박록)**  
性 薄 錄

승천하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다.(전 승천 어전능자 파덕룩지우좌)(1). 야소 부생후 40일  
에 아리말산에 이르시어 제자들에게 액만일약(선희보/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라 하셨다.

(**아리말산** 제제자목적 기육신지부생,-**복음만일약**(Evangelium)<sup>104</sup>) (역언 **선희보**).  
阿 里 馬 山 第 一 次 傳 道 之 目 的 爲 傳 佈 聖 子 之 道 而 生 肉 體 之 聖 子 故 傳 佈 聖 子 之 道 (cf. 約 翰 13 章)  
非 聖 子 之 道 異 於 聖 子 之 道 性 性 朽 壞 汚 穢 以 明

**방자유전 4권**,

인류의 시작과 관련하여(전 인류원시)(16상), 복회와 요순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과 비교하여  
證 人 類 原 始  
본성이 순수하고 선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복회요순지민** 성심순선 제문예여법도), 답왈  
무시종자이신 조물주가 계셔서 무궁존대복락을 마련하셨다.(특조물주이기 기무궁존대복락).  
천주께서 천지인물을 7일에 조성하셨는데(**천주조천지인물지공 7일성필**)(18), 6일 동안 천  
지만물을 조성하신 후 2명을 조성하셨는데 남자는 아당이고 여자는 액말이었다.(**6일지기** 천  
지만물성전 **이비인용** 이후**조성2인** **남명아당** **녀명액말**). **낙액**의 장자는 **생**이고, 차자는 **강**이  
而 備 人 用 而 後 生 肉 體 之 聖 子 故 傳 佈 聖 子 之 道 而 生 肉 體 之 聖 子 故 傳 佈 聖 子 之 道  
고, 작은 아들은 **아불덕**인데, 천주께서 명하시어 **상하 삼층**의 독을 짓게 하셨고, **처자와 그**  
**아들의 처와 조수만류**를 들이셨는데, 순결한 **짐승 7쌍**과 불결한 **짐승 양쌍**을 들이셨고, 초  
목의 씨앗도 들여와 먹게 하셨다.(21).<sup>105</sup> 1610년 전에 친히 강진세하시어 성덕동모 **마리**  
**아씨**<sup>106</sup>)에게서 여덕아에 탄생하셨다.(24) **상제의 도가 아닌 것은 성도와 다른 것이어서, 진**  
**실로 진실로 썩어 없어질 것을 따르는 것일진저**(**비상제지도 이어성도** **성성후괴오예**). 이명  
非 上 帝 之 道 異 於 聖 子 之 道 性 性 朽 壞 汚 穢 以 明  
**리** **즉여몽**(이것이 몽매함을 밝히는 이치로다).(31). 방자유전 끝.  
理 則 如 曠

101) 디아스 신부의 [성경직해] 1권에서도 두사 陡斯라 하였고, Louis de Poirot(가칭태) 신부의 고신성경(1800  
경)에서도 두사 陡斯라고 함.(사도행전 3, 13. -아과랍함무적두사, 의살격적두사, 아각백적두사, 아문조적두사).  
102) 부활을 여기에서 부생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따랐는지 개신교 대표역본(1865) 성경에서도 부생이라 하였다.  
103) **성교요지 5장의 '모씨슬처'란 표현도 여기와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 / 한글본 '실씨부인' 참조.  
104) 인도, 중국, 조선, 일본이 모두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소속이었으므로, **포르투갈어 Euangelho** 를 음역한 것  
으로 보인다. (라틴어는 Evangelium이고, 이를 성경직해광익에서 우리말로는 '에완여라그' 라고 하였다.) O  
SANCTO EUANGELHO DE NOSSO SENHOR JESU CHRISTO, SEGUNDO S. MATTHEUS. 처럼 마테오  
복음을 시작한다. 디아스의 [성경직해]에서도 **액만일약**이라고 하였다.  
105) 방자유지 4권에, 성교요지 1장- 2장의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등의 내용이 다 들어 있다.  
106) 성교요지 5장의 **모씨슬처**와 비교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약정리>. 이상과 같이 방자유전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두사**로, 예수님의 **파사**패 지레(과월절), 복음을 **액만일락**으로 표현하는 등 **가차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성교요지 5장**의 ‘**모씨슬처**’란 표현과 같이 ‘**모씨마리아, 마리아씨**’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자경문]에서도 시몬씨를 백다록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曰西滿氏 西滿見主 改伯多祿)(15). 천주강생인의 하권 제 10장에서, 공자를 **공씨**로 칭하듯, 당시의 “-씨”란 표현이 지금의 ‘이보게! 차씨, 윤씨!’ 등과 같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존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3-4. 陽瑪諾 역, [성경직해],1636년.<sup>107)</sup>

디아스(Emmanuel Junior Dias, 1574-1659, 陽瑪諾)신부가 지은 [성경직해]<sup>108)</sup> 1636년에 북경에서 출판되었다. **성경직해자서**에 이어, **성경직해주세주일지목록**이 나온다. 이어 **성경직해주세침례지목록**이 나오고, 이어서 **성경직해잡사지목록**에는 천주와 천주삼위일체, 천주성부로부터 사후, 심판, 천당, 지옥까지 **145개 항목의 천주교 용어**가 정리되어 있다. 이 천주교의 교리용어가 [성경직해]에서 사용되고 있는 곳(0권 0장)과 그 용어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도(0권 0장)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천주성자’ 난에는, ‘하위천주성부지물**이봉**(Verbum, 9권 21장), 우오명사지물**이봉**하동하이(9권 22장), 하독성자강세속인(9권 10장)’이라 하였다. 침례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직해 제일권> 극서야소회사 **양마낙역**; 천주야소계리사독주세주일성경직해(턴주 **여수** **스그리스두** 주일성경) - 天主는 서양 원문으로 **陡斯(두사, 한글필사본=테우스)**<sup>109)</sup>

107) 극서양인서선생역, 천주강생 성경직해, 건륭4년(1739)추월중간, 경도영보당장판을 참고하였다. ; 1640년에 양마낙이 지은 輕世金書便覽, 1815년 주교 약아경 公準도 있다.; 우리나라 최초 **한글 성경**은 1790년대 초 역관 출신 최창현(요한)이 펴낸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이다. 「한글본 성경직해광익」은 디아즈(예수회)신부가 1636년 북경에서 펴낸 「성경직해」(聖經直解)와 마이야 신부가 1740년 북경에서 펴낸 「성경광익」(聖經廣益)을 취합해서 한글로 옮긴 책이다. 중국에서 한문으로 쓴 두 책은 주일·축일의 성경 본문, 본문 주해, 묵상, 실천 덕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글 신약성경**의 효시가 되는 「성경직해광익」은 박해 속에서도 필사를 거쳐 신자들에게 널리 퍼졌다. 수록된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4복음서의 30% 분량이었다.[cf. 서정수, 성경직해 광익, 1984 한국교회사연구소 해제 참조.; 평화신문, 2012년 11월 25일, 남정률 기자]; 천진암 성지자료집에 실린 필사본이 ‘**여수, 스비리도 산도, 아른**’ 등의 표기로 보아 더 앞선(1800년대 전반)사본이다.

108) Bibliotheque Royale 소인이 찍힌, 極西陽演西先生(陽瑪諾)譯, 天主降生聖經直解, 京都領報堂藏板, 乾隆四年(1739)秋月重刊이다.(소순태 교수가 제공해주었다.) 聖經直解自序 글 중간에서 1630여년이라고 하였고, 말미에는 崇禎丙子(1636)孟夏望日陽瑪諾題라 하였다. ; 성경광익, 1866 자모당 중각(1984 태영사 영인본)- 그날의 성경본문, 의행지덕, 당무지구 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양자, 중국천주교순교사, p. 147에, ‘신교사들은 용정(1722-1735)과 건륭(1735-1795)의 박해 중에도 **북당에 인쇄소를 설치하고 서적을 출판**하였으며, 고용된 여러 명의 **한문선생들이 번역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천진암성지의 **한글 필사본은 詳準, 四至日畢準, 성경직해광익 제일권 상편 목록으로 시작된다.**( 詳準, 四至日畢準의 뜻은 자세히 살펴보고 동지(11)월 4일에 필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畢準은 **오늘의 교회인가에 해당되어 주교가 인준하는 것이므로, 주문모 신부나 앙베르와 페레올 주교 등이 필준하였을 것으로 보며, 1800년대 초중반의 필사본으로 보이는데, <유파치피코 신부의 성모송과 같이 여수와 아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성 남이관과 성 조중이가 살던 이천 다래촌 권회장의 집에서 변기영 신부가 입수하였다. 11.5cm\*18cm 한지에 썼다. 천진암성지 자료집 제 114권, p. 1부터. 1권 사본이 들어 있다.; 사학징의 말미에, 부 요화사서소화기(1801년 5월 22일 9죄인 정법후 수대기축)가 있다. (한)신애의 집에묻어두었던 책들을 찾아낸 **굴출기** 속에, 성경일과, 성경광익6권, **성경광익직회**6권, 미살1권, 성경직회3권이 있다. 윤희가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성경광익8권, 성경직해5, 성년광익1, 성경직회1, 명도회규1, 죄인지축일기1, 녀수도문1, 아요상제1, 성안덕특1이 있고, 군암?사 앞에 사는 회인이란 여인의 집에서 압수한 성여수성호1, 성경광익1 등이 있다.; 조한건, 성경직해광익, 서강대학교대학원 사학과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성경직해 I-II와 성경광익 상하, 1984 한국교회사연구소영인본이 있다.; 1892년부터 뒤텔 주교에 의해 내용이 더해지고 수정 보완되어 활판본으로 [성경직해광익]이 간행되었다.

라 하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다.(한글본-스스로 계신자). 이후 천주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무형, 무시무중, 常活常, 王, 무소부재, 만선만복, 渾然全備, 未有天地之先, (업느가온대로조차)造成天地人物, (진실노 나를 내시고 날 다스리시느)大原大主(p. 1)라 하였다.

다음에 耶穌(여수<sup>110</sup>)에 대하여; 천주강생후지명이며, 譯言하면 救世者(세상을 구하느자)이시요, 元祖가 지은 原罪로 천주대발자비(天主大發慈悲. 是위救世자.)하여 강생하신 구세주로 야소라 칭한다고 하였다.<sup>111)</sup>

契利斯督(스그리스두)에 대하여서는; 吾主 여수의 別名號이며, 譯言受油傳也(성유로 바름을 맞다말), 古禮에 새로 왕을 세우거나 及聖敎宗主를 세울 때 그 頂(니마의 브르나니), 여수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聖敎의 大主이시다.

主日(주일)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성교에서는 매 7일 마다 주일(太陽之日)을 정하여, 敎者는 罷百工을 하며(브니공을 파호고), 聖殿에 나와 彌撒(미살 참예호고)과 講道를 들으며, 主님께 君父(주스그 님금과 부모를 위호며)와 萬民과 親友와 己身을 위하여 福을 구하여야 한다. 성 奧斯定(와스딩)의 주일에 대한 설명으로, 天主開世之首日(세상을 열으시던 첫날)로서 如德亞人(유더아국 사롬)이 대해를 지나온 이날도 바로 주일이었다고 한다. 이날은 按味(만나)降之首日(맞느 나오시던 첫날)이요, 오주의 강생성탄일도 주일이요, 수난 후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성신강림날도 주일이요, 세말심판의 날도 주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날이어서 瞻禮를 지내는 것이다.(2).

聖經(성경)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서양) 원문으로는 陌萬日晷<sup>112)</sup>으로서 역언하면 福音(복된소식)이다. 천주강생후 친히 전하여 주신 것이 새로운 가르침 新敎(새교/ 성교는 천성의 교이니 원조적브터 믹스(모세) 성인스그지 니르니 상고적 교이라)이다. 혹 묻기를 福音者라 칭할 수 있는가? 성 基所(Chrisostomus, 스그수성인<sup>113</sup>)가 답하되, 오주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총을 베푸시어 덕을 닦아 天主義子의 高位로 올리시고, 영고를 면하고 영복을 누리게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 있으니, 이를 일컬어 복음이라 하는 것이다. 또 묻기를 어떻게 新敎(새교)라 하는가? 古新이란 선후가 있다는 뜻인데, 中古시대에 每瑟(믹스)

109) 판토타 신부가 방자유전(1610년) 1권에서 제일 먼저 두사(Deus)라 하였고, Louis de Poirot(가칭테) 신부의 고신성경(1800경)에서도 두사(Deus)라고 하였다.(사도행전 3, 13. /아파랍함무적두사, 의살격적두사, 아 각백적두사, 아몬조적두사.);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서학 조에서도 두사를 언급하고 있다.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 이르기를 “야소(耶穌)라는 말은 번역하면 세상을 구제하는 왕이라는 뜻이니, 두사(Deus) 천주(天主)가 강생(降生)한 뒤의 이름이다. 두사는 아무런 형체가 없을 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다. 사람의 시조인 아담(亞當)이 아말(阿末)의 말을 따라서 두사를 받들지 않음으로 해서, 두사가 세상에 내려와 모든 사람의 죄를 구하고자 하여 漢(漢) 나라 애제(哀帝) 원수(元壽) 2년 경신 신라 시조 57년. 백제 시조 18년. 고구려 유리왕 19년에, 여덕아국(如德亞國) 이마두의 말에 의하면, 옛날의 대진국(大秦國)이라 한다. 동정녀(童貞女)인 마리아(瑪利亞)의 몸에서 태어났다. 야소로 불려진 33년 동안에 사망을 돌아다니며 정도(正道)를 알렸는데, 악당 반작비랄다(般雀比刺多)라는 사람이 무고(誣告)하여 극형(極刑)을 받고 죽었다. <청삼통>을 찬집한 글에서도, ‘서양 사람들은 천주를 높여서 두사(Deus)라고 부른다.’하여, 교회 안팎에서 모두 아는 용어였다.

110) 사학정의 말미에 있는 압수석적에서 여수와 녀수라 하였다.; 한글필사본 [성경직해광익]에서는 여수와 아몬이라 하였으나, 감목 민와스딩 감준, 성경직역 1권집, 1893 계스 신판에 이르러, ‘네 아들 우리쥬 예수 그리스도를 위호야 호쇼셔 아멘’ 하고 있다.

111) 성호전집 제 55권, 천주실의발에서도 ‘於是天主大發慈悲. 親來救世.’라 하였다. 그러나 ‘耶穌者西國救世之稱也’라 하여, 야소를 초두가 있는 耶穌로 썼는데, 번역원에서도 잘 못 알고 컴퓨터로 변환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연행록 기사집성,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글 도처에서도 耶穌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

112) 판토타의 [방자유전] 3권에서도 福音이라고 하였으나, ㅼ아로 신부는 그의 성경 번역 [고신성경]에서 만일략(Vangelo)이라 하였다. 당시 인도, 중국, 조선, 일본이 모두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소속이었으므로, 포르투갈어(Euangelho)를 음역한 것이다. 라틴어는 Evangelium이고, 우리말로는 ‘에완여라고’ 라고 하였다.

113) 민기, 한중일 가톨릭 어휘사(I), <한국교회사논문제집 II>, 1985 한국교회사연구소, p. 603 참조.; 성경직해 1권(성탄전 제일주) p. 35에서는 聖基所落(끼수로/한글본73)이라고 하였다.



성인이 천주께 誠를 받았는데, 이때가 중국(중국)의 商王 祖乙 七年으로 壬寅년이었다. 桴主降生하신 때는 중국 西漢 哀帝 元壽 二年 庚申으로.<sup>114)</sup> 이 사건의 시차(상거)는 1,517년이었다. 若翰 宗徒(요안종도) 성인이 이르기를, 모세는 고교를 전하고, 오주는 스스로 그 진실한 교를 세우신 것이다. 주님께서 伯鐸羅(버도루-한글본八) 종도에게 이르시되, 吾敎는 악마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끝이 없을 것이다(마태 16, 18) 하셨다. 오사정 曰 計613條가 있으나, 신교의 계는 간략하여 信望愛主愛人이 있을 뿐이다.(6). 高교는 一國之敎요 私敎이나, 신교는 萬國之敎요 公敎이며 廣大하다.

또 묻되, 에완여퇴를 기록한 성사가 몇위이뇨? --- 하나는 若翰(요안) 성인이요, 하나는 瑪竇(마두) 성인이요, 하나는 路嘉(루사) <sup>115)</sup> 성인이요, 하나는 瑪爾譚(말구) <sup>116)</sup> 성인으로 4사위이다.(7) 4위 성사가의 표상으로 요한 복음은 (독수리)鳳을, 마두는 사람(人)을, 루사가(한글14)는 송아지(犢) 상이요, 사자(獅)는 말구 성사의 모상이니 대개 요안밧디스다(한글14) 성인이 마치 사자 마냥으로 맹렬히 소리함을 뜻하는 것이다. 四史聖經.<sup>117)</sup>(8).

여수 성탄전 데 사 주일 성경(현 대림 제1주일; 루가 21, 25-33 ; 한글 광익 16) ; 유시에 여수 | 문데자(門弟子)더러 닐으샤되 해와 달과 별의 당도(한글 17). 無花果, 天國已近(턴주의 국이 갓가운줄을 알디니라/한글 19).

箴; - 聖 巴西略(바실리오), 聖 祭利落(치릴로) 地獄之苦(11). 葆祿聖徒曰-主來審判(11).

당무지구; 위죄인 ㅁ | 과 - 죄인의 허물 고치길 위흐미라.

축문; 복망 턴주 퇴이대능, 득탈장르 | 위험, 퇴이구원 득향안전, 아쥬여수, 흐 | 성부, 흐 | 성신. 아른.<sup>118)</sup>

업드여 턴주스기 브라느니 네 대능을 힘닙어 창르1에 위험흐를 버셔나길1 어드며 네구원흐심을 힘닙어 평안흐고 온전흐를 누리길1 엇게흐소서 아쥬 여수1 성부와 흠스기 흐시며 성신과 흠스기 흐샷다. 아른.(한글 28).

여수 성탄전 데 삼 주일 성경(현 대림 제2주일; 성스 마두 데 십일편-마태11, 2-10; 한글본 28). 요안밧디스다 성인이(聖 若翰 保弟斯大) 스가리리아국에 (있으)이실스1 힘브서 국민을 권흐야---. 經 성마두 제11篇 ; 유시에 요안이 옥의셔 스가리스두 흐 ings적을 드르매, 두 데즈를 보내여, 여수스기 무르드1 --- 여수1 드1답흐야 ㅁ르오샤드1, 도라가 요안의게 드르바를 고흐라.(한글 31)

箴; 若翰居囹圄 - 요안은 대성인이라. 죄업시 가도이물넙고, 에로더는 극악인이라.(한글본 36) - 厄洛德 劇惡人也.(15). 篤比亞(도비아)古經. 聖額我躡(그레고리오)<sup>119)</sup>曰.

114) 정약종의 주교요지 하편 3장에서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다. 이로써 정약종이 성경직해를 읽어 알고 있었고, 그의 한글주교요지에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성경직해의 한글번역에까지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광은 한글번역에 참여한 이들이 최창현, 이승훈, 정인혁, 권일신, 황사영 등이었다고 추정한다.(조한건 논문 참조).

115) 제 2권, 오주성탄후주일에서는 로가라 하였다.

116) 성신강림후 제 6 주일에서는 마이곡이라 하였다.

117) 한기근 신부의 [사사성경]은 여기에서 왔으나, [진교사패]의 마태, 마가는 대표역본에서 취한 듯하다.

118) 이 기도문은 성경광익의 한문을 우리말로 발음하여 읊긴 것이다. 그러므로 12년 이상을 중국 사천포교지에 머물던(cf. 달레중 370) 앙베르 주교가 못 알아듣는 중국말로 우리 교우들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다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cf. 22번 편지/4명의 통역을 두고 공동기도문을 번역했다고 한다.); 성경광익에서는 아맹이라 하였으나, 초중기에 우리 번역자들은 이를 아른이라고 음역하였다. 유파치피코 신부의 편지 속에 들어 있는 성모송(1847년 6월 19일 홍콩, 여수와 아른)을 참조.

119) 교우론에서 리치 신부가 인용한, 100 어구의 창안자들과 똑같은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당무지구 위미세자 ; 세상의 미혹한 자를 위함이라.

축문; 망쥬진거오심, 이치이유일즈지도, 피이강세, 비오령청결, 영원봉스 여수, 흐 | 이, 흐 | 스비리도(사피리다)산도(살다)<sup>120</sup>, 내생내왕세세. 아문.

바라나니 쥬야 내 므음을 사덜쳐 드러봐 네 오직 하나인 아들의 길홀 다스리게 하시며, 더 의 강세하시를 힘납어 내 령혼으로 해야곰 청(결)해야 영원히 여수를 봉스케 하쇼셔. 너와 흠스기 하며 스비리도 산도와 흠스기 해야, 이에 생활하시고 이에 재세하심을 세세로 하시 낫다. 아문.(한글 49, x십구).

여수 성탄전 데 이 주일 성경(현 대림 제3주일; 성사 요안 제 일 편/ Jn. 1, 19-28=현 1월 2일 말씀); 요안 성인이 도성 교외 올당물(若爾當河)로 회피하여 계셔 오직 몸을 닦고 사람을 권하여 령세(領洗)하길 힘쓰니... 經(성 若翰 제일편); 維時如德義(유더이는 본국사람을 한가지로 일컫는 이름이니라. 나라는 유더아라 이르고, 사람은 유더이라 이르나니라.) 이 일은 사버다니아 올당물 뒤에서 행하였으니, 그곳에서 요안이 세를 주더라.(前事悉行於 白大倪亞 若爾當河之後 - 譯言審判之河 源有二 一名若爾 一名當 茲合名若爾當).

당무지구; 위본국군왕 - 본국 님금을 위함이라.

축문; 근기턴쥬, 부텅오도, 이이강림지총, 명조오지암, 의광상진, 이득선종. 아문.

간절히 천주께 비나니 내 빌음을 굽흐려 들으사 네 강림하신 성총으로서 내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어 빛을 의하여 덧덧이 나아가므로서 선종을 얻게 하소서. 아문.

여수 성탄전 데 일 주일 성경(대림 제4주일; 성사 루까 제 삼편 ; Lc. 3,1-6/다해 대림2주일 말씀) -- 여수 세상에 계신지 29년을 성모와 요쥬(若瑟) 성인으로 더불어 한가지로 계셔, 요쥬 성인과 한가지로 나모 깎기를 업으로 삼으시고, 후에 장차 나가 교를 퍼려 하실새 이에 먼저 요안 성인을 특유하여 곳으로 따라가며 사람을 권하여 쥬를 좃게 하시니라.

經 (성 路嘉 제삼편) ; 第白晷(디버뢰-티베리우스) 責撒爾(서살이) 卽位十五年 般雀(사봉쇠) 比辣多(비라도)는 如德亞(유더아)를 다스리고, 厄祿德(에로더)는 加理勒亞(사가리티아)를 다스리고, 厥弟 費理伯(비리버)는 義度肋亞(이두리아)와 大各倪亞(사다거니디데)를 다스리고, 理撒倪亞(리사니아스)는 彼理納(아비리나)를 다스리고, 亞納(아나)와 該法(개마)는 교사를 사유할새(方司敎事), 천주의 목계하심이 들에(方居山林-경성남녘으로 일백이십리라) 있는 자카리아의 아들 요한(若翰 匝加利亞子)에게 계신지라. (한글 69/ 乃衆目得視主救世者.- 33).

箴 : 告解罪何.-而神父依規解之. - 宗徒 伯鐸羅曰. --後來雖有敎皇相繼. --故復有撒責(Sacerdos)之選. -- 천주입해죄지레 -- 蓋罪人 病人也 神父良醫也.-- 聖 盎博削曰 罪如熱病.-- 惟一吐露神父之前. 聖 納西盎(37). 神父- 贖補罪 - 蓋耶穌一身贖之矣(38).<sup>121)</sup>

당무지구; 위 죄인 개과- 죄인의 허물 고침을 위함이라. (한글 83).

축문; 기망오쥬, 속스이능, 구아등어죄지쥬, 스가극승지력, 소제험으 니지위(액), 이획안정, 봉스오쥬, 희유슈운아기. 아문.

오 주께 빌며 바라나니, 바빠 네 능을 주어 우리 등을 죄 가운데 구하시고, 이기고 이길 힘을 주어 더하시고, 험하고 험한 위태로움을 살라버리고 덜으사, 썬 안정함을 얻어 오주를 받들어 섬기게 하쇼셔. 오직 내 빌를 드리워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아문.

120) 성신을 여기서는 '스비리도 산도'로 음역하여, 한문 음이 아닌 라틴어를 이렇게 알아들은 듯하다.  
121)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은 이 내용을 다 읽고 알아낸 후, 유사성직제도와 고해성사규칙을 만들었을 것이다.

(성경직해광의 제일권 상편 중 40).

<주일 성경직해 제 2권>, 원서야소회사 陽瑪諾 譯

三王來朝後 第二 主日 ; 경 성약한(요안) 제이편(Jn. 2, 1-11 ).

經; 維時於加納(아가나) 加理勒亞(가리리아)地 有婚宴耶穌聖母 與厥席야소偕宗徒併見請赴 - 야소應曰 女者 予與汝何與 - 且厥宗徒允信.

箴; 성경에 이르기를 천주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남자를 만드시니 이름은 아당이었다. 그리고 그의 늑골을 취하여 여자 액말을 만드시어, 서로 배필이 되게 하셨다.(聖經載 天主初創(창=創)天地萬物畢. 卽造一男人 名亞當(아당)及復投以熱寐(잠잘때) 取一肋骨 造成一女 名厄禡(에와) 男女既成命之相配).(12). 옛적에 홍수가 일어나던 때에, 천주께서 낙액에게 배를 만들어 피하라 하셨으므로 삼층의 배를 지었다. 제일 높은 층에는 낙액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다음 층에는 새들이, 아래층에는 뛰는 짐승들이 거하게 하시었다.(上古洪水將發 天主命諾厄造船避之 主유삼층 第一最高 乃낙액及其家人所居 次居飛鳥 又次居走獸).<sup>122)</sup>

당무지구; 위 전교자 - 전교하는 자를 위하미라.

축문; **턴쥬인성마리아, 육산지동정, 스인류영복지은석, 근괴이,스오디괴전달어이디전, 인피득오스 3명(지)원시, 이즈여수스괴리스두, 아등쥬, 호 |스비리도 산도, 내스 3내왕세세. 아문.** 천주야 성 마리아의 낳아 기르신 동정을 인하여, 인류를 긴 복의 은혜를 주심을 주신지라. 간절히 네게 비나니, 나로 하야곰 그 네 대전에 전달함을 알게 하시며, 저로 인하여 내 생명의 원시를(원시는 근원과 비로삼이라) 얻게 하소서. 네 아들 여수 괴리스두 아등쥬 스비리도 산도와 함께 하샤, 이에 생활하시고 이에 재제하심을 세세로 하시낫다. 아문.

<주일 성경직해 제3권>, 원서야소회사 陽瑪諾 譯.

封齋前第三主日 經; 성마두 제이십편(Mt. 20, 1- 16).

天國 (지성이공교회). 定每工一錢.(1).

모시는 아담원조로부터 노에 홍수때까지니(卯時者 자아당최초만민지조 지난액홍수야,193), 제1시라 대략 1056년이오(차제일시 약1056년), 그 시초는 **노의**로부터 **아바람**때까지니 이는 제 2시라 대략 920년이니(기초 자낙액지아과랑), 차2시 약922년, 依中曆爲夏王槐(회나무 괴)17년2丁丑, 오시정은 아바람으로부터 미스까지니 이는 제3시라 때략 425년이니 중국책력으로는 상왕 태무39년 임오이다.(午正 자아과랑지슬때 차제3시 약425년, 依中曆爲商王太戊39년壬午, 8/193.) 모세로부터 오주강생까지가 제4시로 약 1597년으로서 중국력 한애제 원수2년 경신 유초지모였다.(-의중력위漢哀帝元壽2년庚申 酉初至暮)<sup>123)</sup> (3).

당무지구; 견심선덕 - 어진덕에 마음을 좋게 하미라.

축문; 주께 바라나니 은혜로이 하여 네 백성의 기도함을 들으소서. 우리 등이 이미 죄로 인하여 고로움을 받은지라. 다행히 네 이름의 영화로움을 인하여 축연이 구원하샤 이즈 **여수**를 위하소서. **아멘.**

<주일 성경직해 제5권>

122) 성경직해에는 구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창세기의 내용중, 아담과 하와(亞當(아당)厄禡(액말), 노아의 주(諾厄造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성교요지 1장-2장 참조.

123) 정약중, 주교요지, 하편 3장에서, ‘한애제 원수 2년 동지후 4일’이라고 하였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서학 조에서, ‘한(漢) 나라 애제(哀帝) 원수(元壽) 2년이 경신 신라 시조 57년. 백제 시조 18년. 고구려 유리왕 19년’이라고 하며, 탕약망의 전정도상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주야소수난주일지경<sup>124</sup>); 오주야소 강생삼십년후 유정여덕아국 유화심중 행원최다 여차삼년 자지기소예정수난지기기지 여십이도동적일로살냉도 선고기기 후위지일 오이삼자심물애근 애금유망 망후삼일부활 이현이어가리룩아지야 도외유유 주우일모 특십일성도지피 즉기수난 지공여좌.

경; 성마두 제 26. 제 27편, 성마이곡 제 14, 제 15편, 성로가 제22, 제23편, 성약한 제18, 제 19편. 야소동궐문출 출 책다란(=키드론)계후 (책다란 소계본명 이성5리). 편현이어가리룩 아. 백탁라(제일종도). 명열색마예(갯세마니). 아각백기약한. 서만(백탁라종도별명).(7).

가상칠언 = 1. 야소왈 부 청관유피죄 피실부지소위(34). 2. 여확어여동여금일병향천당진 북. 3. 위모왈 여인피위이자 차위도왈 피위이모 4. 여천주 여천주 하사(버릴)거여. 5. 갈 - 한혈교류 심건이갈 청수운구. 6. 종. - 대발기칭명지덕 유운 성부명아강세성인 수고이속종 죄 7. 부여신부어이수. -대발기망천주성부지보 -주령필무 필무가탁우성부자지수야.(38).

대의론; 의8. 예수님의 수난을 설명하는 가운데 대의론, 기2-3에서, 아백이가 형의 질투로 살해되었듯이, 아바랑의 아들 의살격을 살해하여 제사를 바치려다 양을 잡아 제사를 바쳤듯이, 아파랑은 천주성부의 모습이며 의살격은 오주의 모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4에서는 10명의 형들로부터 질투로 팔려간 요셉을 오주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기2. 아백이

즉아당차자시야 개가인기형 질투제덕 휴(끝)지출유이살지 천주욕벌기악).<sup>125)</sup>  
即亞黨次子是也 蓋加因其兄 嫉妬第德 携 之出遊而殺之 天主欲罰其惡

<성경직해제 5 권>중(56).

<성경직해 주세침례 제9권>, 오주야소침례.

성모령보침례.<sup>126)</sup> - 천주는 만민의 共父로서 자비가 무한하시다(至慈無限). 원조 아담이 원죄를 지어 인류의 패배를 가져왔기 때문에(因世祖亞當敗壞人類), 구세주의 강생이 예비되었다.(豫定降世). 천신이 성모께 와서 ‘천주께서 강림하심’을 알려주었다.(天神降告聖母 諭天主降世). 그해는 경신년으로서(歲次庚申) 서한 애제 원수 2년이며 (西漢哀帝元壽二年), 지금의 승정 15년까지 (至今崇禎十五年), 1642년전이었다.(相去1642年).<sup>127)</sup>

經; 성로가 제1편(루가 1, 25- ). 이말에 몹시 놀랐으며(渠聞驚異), 이름을 야소(일훔은 예수)라 하여라(立名時稱之耶穌(야소역언 救世者)하였으며, 아각백(야스굽)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리라(永王雅各伯家(달미 雅各<sup>128)</sup> 皆古大聖)하였다.

箴; 聖 伯爾納(벌나도)曰, --성모님의 몸은 천주의 성전으로서 (聖母之軀 乃天主聖殿), 9달 동안 안거하셨다(安居九月).(6). 모든 동정 중의 동신이사(諸童身之童身者也 母也 師也)<sup>129)</sup>. 疑八; 或曰 천주께서 무시지시로부터(天主于無始之始/時?) 강생속죄할 분을 정하시었다면 (定降贖人), 그 많은 세월 속에 어느 때인가(何延年之多期)? 聖基所曰 1. 인류의

124) 조한진, <성경직해광익> 연구, 2011서강대, p. 24에서, 봉재후 제 6주일(성지주일) 내에 있는 성지침례지경과 (여수건립성체대례/예수성심침례성경) 오주야소수난주일지경을 참조하라.; 천진암자료집115, p.50, 88에서 (성경직해광익 제 7권 상편 목록), 성신강림후 제 2주일 다음에 <여수성심침례성경>이 나오면서, 그날에, ‘**니 아라스비어기의( Parasceve=안식일 준비일 즉 성 금요일) 죽임을**’ 이라고 나온다.

125) 성교요지 2장 참조.

126) 천진암성지 자료집 116권, 성경직해광익주세침례 제9권, p. 1- 正字체의 1800년대 중후반기로 추정된다.

127) 3권, 봉재전3주일에서도 다루었다. 1636년에 초판본이 나오고, 1642년에도 현 재판본이 나온 것 같다.

128) 야곱을 아각백에서 아각으로 약칭하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성교요지 제2장에서 (마태23,35에 나오는) 의인 아백이를 아백으로 약칭하는 것은 4자성구(사언 한시체)의 형식을 맞추기 위하여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129) 성교요지의 각주를 보는 듯하다.



조상이 지은 죄는 (천신에 비하여) 경미한 것이다(人祖之罪 微也).(13하). 2. 聖基所曰 천주께서 강생하시어 세상을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이다(天主降世贖世 善事也). 3. 처음에 세상을 조성하실 때 주님은 강생하지 않으시고(初造世時 主降不宣), 중간 시기로 변경하셨다(中時宣且便也 何也). 疑九; 或曰 天主降臨은 약1600여 년 전이다. 중국에 교가 들어오기는 근 50년 되어 너무 늦어 아쉬우니(但教入中 僅歷五十 惜乎其遲), 서사(=리치)가 온지 50년이 되었다(西士年來五旬). 又, 당나라시 경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曾不聞景教自唐), 중국에 들어온지 이미 천년이 되었으나(教已千載入中), 후에 점점 없어졌으니 슬프도다(後乃漸壓厭 惜哉).(14). 又, 이때에 다행히 천주교에 들어오니(今汝幸聞天主教), 너무 늦지 않게 따르며 감사할 일이다 (弗異其遲 受從而謝可也).(15상)

당무지구; 위성모회 -성모회를 위하미라.

축문; 텃주야 네 넷적의 텃신의 보호물 인하야 네 아들노 하여곰 동정 성마리아 텃중의 육신을 추이하게 하여 계신디라. 업디여 구하느니 우리로 하여곰 임의 그 텃주의 춤모친이 되물 밋게하여 계시니 그전달호물 힘입어 다하강이 그붓드리 도으시물 엇게하시디네아들여수 우리등 주 그리스도를 위하야 하쇼셔. 아멘.130)

야소성탄철례, 천명지경(성 약한 제 1 편, Jn. 1, 1-14).

궐시물이봉(=Verbum, Logos, 말씀)<sup>131</sup>(22).

立耶穌聖名瞻禮(34).

經; 성 路加 제 2편 (Lc. 2, 16-21/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음).

嬰孩受割 - 受割者 古時天主所立之禮也. 천주조물지후 2777년, 강생전 1923년 夏나라 제 11왕 不降 56년 丙辰. 당시에 대성인 亞巴郎이 있었다. 選之爲祖로 삼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男人들은 모두 할손례(皆行割損之禮)를 하게 하였는데, 그 의미는 첫째 원죄를 씻기 위함(以洗原罪)이요, 또하나는 표식을 남기기 위함(以爲記號)였는데, 오주 강생하실 때에도 斯 그 예식은 상존(禮尙存)하였고, 지금은 성수를 받는 예식으로 대신 한 것(代以領聖水之禮)이다. 男嬰生後제8일에 예식을 행하고 이름을 지었다(行茲禮 且取名).(34).

箴; 嬰孩受割 -혹의왈 수할지례 의이세원죄. 1. 국민비지오주생자지오 시지여등 不行割禮. 2.-본국인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本國人悉行割禮). 3. 육인명지기 유구지실 이비환 4.할을 받는 것은 천주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예식이다(厥時受割 天主初立美禮也). 할은 내외의 악정을 극복하는 것으로 고교의 할례이다(割克內外惡情. 是也 古教割禮)<sup>132</sup>.(35).

<주일 성경직해 제13권>

성경직해 13권, 성사덕망수선치명자침례의 성경, 마태오 23, 25의 설명에서; 아당원조의 차자 아백이는 선하였고, 그의 형은 악하여 형의 질투로 선한 동생을 살해하였다. 고교의 사교인 잡가(자카리아를 2자로 줄임)를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亞伯爾亞黨元祖次子也 彼善兄惡 兄 妬其善而殺之. 잡가고교사교성인, p. 35).<sup>133</sup>)

130) 아직도 여수라 하지만 ‘그리스도와 아멘’의 표기로 보아, 이 한글본은 1800년대 중후반의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131) 뵤아로 신부의 고신성경에서도 물이봉(Verbum)이라 하였고, 1853대표본 성경에서는 ‘도’로 표현했다.

132) 이렇게 할손지례를 언급함과 동시에, 잠에서는 할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 문헌에서 할손과 할례라는 신조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 문화권에서 이 용어들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용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할례의 용어는 만물시원에서도 계속된다.(소순태 교수의 견해 참조).

133) 성교요지 제 2 장 참조. -잡가로 줄이듯 아백으로 줄였다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요약정리>. 성경직해 잡사지목록에는 천주, 천주삼위일체, 천주성부로부터 사후, 심판, 천당, 지옥까지 145개 항목의 천주교 용어가 정리되어 있다. 교회 안팎에서 천주를 두사라 부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성호전집 제 55권, 천주실의발에서도 ‘於是天主大發慈悲。親來救世’라 하였다. (그러나 ‘耶穌?者西國救世之稱也’라 하여, 야소를 초두가 있는 耶穌를 썼는데, 번역원에서도 잘 못 하여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완여뢰(복음서)**를 기록한 성사를 하나는 若翰(요안) 성인이요, 하나는 瑪竇(마두) 성인이요, 하나는 路嘉(루사) 성인이요, 하나는 瑪爾譚(말구) 성인으로 4사위라고 한다.(7) 삼왕래조후 제3주일을 보면, [성경직해]에는 구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창세기의 내용중, 아담과 하와(亞當(아당)厄襪(액말), 노아의 주(諾厄造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성교요지 1장-2장 참조). 입야소성명침례에서, **할손지례**를 언급함과 동시에, 잠에서는 **할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 문헌에서 **할손과 할례**라는 신조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 문화권에서 이 용어들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용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할례**의 용어는 만물시원에서도 계속된다.

### 3-5. 艾儒略, [四字經文].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 艾儒略)<sup>134)</sup> 신부는 [四字經文]<sup>135)</sup>에서, <성교요지>와 <천주공경가>와 같은 4언절구의 형식으로, 성경과 교리를 요약하여 노래하듯 읊고 있다. 특히 한문본 <성교요지>를 풀어 놓은 듯하다. 6일 창조 이야기와 아당과 액말(p. 5)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성사 Sacramenta로 영세, 견진, 성체, 통해, 종부, 품급, 혼배 등,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의 대부분이 정리되어 있다. 35쪽의 적은 분량으로 전체가 다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자.

<천지가 있기 전에 먼저 천주께서 계셨도다(未有天地 先有天主).<sup>136)</sup> 육일동안 창조하셨으니 (六日迺(=乃)備(p.2), 첫날에 높은 하늘을 만드시어 무수한 천신들을 만드시고, 혼돈의 세상에 경도와 위도를 그으시고, 네 개의 큰 구덩이를 만드시니, 1은 영원한 고통(지옥)의 장소요, 2는 연옥이요, 3은 영해들이 가는 곳이요, 4는 영부(고성소)이로다(第一日生絕頂高天 無數天神 混沌水地 地經地緯 俱九萬里 地之中心 有四大穴 一曰永苦 二曰煉獄 三曰孩所 四曰永薄). **엿셋날**에는 수백가지 짐승들을 내어 살게 하시면서 땅을 꾸민 연후에 사람의 조상을 만드셨도다 (第六日生 百獸已備 然後將土 化成人祖)(4). 남자의 이름은 아당이고 여자의 이름은 액말로서, 부부의 인연으로 우리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도다(男名亞當 女名厄襪 配爲夫婦 生我人類). **이렛날** 침례날에 이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며 (七日瞻禮 謝恩伊始), 천신의 무리가 오만하게 반항하여 그별로 영옥에 갇혔으나 (天神之屬 內有傲抗 罰魔永獄), 주님께 원망하고 우리 원조를 해치려 유혹하였고 (怨主害人 故誘我祖), 거역하고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나고 (逆命犯罪 逐出地堂), 죽음이 오고 원죄를 지어 자손들에게 미쳤도다 (是以有死 因有原罪 延及子孫)(5).(창조후) 2,245년에 많은 이가 악으로 주님의 의노를 불렀으니 (二千二百 四十五載(2,245) 人多作惡 犯主義怒), 주께서 명하시어 **낙액에게 일독**을 지으라 하시니 (主命諾厄 預製一櫃), 상하삼층에 처와 삼자부와 모든 종자들을 들이

134) 중각기인십편 하권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죽어 葬福州十字山에 묻혔다고 하였다.

135) 표지에 +四字經文 II/ Catechinum per phrasy 4 N/ Litterarum a pater Aleni/ n.3263이 적혀 있다. 시작에 天理止一 /天主聖教/ 四字經文/ 楚卽欽一堂重梓.라 하였고, (2245재, 개천이후 2,450여년, 1550)이라고 속에(7,8,9쪽) 적혀있다. 성교요지 작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36) 성교요지 제1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未生民來 前有上帝’가 이를 본 뜬 것으로 보인다.

시고(上下三層 置爾及妻 三子三婦 并諸物種), 홍수로써 사람들을 진멸하시고자 (洒發洪水 殄滅人物), 사십일 후에 강우로 벌을 내리신 후(四十日後 降罰已畢), **낙역 부자들이** 육지로 돌아오니 (諾厄父子 復居陸地), 장자는 생이요 차자는 강이요 세째는 **아블덕이라** (長子名生 次子名岡(7), 其第三子 名雅佛德).

天主憫世 第二位者 名曰**費畧(Filius)** 因聖神能(9), 奇功變化 降孕聖母 當漢哀帝 元壽二季 歲次庚申<sup>137)</sup> 耶穌生時(Lc.2) 重星交光 天神環衛 如同白晝 空中秦樂 讚頌慶賀 守夜牧童 聖誕八日 行古**割禮(禮)**,<sup>138)</sup> 三王來朝 異星顯示 直至其處(11)<sup>139)</sup>神國法度 授此**斯玻**(140) 併授**鐸德** 皆行教事 代天主位(20). 定有七規 **格辣孟多**<sup>141)</sup> 일왈領洗 이왈堅振 삼왈聖體 사왈通解 오왈終傳 육왈品級 칠왈婚配 經言禮節 **彌撒**儀旨 與領聖水 洗罪入教(21). 克七罪宗 守十誠命 生爲聖人 死同天神<sup>142)</sup> 萬世常生(34), 生是惡人 死墮타地獄 讀了天學 明了經旨 得大根本 斯眞學問 一非不問 萬德全渾 人勉之哉 人勉之哉<sup>143)</sup> 四字經文 終(35).

<요약정리>.성교요지 제1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未生民來 前有上帝’는 사자경문의 ‘미유천지 선유천주’를 본 뜬 것으로 보인다. 6일창조(六日造(=乃備)(p.2)와 화성인조(化成人祖)(4)는 성교요지 1장의 설명과 같다. 할례를 할체로 잘 못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성교요지 10장에서는 **할육**이라 하였고, 주에서는 **육할례**라 하였다. [성경직해] 야소성명침례에서도 할례라 하여 할례가 천주교의 고유 용어임이 확인되었다. ‘三王來朝 異星顯示’는 성교요지 5장의 ‘동계우사 군광성광야’를 연상케 한다. 성경직해에서 교황, 살책이, 탁덕을 사자경문에서는 ‘立教化皇 命比斯玻 授爾鐸德 數萬風波 救我靈魂 永保眞福(32)’이라 하면서 성교요지 30장에서 한서(추위와 더위)를 불문하고 오직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사(전도지교사)들을 지칭하는 듯하다. 4자 운을 맞추기 위하여 **살격랄맹다**를 줄쳐서 살자를 생략 ‘격랄맹다’ 하였듯이, 성교요지 2장의 **구천아백**은, 천주강생인의 상권 6의 **아백**이와 바세역본의 **아백**이를 운을 맞추기 위해 **아백**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십계명을 준수하면, “살아서는 성인이요 죽어서는 천신이라(生爲聖人 死同天神)”를 [천주공경가]에서는, 그 반대로 ‘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고 하였다.

3-6. **애유략艾儒略 찬, 천주강생인의, 1640<sup>144)</sup> 양마낙(E.J. Dias) 준.**

천주강생인의 상권, 제일장 천주무시 초제천지인물.(1).

천주를 **진주**와 **대주**, **조물주**, **상주**라 표현하고 있다. 성교요지 제 2장의 ‘거칠중 팔’과 관련하여, 옛 성인 낙역(노아) 때에 천주의 명으로 큰 배를 지었고, 40주야의 홍수 시에 낙역의 가족 8인이 그 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서 **아백**이(Abel)와 **액낙**(노아)<sup>145)</sup>등을

137) 성경직해와 주교요지에도 똑같이 경신년이라고 기록되었다.  
138) 할례를 할체로 잘 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성교요지 10장에서는 **할육**이라 하였고, 주에서는 **육할례**라 함.  
139) 성교요지 5장 -‘동계우사 군광성광야’를 참조하라.  
140) 할례를 할체라고 하듯이, 잘못하여 차사과라고 하였으나, 아래에 다시 나오듯이 비사과의 오기이다. 비사과는 Bispo 주교를 의미하는 가차문자이다.  
141) 4자 운을 맞추기 위하여 **살격랄맹다**를 줄쳐서 살자를 생략하였다. 성교요지 2장의 **구천아백**은, 천주강생인의 상권 6의 **아백**이와 바세역본의 **아백**이를 이같이 운을 맞추기 위해 **아백**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4자문경 25에서는 노아를 **낙역**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액낙**격이라 하며 운을 맞추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다.  
142) 십계명을 준수하면, “살아서는 성인이요 죽어서는 천신이라(生爲聖人 死同天神)”를 <천주공경가>에서는, 그 반대로 ‘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한다.  
143) <천주공경가>의 말미에 나오는, ‘영원무궁 영광일세, 영원무궁 영광일세.’를 연상케 한다.  
144) 극서야소회사 애유략艾儒略 사급씨 찬으로, 강생인의 하권 p. 15에서 1640년 전이라고 한다.  
145) 낙역을 액낙으로 바꾸었고, 앞의 <사자경문>에서는 ‘일액낙격’으로 4자 운을 맞추었다.

기록하면서, **낙액**을 **액낙**으로 바꾸기도 한다.

제3장 여덟아국 항존**천학**진전(5).

제4장 천주예시강생 이고성극망기구세.(6).

본국**백능**(베들렘)지군 출어달미성왕지에 이**동녀**위모, 이성현견원방**현왕**래조, **부활**급지승**천**.

제6장 천주성삼 강생계 제2위 **비약**.

천지진주 유위지일무이 연대주일체지중, -이서음칭지 일왈 **파덕**특(Pater) 일왈**비약**  
(Filius) 일왈 **사피리다살다**(Spiritus Sanctus).(8). **천주삼위** 기총일체일주(9).

제7장 강생사적 진부고경예언(10).

**마두성사** 취이명징 **오주야소** 즉 고경소허강생구세지주, 내인고경22단, 위**달미**성왕  
지예. 1. 생어**동신**지모. 2. 성견원왕래조. 3. 위**납잡**특(나자렛)군인. 4. 대성 **약한**위지전구.  
5. 천신가호. 6. 거 **가례**특아(갈릴레아). 칭위**마노액**이(Immanuel, 역언 천주여아배해야 즉  
야소별호). -오주강세 강세지지 명지**백능**지군 고성**미격**아(미케아, 746년) 체오편내(미카서  
5,1=Mt.2,6), 삼왕래조, 명지**납잡**특(나자렛)지읍, 즉성모고거 천신래보지지 이**중액**일다(에집  
트)회시 상주지야(견 (천주강생언행)기략1권12, 우2권4). 우성 **의살**의아(이사이아) 제40편  
운.(12). **가리**특아(갈릴레아)지지 이오주현성적, 고성 **엽**특미아(예레미아, 628년)(13). 고성  
**액**죽기**액**(에체키엘, 601년), 고경예운 진**게리**사독.(14). 야소견**발리**새아(바리사이)배(견기략  
2,19/Mt.15,8/입술로만 공경). 우선지성인 **미**격아(미케아, 746년), 종**백**능지지(15). 고성 **잡**  
**가리**아(자카리아, 521년), 오자**서완**(시온?, 여덟아경도내산명 내이차칭도성운 자자 애지의  
야), 오자 **협**로**살**능(예루살렘, 도성본명), 내지 **발리**새아학사 여당시**사교**배(16). 고성 **매**슬  
(모세, 1599년), **묵**기**슬**득(멜키세덱)지품급야, **잡**가리아(자카리아, 521년).(17). **아**슬아(요시  
아?, 808년), 아신흔어 **영**박(고성잠후지소), 오주야소 사후삼일**부**활야(견기략8권), **마**랄기(말  
라키).(18).

제8장 강생독효(19).

용**홍**수**열**화(상고 **성**낙**덕**(룻)시 유 **쇄**탁마(소돔)등 오성, 이**상**주**의**노).(21). 성 **약**망  
운, 야소게리사독야. 천주강생인의 상권 중. (22).

천주강생인의 하권(답 제외문).

제5장 강생일사 어**천**주**극**상**선**이**비**설.(4). -**다**마**사**(토마스) 성인.

제8장 천주강세 **미**상이**천**(7). **성**오**사**정 논**천**주**무**부**재**야 **왈** 천주지체 처처 위중 무처위변.

제10장 야소영혼 **비**천주본체 **이**유**삼**체**일**위지묘.(8). .(10).

제13장 강세불필중방(10). -하불강아중토 문명지역, -구만리지로의 **왈** **삼**산**론**학중, -즉선사



공씨 하불생어중주 령사방래학자.(11). 구라과제국, -합자여덕아국상전득지 령상국소전경교.  
孔氏 哈不升也中州 令四方來學者 威自 國相傳得之 令上國所傳景教.  
유행지금.(12).

제14장 중방기조문 강생지지.(12). 천주기강생1600여년 우기강탄지지 원여중국동일대주, -  
中邦己亥開 降生之旨 降誕之地 原於中國 동일대주, -  
정관9년, 유대덕아라본 전교동래 태종12년7월, 금고경교비서, 차중도다목 부교어인도지방시  
阿羅本 且宗徒多厥 敷教於印度 地方시  
거천주강생 미60년 전파기광 한명제귀사서행, 행지천축 불능복서, 거이42장 동입중국,  
漢明帝 行至天竺 佛能복서, 거이42장 동입중국,

제17장 강생지공 실족구만세.(14). 왕 오주강생 1640년지전 연당원조 획죄지시, 고자아당  
亞黨  
액왜이하 대전오주강속지의(상견 상권 제8장지5죽).(15).  
厄隸 代傳吾主 降贖之意

제18장 강생지은 시어만방 대어화성천지.(15). 필유 신망에 삼덕, 오주강생지전 고레범해동  
초생8일 필봉헌천주행례 이제기원죄, 약강생후정위 영세지례 세척원죄.(15).  
稱洗 洗滌 原罪

제21장 야소 비제성인가의(17). 야소는 천지의 대주로서 일대 성인에 불과한 분이 아니요,  
非 諸聖 人 可 擬  
공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야소 위천지대주 상불과일대성인 여폐방지공맹자이).146)  
孔孟  
(17).석성약망기상록야소행적. 야소 실위천주자 강생구세자야, <천주강생인의> 하권 중.  
昔聖 若鑑 既詳錄 實爲 天主 子

<소결론>. 천주를 진주와 대주, 조물주, 상주라 표현하고 있다. 성교요지 제 2장의  
‘거칠종팔’과 관련하여, 옛 성인 낙액(노아) 때에 천주의 명으로 큰 배를 지었고, 40주야의  
홍수 시에 낙액의 가족 8인이 그 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서 아백이(Abel)와 액낙(노아)  
亞伯爾 厄諾  
등을 기록하면서, 낙액을 액낙으로 바꾸기도 한다. 예수회의 전통에 따라, 진계리사독.(14).  
眞奧利斯督  
야소견 발리새아(바리사이, 발리새아학사 여당시사교배), 칭위 마노액이(Immanuel), 가리름아  
耶穌 發利塞亞 發利塞俄學士 司教 號 稱謂 瑪拿厄爾 加里肋亞  
(갈릴레아), 고성 엽룩미아(예레미아), 액즉기액(에제키엘, 601년), 미격아(미게아, 746년),  
葉肋彌亞 厄則基厄 彌格亞  
잡가리아(자카리아, 521년), 오자서완(시온?), 험로살능(예루살렘, 도성본명), 매슬(모세,  
匝加利亞 吾子 西完 協露撒辣 道성本名 梅瑟  
1599년), 목기슬득(벨키세텍), 마랄기(말라키) 등의 성경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권에서, 정관 9년에 경교비문이 세워졌다는 사실과 함께 도마 종도가 인도에 와  
서 전교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고, 공자를 공씨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러나 야소는 천지의 대주로서 일대 성인에 불과한 분이 아니요, 공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사라고 하였다.

알레니(Giulio Aleni, 1852-1649, 艾儒略) 신부의 <萬物眞原>과 <三山論學>도 천  
지창조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나, <만물진원>은 大主造成天地萬物也 四件其一造成天堂之天,  
其二造成大地之體形圓, 其三從地而至天堂之天, 其四化生九品天神(p. 20) 등으로 형이상학적  
인 설명을 하고 있다. <三山論學>은 기인십편과 천주강생인의 하권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乃是意大利傳教士艾儒略與葉香高兩天的談話記錄한 것으로서, 第一部分論述天主唯一(1-7  
절)이며, 第二部分是對世間善惡禍福問題的解答(8-12절)이고, 第三部分是對靈魂不滅 死後  
審判的論述(13-16절)이며, 第四部分是對天主降生的考言正和釋疑(17-20절)이라고 하였

146) 성교요지 1장의, ‘유일진신 무성능비’를 연상케 한다.

다.(cf. 중각<기인십편>하). Martino Martini 신부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출판한 <中國新地圖帖, Novus Atlas Sinensis 1655>에서 중국의 각성의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선교사들의 교목류에 대한 연구에서, 油橄欖도 언급되고 있다.<sup>147)</sup>

3-7. <萬物始元 만물시원>.<sup>148)</sup>

불리오 신부(Ludovico Buglio 1608-1682, 利 類思)의 <萬物始元>,

제 1장에서; 천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는데, 6일동안 나누어서 만드셨으며(天主肇成天地-作之乃分工於六日),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만드시어 남자의 반려자로 삼으시니, 여자는 남자의 갈비로 만드셨다.(-主先作男後作女爲男之伴矣 且作女以男之一肋). 남자의 이름은 아당이고 여자의 이름은 액말로서 이들을 미수지원에 살게 하셨는데, 4개의 강이 자리한 윤택한 곳으로 지당 즉 낙역이다.(-男名亞當女名厄娃 主置之於名種美樹之園 四河所潤者即地堂即樂域也).

3장 人類壞敗(p. 12-17)에서도; 亞當과 厄娃가 所謂 原罪를 지어, 이 원죄는 자손에게 전하여 지는 것이다. (是夫原罪延傳諸子孫).(12).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假因이고 둘째는 雅白이요, 셋째는 瑟德인데(p. 13), 가인이 嫉妬하여 殺胞弟雅白하는 大罪를 지었다고 한다.<sup>149)</sup> 이후 諾厄의 홍수 시대에, 낙액은 上주의 총애를 받아 주님의 예시로 홍수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일독 즉 대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고 (諾厄氏饗?寵於上主 主預示之以將發洪水浮天下之意命造一櫃即大方舟<sup>150)</sup>), 덮개로 덮은 배 안에는 금수의 모든 종류들을 싣게 하셨으며 (上蓋內足容禽獸每種一偶載)(p. 13), 주님께서는 낙액의 부인과 3자3부인 합하여 8인이 입독 (主命諾厄夫妻三子三婦 共八人入櫃)하도록 하였고, 40주야를 그치지 않은 비(四十晝夜雨不絕)로 사람과 금수는 모두 진몰하고 배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존(人禽獸盡殞(尺)沒惟有櫃內者得生)하였으니, 이 배는 천주교의 상징이다(矣夫櫃乃天主教之像也)(p. 14)라고 하였다. 천주의 계명을 준수하는 諾厄家八口男女, 즉 諾厄夫婦와 3아들(生, 岡, 雅弗)과 三個媳婦가 大櫃(天主聖教會를 表한다)에 들어가 (일년동안 머물며-p. 20) 各種禽獸와 함께 洪水를 면하였다고(p.16-17) 한다.<sup>151)</sup> 아과랑亞巴郎은 주의 명으로 할손례를 결맹의 표시로 행(主命之割損禮 爲互結盟之號)(24)하였고, 일백세에 그의 처 살납撒拉이 의살격衣撒格을 낳아, 아들을 죽여 제사(殺子齊)하려 하였다.(28) 액일다厄日多(에집트)로 내려간 아각雅閣의 12 아들들은 여분呂奔, 서묵웅西默雄, 혁미勒微, 여달如達, 의살가依撒假, 살복도撒卜陶, 단單, 익달리撥達里, 아득迭得, 아색이雅色爾, 약슬若瑟, 분아명奔亞明 등이다.

제 10장 천주십계에서; 의납이인依臘爾人(이스라엘)이 액일다厄日多에서 나온후 제

147)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선교사들, p. 124-127.

148) Bibliotheque Royale이란 소인이 찍혀있고, 'Attribue' au P. Buglio로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필사본(인쇄가 아닌)으로 보인다. (소순태 교수가 입수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書誌사항을 보면; Titre: 萬物始元 Wan Wu Shi Yuan. Description: Du principe des 'etres Attribue' au P. Buglio. 52 sections(128 feuillets). Source: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Departement des manuscrits, Chinois 6927. Date de mise en ligne: 23/01/2012.);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선교사들 p. 221에 나오는 '관토히 신부의 <人類元始論>은 창세기에 대해 소개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방자유전>4권의 諸人類元始가 아닌가 한다.

149) 성교요지 제 2장의 구전아백-적살금금 참조; 성경직해 13권 성사덕망수선치명자침례의 성경, 마태오 23, 35의 설명에서, 亞伯爾亞黨元祖次子也 彼善兄惡 兄妬其善而殺之.하였다.

150) 낙액造一櫃即大方舟에 대하여, 성교요지 제2장을 참고.

151) 소순태 교수의 (발견문헌, N. 3352) 견해로서, '方舟의 용어를 중국의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썼다는 주장은 이로써 오류'임이 드러났다.

삼일에 서내산西迺(=乃와 同字)山<sup>152</sup>)에 이르러 매슬每瑟에게 파사괘 후 50일에 발현(巴斯卦後第五十日忽見)하여 천주십계를 두 석판에 새겨(刻于二石碑上)주셨다.

제 26장 구주성탄救主聖誕(124)에서; 당시 여달왕은 흑락특(當黑落忒如達王)이었고, 라마의 천자 오사득이었을 때(奧斯得羅瑪天子之時)에 성녀마리아 동신(聖女瑪利亞童身)을 주님께서 간선하시어 기사독의 어머니가 되게 (主選之爲基(利)斯督之母)<sup>153</sup> 하셨다.

제 28장 약한의 세례(若翰付洗)에서, 약한은 세자라 칭하는(若翰稱洗者)이요 선구先驅자로서, 약한이 약당하에서 척세(若翰滌洗之于若當河)<sup>154</sup>할 때 야소도 약한의 세를 받았다(耶穌肯受若翰之洗) 하였다.

제 29장 야소께서 제자를 부르심耶穌召徒(p.140)에서, 백다라로 이름하는 서만과 그의 형 안덕록(西滿名伯多羅厥兄安德肋), 색백두의 두 아들 아백과 약망 4인을 (與色白寶二子雅伯及若望四人) 부르셨고, 세리 마두(稅吏瑪竇)와 비리백斐理白, 발다무拔多茂, 다목多默, 아부의 아들 아가백(雅苛伯係亞阜之子), 대두라 하는 여달(如達大陡曰), 서만 가남발(西滿加納勃), 여달 의가량(茹槎依假涼)이다. 제42장 聖神降臨(p. 201)에서 瑪弟亞를 뽑았다.

제30장 야소신적耶穌神跡에서는 잘못하여 5병2어를 二餅五魚胞(146)라고 하였으나 (149)問答에서 五餅二魚胞로 바로 잡았다.

46장 敎會定序에서(223), 야소의 바른 가르침을 사도들이 협심하여 신장을 (耶穌正道故使徒協心定信章=사도신경) 만들었는데; [我信于天主父全能肇成天地 且于其獨子耶穌基利斯督我等主 其因聖神降孕生于童身瑪利亞 在般雀比辣多之下受苦被釘十字架死 而乃廢(페?)降地獄(고성소)第三日 自死者中復活<sup>155</sup>) 我信升天坐于存能父之右 日後從被而來審判生死者 我信于聖神 聖而公敎會 諸聖相通 罪之赦 肉身之復活常生. 亞孟.]

47장 경전회의(공의회)에서 受割禮(219, 233)<sup>156</sup>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49장 使徒行實에서, 敎會를 세우고 主教와 鐸德과 副祭(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官敎會之財産-207, 239,242)를 정하였으나, 라마황제羅馬皇帝가 성교회의 전과를 금지(禁捕聖敎會)하였고, 성백다라는 십자가에 못박히고 성보록은 참수(聖伯多羅被釘十字架 聖葆球被斬).(241, 244).

제52장 교회가 평화를 얻음(敎會得平)에서, 교회가 전과된지 삼백년 후에 라마황제 공양정몽羅馬皇帝公養丁蒙(콘스탄틴)이 天主恩入敎하여 天主堂을 세우고 그들은 허다한 대수도원에서 집회를 여는 태평(太平他們集會許多大院)시기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요약정리> [성교요지]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 1장에서; 천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는데, 6일동안 나누어서 만드셨다(天主肇成天地-作之乃分工於六日/성교요지1장 육일역작).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假因이고 둘째는 雅白이요, 셋째는 瑟德인데(p. 13), 가

152) 성교요지 제 3장의 ‘서내산호’를 참고하라.

153) ‘主選之爲基(利)斯督之母’에서, (利)를 p.128에서 사용하며, 이후 ‘基斯督’으로 표편하고 있다. 이는 장바세 신부가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基督’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4) 성교요지 7장의 주에서, ‘야소수세지사 -약단하’로 가차음의 글자만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이는 성교요지 필사시에 중국성경 1852년대표본을 보고 글자를 바꾼 듯하다).

155) [방자유전] 2권 p. 29에서 지옥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방자유전>에서는 부활대신 부생이라고 하였다.

156) p. 219(45장 교화이민)에서도 ‘백다라 입미 할인 지옥 동음식, 할례 무익’이라 하였다.; 성경직해 9권, 立耶穌聖名瞻禮(p. 34-36)에서도 亞巴郎이 行割損之禮하였는데, 男嬰生後第八日行茲禮인 割禮를 논하고 있다.; 사자경문에서는 할례(례)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연구] 257에서는, 성교요지 10장에 대하여 논하면서 ‘할례’라는 단어는 천주교에 대해 거의 모르는 18세기 조선 사람들에게 너무도 생경한 말이다. 그것은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인이嫉妬하여 殺胞弟雅白하는 大罪를 지었다고 한다. 이는 **성교요지 제 2장의 ‘구전아백-적살금금’**이 잘못된 표현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성경직해 13권 성사덕망수선치명자침례의 성경, 마태오 23, 35의 설명에서는, ‘亞伯爾亞黨元祖次子也 彼善兄惡 兄妬其善而殺之’.하였다고 하였다. 諾厄의 홍수 시대에, 낙액은 **상주**의 충애를 받아 주님의 예시로 홍수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일독 즉 대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다 (諾厄氏饗?寵於上主 主預示之以將發洪水浮天下之意命造一櫃卽大方舟)는 **내용으로, 성교요지 제2장의 방주**가 천주교에서 생겨난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천주의 계명을 준수하는 **諾厄家八口男女**, 즉 諾厄夫婦와 3아들(生, 岡, 雅弗)과 三個媳婦가 **大櫃(天主聖敎會를 表한다)**에 들어가 (일년동안 머물며-p. 20) 各種禽獸와 함께 洪水를 면하였다고(p.16-17) 한다. 제 10장 천주십계에서, 의납이인依臘爾人(이스라엘)이 액일다厄日多에서 나온후 제삼일에 서내산**西迺(=乃와 同字)山**에 이르러 매슬每瑟에게 파사괘 후 50일에 발현(巴斯卦後第五十日忽見)하여 천주십계를 두 석판에 새겨(刻于二石碑上)주셨다고 하여, 성교요지 제 3장의 **‘서내산호’도** 천주교에서 시작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성교요지 7장의 ‘약단하’도 글자만 좀 다를 뿐 천주교에서 시작된 용어이며, 야소 기리사독, 할례 등의 용어도 천주교에서 시작된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9장의 야소게서 제자를 부르심**耶穌召徒**(p.140)에서, 12사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西滿名伯多羅, 厥兄安德肋, 雅伯, 及若望, 稅吏瑪竇, 斐理白, 拔多茂, 多默, 雅苛伯係亞阜之子, 如達大陡曰, 西滿加納勃, 茹樺依假涼(대신하여 瑪弟亞를 뽑았다).

### III. <우리 문자화>된 중국어식 표현 방법의 수정과 변화 가능성.157)

1. 리치 신부는 여러 번에 걸쳐 <우리 문자로 / in nostra lettera> 중국인들을 위하여 글을 썼다고 말한다. 이는 분명 중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포르투갈어(스페인과 함께 선교보호권을 지닌)나 이탈리아나 라틴어 문자로 썼다는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독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로마 알파벳 문자로 썼다는 말도 아니다.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을 때에, 중국문자화 된 **산스크리트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산스크리트어의 **중국식 발음**이었고, 그 문자는 한자였다. 眞言을 tantra라고 썼고, 神呪신시를 mantra라고 써서,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즐겨 사용하였다. 리치는 의심 없이 이러한 사례에 영향을 받아, <우리 문자로> 글을 쓰게 되었고 말한다. 그래서 리치는 7성사에 관한 책 [天主教要](ff. 12a - 14a)에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리치는 1605. 5. 9.자 편지에서, ‘마침내 <우리문자로> 7성사의 이름을 내놓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칠성사에 대한 가차假借문자(traslitterazione)를 보면, 액격록서아 살격랄맹다 厄格勒西亞 撒格辣孟多 (Uocolesiia sacolamomtuo)라고 포르투갈어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세례는 拔弟斯摩 (Patisemo)로, 견진은 共斐兒瑪藏 (comfeiolmazam)으로, 영성체는 共蒙仰 (commomniam)으로, 고해는 白尼登濟亞 (penitemziia)로, 병자성사는 厄斯得肋麻 翁藏 (uosetelemo uomzam)으로, 성품성사는 阿兒等 (oolltem)으로, 혼인성사는 瑪地利摩紐 (matilimonieu)로 표기하였다. [벽위편]에 나오는 신돈와의 직방외기 비관글에서도, 서구어를 가차하여 拔地斯摩之禮(Baptisma)세례<sup>158)</sup>와 恭斐桑之禮(Confessio)고해<sup>159)</sup> 불교의 참회(懺悔)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sup>160)</sup>

157) FR N. 482 - p. 369 각주 1 참조.

158) 천기철 옮김, 직방외기, 2005 일조각, p. 112; 리치 신부의 [천주교요]에서는 세례를 拔弟斯摩 Patisemo로.

159) 리치 신부는 FR N. 482-각주1(p.369)에서 고해를 白尼登濟亞 penitemziia로 표기하였었다.



2. 아주 특이한 형태로, **세례 형식(forma)**을 한자로 가차한 라틴어 경문으로 나타난 사례를, 리치의 [天主教要](f. 14a-b)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로마의 포교성서 고문서고에 있다. 이 문서는 리치가 포르투갈 출신의 보좌신부였던 Giovanni Alvarez 신부에게, 아마도 1605년에, 직접 손으로 써서 준 것이라고 하였다.

< 세례성사의 형식 > 拈弟斯摩반제사마( = batesimo) 經言 :  
某 阨峩 德 拔弟作 引 諾米擲 罷德利斯 厄德 費離意 厄德 斯彼利都斯 三隔弟 亞孟.  
N. Ego te baptizo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Meu, Uongo te patizo in nomino Patelise uote Feilii uote Sepeilituse Sancoti. Iamom.

70여 년 후에 남회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신부는 [教要序論]에서, 2가지 양식으로 된 한문세례형식을 표현하고 있다.<sup>161)</sup>

伯多祿 我洗爾因父 及子 及聖神之名者 亞孟.  
或云伯多祿 我洗爾因罷德肋 及費畧 及斯彼利多三多名者 亞孟.

70 여년 사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호칭이 모두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罷德利斯에서 罷德肋으로, 厄德(et)은 한자 及 으로, 費離意에서 費畧로, 斯彼利都斯 三隔弟에서 斯彼利多三多로 바뀌었고, 亞孟만 그대로 남아있다. 아예 父, 子, 聖神으로 중국인들이 알아들을 호칭을 이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수회의 이러한 전통은 1689년에 상해에서 간행된 [救世主預像全圖], 主教 亞弟盎<Etienne, 스테파노?>郎准, 金陵天主堂藏板, 要理六端에서도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 외방 전교회의 바제 신부는 1704. 3. 4.에, Charles Maigrot (1652-1730, mep+)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因父 及子 及聖風之名, 我洗爾. 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유효한지를 묻고 있다.<sup>162)</sup> 성신이 성풍으로 바뀌고 있고, 之名者를 之名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다음번에, Basilio Brollo와의 논의 중에서는, ‘我因獨一之父之子之聖神之名洗爾’로 제안하였다.<sup>163)</sup> 바제 신부의 협력자 Johan Xu(徐若翰)이 쓴 마태오 복음 사본(로마본)에도 ‘訓萬民洗之 以父之子之聖風之名’(마태오 28, 19) 이라고 하였다.<sup>164)</sup>

경세금서편람, 1640년 양마냑 술, 1848 여 약한 주, 주교 열라니모(에로니모) 공준의 글에서, 성삼에 대한 주해에서 여약한은 성부,성자,성신을 오늘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성자야소는 만물을 겸하여 조성하시고 구속하신 공이 있다고 하였다.(1권 P.4, 14, 15.)

3. 마지막 기도문 아멘(성경직해광익 한글필사본에서 **아문과 아멘**)을 중국어로 표기함에 있어, 처음 라명건 역본에서는 亞明이라 하였고, 이마두 역본부터 알레니의 [미살제의] 등에서는 亞孟이라 하였다. 1700년대에 이르러 영국 Cambridge 대학에 있는 Jean

160) 줄리오 알레니, 천기철 옮김, 직방외기, 2005 일조각, p.112; 김시준역, 벽위편, p. 80.  
161) 김건순은 1801년 자백에서, 주문모 신부를 만나기 한참 전인 1789년에 이미 [교요서론]을 읽었다고 밝히고 있다.(cf. 노용필, 18세기 천주교리서); 노용필역, 교요서론 VII, <부산교회사보 69호>, 2011 참조.  
162) 白日升神父, 開拓四川教會之先驅, 書信集과 中國福傳建議書, 2012 Edition You Feng, P. 402.  
163) 白日升神父, 앞의 책, p. 403.; cf. Margiotti, p. 337.  
164) 白日升神父, 앞의 책, p. 508.; 그러므로 백일승(장 바제) 신부의 성경 번역은 성풍의 용어로 보아 1704년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추론된다.

Basset 신부의 필사본에서는 아직도 亞孟이라고 하였으나, 로마Casanatense 도서관에 있는 Jean Basset의 필사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필레몬서 25절 등에 이르는 말미에서 阿孟이라고 표기하였고, 이후 개신교의 모리슨역에서는 口亞口門이라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양격비(Yang Gefei)목사의 1886역본에서는 亞門이라 하였으며, 1861년에 간행된 천주교 [聖事歌經簡要]를 보면, 亞們을 사용하고 있다. 유 빠치피코 신부 때부터 阿們이라하여 현재에 이름으로써 아멘의 중국어 표기가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亞孟아맹이나 阿們아문을 한글 필사본(1800년대초중반) [성경직해광익]에서는 여수와 아문으로 번역 표기하였다가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아멘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천진암성지 자료집 111, p. 55, 154, 196, 209, 261, 335). 이는 [성경광익]의 축문 등에 나오는 亞孟을 아맹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리라 추정되나, 바세 신부의 성경이 모리슨 역 개신교 성경에(성마두전 복음지서 6장 13절, 28장 20절 등) 영향을 주는 1810년 당시부터는, 기도문의 종결로서 모리슨의 인쇄본 성경에 영향을 받아 口亞口門을 아문으로 음역하여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유파치피코 신부가 입국할 당시, 북경 천주당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책들도 입수하여 조선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곧 홍콩 인근지역(파리외방선교회 담당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천주교의 책(혹 필사본)과 함께 이미 인쇄되어 대량으로 배포되던 모리슨 역본 성경도 입수하여, 口亞口門아문으로 표기된 글을 아문으로 읽었을 가능성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본토와 홍콩 등지에서는 아직 亞孟도 사용하나, 대만에서는 阿們으로 기도하고 있다. 바티칸 문서고의 중국어 성경에서도 阿們(cf. 필레몬서 25절)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 관계로 다 밝히지 못하였으나, 아멘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더 자세히 밝혀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假借된 한자 표기는 마태오 리치 신부의 중국입국 초기부터 계속 변화하여 왔다. 그러므로 [성교요지]에 나오는 가차문자 가운데 일부 개신교 용어들이 들어 있다고 하여<sup>165)</sup>, 성교요지를 포함한 [만천유교]의 내용 전부를 ‘가짜이고, 사기다’라고 추정하여 단정할 수는 없다.

#### 4. [미살제의].<sup>166)</sup>

彌撒祭義

165) 1852대표역본을 신부들이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뒤에서 더 밝히겠지만,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개신교의 용어도 혼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 많다.

166) 여기서는 애유락, 미살제의, 1849 중간, 사목 조방제 준의 책에서 인용한다. 이 책은 분명히 주문모 신부의 입국 때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윤유일이 권일신과 이승훈의 1789년 편지를 가지고 북경에 갔을 때, 왕명을 받은 관리였던 오 요한은 북경에서 직접 세례를 받았고, 선교사를 초빙하여, 선교사의 미사도구 등의 물품이 왕의 짐짝 속에 들어 있었다. 구베아 주교의 편지와 정조실록 1790.3.3.에서 의주 부윤 이이상이 정사 이성원에게 보내는 왕의 (특별문서)諭書 참조>, 보미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황사영 등이 보미사 경문을 필사하여 한문 발음대로 응답하며 복사를 하였을 것이다. ; 미살제의 초입부에서 애유락은 이 책을 기록하기에 앞서, ‘교회의 규범으로는 경서를 출판하기에 앞서 3번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이 출판허가 때문에, 미사경본과 성경이 이미 중국어로 다 번역되었어도, 출판하여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이 규정이 엄격하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말 미사경본 I-II가 1976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간행본으로 나왔다.; 달레중 308.- “이밖에 미사 경본과 성서와 다른 성물들도 받았사운데 그것들은 왕 요셉 선생을 통하여 받은 목록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분들에게(정약용 등?) 전해 드리겠습니다.(其外經本書本及聖物 都依王先生照數帶去 惟望一路上及各處往來辦事之時) -이 다음 조선에 들어 오기를 원하시는 서양인 신부님들이 계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맞아들이겠고,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천주

[미살제의]를 살펴보면, 지금도 사제들이 미사 예절과 규정에 대하여 알고 참고해야 할 교회 전승이 많다.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애유락(Giulio Aleni, 1582-1649, 艾儒略) 신부가 지은 [미살제의]에, 진주이신 천주께 바치는 대례가 미살이며, 살책이(Sacerdos)<sup>167</sup>인 탁덕이 주제로서 회중을 대신하여 바치는 것이다.(미살제의권상, p. 1). 미사는 새벽부터 정오 시간에 드리는데, 탁덕이 조식 이전에 드려야 한다. 만일 아침을 먹었다면 미사를 지낼 수 없다. 주제자는 필히 종신수정할 것을 서원해야 하며, 교화황이나 비사파(포르투갈어bispo, 주교)나 살책이 탁덕이<sup>168</sup> 아니면 미사를 주례할 수 없다.

성당을 지은 후에는 침례당 법에 따라서, 성당 안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불가유2용). 당 밖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망스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당의 최심처에는 필히 하나의 (제)대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성상을 놓아야 한다. 촛불에 황랍을 사용하는 의미는 순결한 몸을 뜻하는 것으로서, 벌은 동신으로 꽃을 찾기(동신채화) 때문이다. 성작은 제일품제기로서 주석이나 동, 옥이나 나무가 아닌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8).

제5 품급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자의 품급을 말한다. 서(양)제국에서는 예로부터 국가의 규범이 있어, 주재국가당사자의 3 종류를 두어, 하나는 교화하고, 둘째는 민사를 다루고, 세 번째는 사무를 두어 대비한다. 그중에 천주를 대리하는 교화종주자가 있으니, -소위 비사파(bispo) 살책이(sacerdos) 탁덕인데, 그 직무는 교를 행하고 전하는 것으로서, 불관불혼하여 전심으로 교회의 일을 돌보는 이들이다.

총 7품<sup>169</sup>이 있는데, 초시는 아사지아략(ostiarus, 수문품)으로서 성당출입을 관리하는 품이다. 재시에는 록다이(lectoratus, 강경품)직으로서 침례일에 공당에서 송경하는 일을 관리하고, 삼품은 액열이제사달(exoracistatus, 구마품)직으로서 구축려악하며, 4품은 아각리다(acolythatus, 시종품)으로서 당중향축을 관리하는데, 이상을 소품이라 하며 1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다. 21세이상으로 발원견수정덕한 이들이 대품을 받는데, 오시는 제아각나(diaconatus, 부제품)으로서 성갑성작을 관리하며 미사때 고성으로 고경을 선포한다. 육시는 척제아각나(subdiaconatus, 차부제품)으로서 강도해경하면서 탁덕의 좌우에서 보좌한다. 7시는 살책이(sacerdos) 탁덕이 되는 품으로서 미살대제를 드리며 야소를 대리하여 만민기도하고 죄를 사한다.(10).

비사파(bispo)는 탁덕 내에서 간선되어 교화황으로부터 가작가위가권을 받는다. 그

강생 1835년 1월 19일, 북경 남당에서 유(진길)오사정, 조가록, 김방제각등 재배.”; 루도비코 불리오(리유사) 신부의 [미살경전] 5권도 있어(서양자, 청나라궁중의 선교사들, p. 282), 다음 5.에서 다룰 것이다.  
167) 미살제의 권하 목록, 18절 장제, 1에서는 살책이 탁덕이 먼저 성당에 들어오면서 미사를 준비한다.  
168) 사자경문에 나오는 교화황, 비사파, 주교, 탁덕을 참고.;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은 이 내용도 읽고 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종신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유사성직제도를 중지하였을 것이다.  
169)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72년부터 착의식,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 신품으로 단순화 하였다.

위로 **아이제비사과**(archivescovo, 대주교)가 되고 또 **비리마사**(?)가 되고 **파득리아이**가  
亞爾際俾斯波 俾理瑪斯 罷得理亞爾加  
 (patriarcha, 총대주교)가 된다. **교화황지상**들을 **가이지남이**(cardinali, 추기경)라 한다. 각국의  
教化皇之相 加爾地納耳  
 사신 한 사람이 라마국에 주재하여 교회의 일을 본국에 전달한다. 성 **박사백록**(?)은 탁덕에  
羅馬國 博斯伯錄  
 대하여 말하기를, 순차품급은 교회가 탁하는 것으로서, 천주의 배필(필)이요, 사피리다삼다  
循次 品級 鏗 窮  
 의 위로(래=칙)로서, 천주께서 만민을 **궁련**하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소위 천주와 사람 사이  
勅 矜憐  
 에 개입하는 **거간자**인 것이다.<sup>170)</sup> **마납기아**(Malachia)는 탁덕을 천주사령인 천신과 같다 하  
居間者 瑪拿基亞 天主 使令 天神  
 였고, **살락만**은 당하여지령신이라 하였다.(10).  
撒落滿 當下 汝 之 靈 神

제6 장복에서, 일용지복은 적합하지 않고, 제사에 맞는 **성.덕.상**의 복장을 논하고  
祭服 誠 德 象  
 있다. 천주강생 전에 **천주당**에서 탁덕은 **6개의 제복**을 착용하였다고 고경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제복도 6개의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천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신 날이 6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71)</sup> **1**은 **아미다**(amictus, 개두포), **2**는 **아이말**(alba)(12).이며, **3**은 각이당  
亞彌多 亞耳襪 各爾當  
 (cingula, 띠), **4**는 **마니포라**(manipula, 좌수대), **5**는 (명알을 잘못 기재하여) **명알 사다랄**  
瑪尼布羅 左手帶 名目 命目 斯多辣  
 (stola, 즉영대)이라 하였다, **6**은 **관장제복**으로서 **가소랄**(casula) 즉채복야라 하였다. 이는  
卽 領帶 寬長 祭服 嘉蘇辣 卽 彩服也  
 탁덕본품의 옷이요, 오주야소께서 **고금제일**의 살책이탁덕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13).

6가지 제복 외에 **지금 중화에서는 교황께서 허용하시어 현색 관을 쓰는데, 위는 사**  
中華 教皇 現色 冠  
**각이요 아래는 원형이다.**<sup>172)</sup> (14상). 제의의 색깔로는 **백. 홍. 현. 천청. 록색**이 있다. **백색**  
 은 희색이요, **홍색**은 피를 의미하여, 중도와 치명자 성인 침례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천주의  
**혈신**임을 의미한다. **천청**은 하늘의 정색으로서 겨울과 봄에 많이 사용하는데, 재계일과 고  
血 臣 天 靑  
 행하며 기구할 때 사용한다.<sup>173)</sup> **현색**은 명막을 뜻한다. **록색**은 생왕의 뜻을 지니며, 침례일  
冥 漠 生 旺  
 이 없을 때인 여름과 가을에 많이 사용한다.(15상).

제7 **여미살례**의에서, 미살자는 필히 **보미살자**가 있어야 한다. 미사가 시작되면 **끓**  
與 彌撒 禮 裝 輔 彌撒 者  
 어 예배하고 성호를 긋는다.(**개국궁계배 작성호**). 보미살자가 해죄경을 외우며, **아죄 아죄**를  
皆 鞠 躬 跪 拜 作 聖 號 我 罪 我 罪  
 삼차 외울때 **삼고심**을 하는데, 이는 통회진절의 표시이다. 탁덕이 제대 우편에서 **만일략**  
三 叩 心 萬 日 略 歷  
 (vangelo, 복음)<sup>174)</sup>을 읽을 때 모두 서서 성호를 긋는다. 성체와 성작을 거양할 때도 삼고심  
 을 하고 **령성체**를 한다. 탁덕이 회중에게 십자축복을 그을 때 **끓**어서 받고 나서 미사가 끝  
 난다.(16상).

170) 정약중, 주교요지 하권 3장 예, '거간하야 그 두 사람을 화회를 붓치면.'하는 용어로 보아, 정약중이 미살제 의를 읽었다고 본다.

171) 성교요지 제 1 장. -육일역작.

172) **기제상방하원-즉제건야**. 이는 유생모로서 마태오 리치 신부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다.  
其 制 上 方 下 圓 卽 祭 巾 也

173) 성호전집 제55권, 제발, 천주실의발에서, '方巾靑袍. 初守童身. 不會有婚'. 이라 하였다. 명례방에서 집회시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색깔로서, **사순절** 시작인 **제의 수요일 전례**를 거행하였다고 본다.(cf. 벽위편권2, 을사추조적발, 입견즉거개분면청건).  
人 見 則 舉 皆 務 面 靑 巾

174) 디아스의 성경직해와 판도하의 방자유전에서는 EUANGELHO를 액만일략이라고 하였다. 미살제의 하권에서는 **만일략**(Vangelo)이라 하였다.  
萬 燕 略



제8 여미살은보에서, 미사는 다른 예식과 비교할 수 없으며, 오주야소강림과 같이 떡의 형상 안에 성체로 친히 계시다.

제10 보미살경문 서지에서(p. 25하), 덕의O아덕웅(Ad Deum) 고의(qui) 특제비가득 (laetificat) 여교도등(juventutem) 묵양(meam). 묵O고이아 도 액사 도사 북이저도탁 묵양 과륙 묵 특포리사지 액득 과륙 지리사지사 인즉탁 동 아비리서득 묵의니미고사 하며, 미사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미사 경문은 라틴어를 발음 그대로 가차문자와 하였다.<sup>175)</sup>

[미살제의 하권]은, 보미사자가 성경을 들고 앞에서 나가는 방식 등, 미사의 구체적인 행동 요령과 의미를 제시한 Rubrica(유의할 점)와 같은 글이다.

미살제의 권하 목록, 장제 18절에서(1상), 2.천주께서 일체삼위이심을 고백하면서 십자성호를 그리고, 3. 회죄송과 해죄송을 바치며, 5. 기리액 액륙의산을 9편 외우고, 6. 양팔을 벌렸다 합장하면서 Gloria(엑락리아, 역언 상증영복우천주 하즉안화우선인)를 노래하고, 7. 전신을 대중에게 향하면서 Dominus vobiscum(탁미노사 아비사공)하며, 8. 본일 침례지의기도를 바치며, 9. 안수경상송고경하고, 10. 경대를 옮겨 분향하고 나서 송 만열략(Vangelo) 경일단을 하며, 제10 이경대우 봉향 송만열략경(역언 보회음시즉 천주강생소연소행 4대성인 마두 로가 마이가 약망 소기록자 송기1단 매일각이)을 읽는다. 미살제의 하권 중.

<소결론>. [미살제의] 책은 분명히 주문모 신부의 입국 때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보미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황사영과 정약종 등이 보미사 경문을 필사하여 한문 발음대로 응답하며 복사를 하였을 것이다.

상권에서 미사의 주례자(7품성사), 제단, 제복의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금 중화에서는 교황께서 허용하셔서 현색 관을 쓰는데, 위는 사각이요 아래는 원형이다. 제의의 색깔로는 백. 홍. 현. 천청. 녹색이 있다. 백색은 희색이요, 홍색은 피를 의미하여, 종도와 치명자 성인 침례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천주의 혈신임을 의미한다. 천청은 하늘의 정색으로서 겨울과 봄에 많이 사용하는데, 재계일과 고행하며 기구할 때 사용한다.(성호전집 제55권, 제발, 천주실의발에서, ‘方巾青袍. 初守童身. 不曾有婚’. 이라 하였다. 이는 명례방에서 집회시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색깔로서, 사순절 시작인 재의 수요일 전례를 거행하였다고 본다.(cf. 벽위편권2, 을사추조적발, 입견즉거개분면청건). 제10 보미살경문 서지에서, ‘덕의O아덕웅(Ad Deum) 고의(qui) 특제비가득(laetificat) 여교도등(juventutem) 묵양(meam)’ 하여, 라틴어 미사경문을 한문으로 음차하여 기록하고 있다.(한국의 보미사자가 한문을 ‘아덕웅 고의 특제비가득 여교도등 묵양’으로 읽으며 기도하였을 것이므로, 라틴어도 한문도 아닌 알지 못하는 기도문이 되었을 것이다.- 앵베르 주교의 편지 참조).

175) 앵베르 주교의 22번째 서한, 2011 수원교구, p. 343, 349.- ‘저의 두 번째 걱정거리는 매일 기도와 주일 미사경문의 조선말 번역입니다. 천주교가 들어온 시초에 조선신자들은 -한문으로 된 기도문을 그 뜻까지 번역하지는 않고, 뜻은 모르는 채 발음만 조선식으로 하여, 바쳤습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도(12년을 중국에 거주한 앵베르도) 책을 보지 않고 말만 들으면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신자들은 기도를 바칠 때 한자발음을 사용하였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로 기도하였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미살제의 하권]은, 보미사자가 성경을 들고 앞에서 나가는 방식 등, 미사의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의미를 제시한 **Rubrica**와 같은 글이다.

### 5. 미살경전.<sup>176)</sup> 彌撒經典

극서 야소회사 리유사(Ludovico Buglio, 1606-1682) 신부가 (역)지었고, 치회 남회인 준으로, 표지가 인쇄되어 있다. 라틴어 인쇄 표지에는 바오로 5세 교황이 허락하여 예수회의 루도비코 불리오 신부가 1670년에 북경에서 편집한 것이라 하였다. 미살경전 목록에 서력년월(정월 초1일 야소성명 등 주요 축일 첨례표)이 들어 있고, **미살공례**에 가배첨례와 가반급단첨례 등의 첨례 등급과 미사 순서(축문, 알렐루야[아룩로아], 만일략경,<sup>177)</sup> 신경 등), **미살례절**, **미살경전**, **축성수규**의 등이 큰 제목이 들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성탄전 제4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I부가, 부활성야부터 성신강림후 24주일과 이어서 삼왕내조 제3-5주일까지 II부로 모두 한 권에 들어 있고, 성인본미살(축일 미사)과 공(통)성인미살까지 다 들어 있다. 완벽한 중국어 미사경본이다.

[미살경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미살경전, 극서야소회사리유사역, 시미살본경의 제목에 이어서, **성탄전제4주일**부터 시작한다. 성탄전제4주일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된다. <진대경/입당송> 기거여령향오주뢰이무괴즉아서부득회야범망이자장불부굴. 그리고 <성영>과 <부경>, <복념>이 입당 부분이다. 이어서 <청중동도 축문>으로 축문, 성모축문, 위성교회축문, 혹은교황축문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성탄전제3주일의 축문 경우에는, ‘망주진 거오심, 이치이유일즈지도, 피이강세, 비오령청결, 봉사이기(영원봉스 여수), 흐 | 이, 흐 | (스비리도)사피리다(산도)살다, 내생내왕(천주)세세. 아맹(아문).’으로서, 한글필사본 성경직해판의 축문과 거의 같다. 그 다음에는 (독서로) <넘성보록종도여라마부교우경서>(로마서 13,11-14a)의 내용으로 ‘인곤 이수지오제몽각예연켈기재사시재구속지사.--물경물투유의 오주야소계리사독.’을 봉독하고, <폐경,충계경/화답송>에 이어 <점의성로가만일략경> ‘유시 야소어문제자왈 일월제성시장유조지인액박-천지가훼 여인불능불행’(루가21, 25-33)이 봉독되고, 계속하여 <헌경>, <묵축문>, <령성체>, <령성체후축문>, <미살장중념>의 기도문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미살경전]에는 [성경직해]의 복음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으로 이루어진 독서 부분도** 다 번역되어 있다.<sup>178)</sup>

176)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보관본으로 제목은 Mi sa jing dian 이며, chinois 7383이 적혀 있다. 책 표지(Missale Romanum, auctoritate Pauli. V. Pont(ificis). M(aximi). Sinice redditum, A P(atre). LUDOVICO BUGLIO Soc(ietatis) Jesu, Pekini, in Collegio ejus(dem). Soc(ietatis). An(no). M.DCLXX(1670).(소순태 교수가 구해준 문헌이다). 미살경전만 인쇄되었을 뿐, 미살경전 목록부터 성탄전제4주일로 시작되는 미살경전 본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직접 붓으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필사의 소견으로는 출판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학정의 말미에, 부 요화사서소화기(1801년 5월 22일 9죄인 정법후 수 대기축)가 있는데, (한)신애의 집에묻어두었던 책들을 찾아낸 굴출기 속에, 성경일과, 성경광익6권, 성경광익 직회6권, **미살1권도** 있는데, 이는 [미살제의]로 판단된다.; 서양자, 청나라공중의 선교사들, p. 282 참고.

177) 앞서, 디아스의 성경직해와 판토하의 방자유전에서는 EUANGELHO를 액만일략이라고 하였으나, 이 [미살경전]과 백여년 후 백아로의 성경에서는 만일략이라고 하여 앞의 액자를 생략하였다.

178) 축일의 독서와 복음 내용에 대하여서는, 소순태교수가 제공한 The Catholic Lectionary Website를 참고.

축일 독서에 사용된 성경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성탄전2주일에 **비리백**부교우경서(Phil.4,4-7), 성탄전1주일의 **가림다**부교우경(1Cor.4,1-5), 주성탄 자시제일미살(서력12월 25일)의 ‘**님**성보록**종도여 제다**경서’(Tit.2,11-15)와 **성로가**만일략경, 성탄제3미살의 ‘**여여덕아국**교우경서’(Heb 1,1-12)와 **성약망**만일략경수편(요한 1,1-14), 성사덕망수선치명자(서력12,26.)의 ‘**종도행실**경서’(Act.6,8-10; 7,54-60)와 마태 23, 34-39을 봉독하는데, 여기서 **아백이**와 **잡가리아**의 이름을 성경직해와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sup>179)</sup> 성약망**종도**겸성사**첨레**(서력 12.27)에 ‘**님지식**경서’(집회 15,1-6), 제성영해지명**첨레**(12,28)에는 ‘**님**성약망**종도 목조**경서’, 성탄후주일에는 ‘**보록종도여 가랄제아**교우경서’(갈라4,1-7)를, 성서이물사덕(실베스텔)교황**첨레**(12,31)의 ‘**제막득아**경서’, 입야소성명 축일에는 ‘**년**성보록**종도 여 제다**경서’(디도2,11-15), 삼왕래조 축일에는 ‘**님의살의아선지자**경서- **일로 살냉**여기수광조이광기 **임주영**생이상’(이사야60,1-6), 삼왕래조후 제5주일에는 ‘**격락소**’(Col 3,12-17), 삼왕래조후제6주일에는 ‘**득살낙니가**’(1Thess1,2-10), 봉재전 3주일에는 ‘**가림다**’(1Cor 9,24 -10, 5a), 봉재전 2-1주일에도 가림다서를 읽는다. **성회레**의의 전례에서 재에 분향하고 성수를 뿌려 축성하고 나서 탁덕이 먼저 성회를 받고 이후 제인들이 받는다. (인수기이원시재토 장귀우재토사람아 재흠에서 왔으니 재흠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어 미살에서 마두만일략경(6,16-21)을 봉독한다. 봉재후 제1주일(**가림다**부교우경서, 2Cor6,1-10), 봉재후 제2주일(**득살낙니가**<sup>180)</sup>, 1테살4,1-7), 봉재후 제3주일(**액불소**, 에페 5,1-9), 봉재후 제4주일(**가랄달**,<sup>181)</sup> 갈라4,22-31), 수난주일에 **액백늬의**<sup>182)</sup>교우경서(Heb 9,11-15)를 읽었다. 성지주일(**님액소다**경서, Exod 15,27; 16,1-7)의 <대치경응>에서 ‘**사교**급**법리슬의(바리사이)회의왈**’ 하였고, 성지주일의 미살에서는 **비리백**부교우경서(필립비 2,5-11)와 마두수난지경마두수난지경(유시야소서퀼문도 이조지월2일 행과사괘**첨레** 이인자 장피부이정사시 사교자급노장자)을 읽었다. 건립성체에서 **가림다**부교우경서(1고린11,20-32)를, 첨레6(금)야소수난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었다. 성첨레7(토)에서는 ‘계;재천주부자 응;공런아등’ 하며 수난도문을 외었다. 수난도문에서 천신을 ‘**제성암약**급**아이감약**’(Angeli et Archangeli)라 하였다. 성약망보제사대, **성보록**, **성오오사정**, **성본독**(Benedictus), **성방제각**이라 하였고, **부활**, **승천**, **성신강림** 등의 예수회 전통 용어를 쓰고 있다. 성첨레7(부활성야)에 **부활초** 축성 후에 행렬하면서 ‘기리사독광’ 하면 ‘사천주’로 응답하고, **부활찬송**을(청제천신용약 용약주여의거왕대승) 노래하였다.

179) ‘의혈자의**아백이** 태**잡가리아** 과랄기아자’로 성경직해13권 p. 35와 같으며, 성경직해의 설명에서는 **잡가**로 생략하여 기록하고 있어, 성교요지 2장에서 아백이를 **아백**으로 생략하는 것은 4자 운을 맞추기 위함이다.

180) 삼왕래조후 제6주일의 **득살낙니가**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181) 성탄후주일의 **가랄제아**와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182) 성탄 낮미사의 독서에서는 ‘**여덕아국교우경서**’라 하였다. 한 책 속에서도 다르게 표기 되는 것이다.

**미살차서(Ordo Missae)**를 보면, 탁덕이 제의를 입고 제단에 국궁예배하고 이마로부터 성호를 그으며 명성으로 넘하되, ‘인과덕륙 급비약 급사피리다삼다명자 아맹’ 한다. 합장하고, ‘즉육진천주대’(Introibo ad altare Dei) 하면 보(미사)가 ‘낙아묘령천주’(Ad Deum qui laetificat juventutem meam)하며 대답한다. [미살제의]와 같이 가차음이 아닌, 중국어이다.

**성찬례(CANON)** 부분도 다 중국어로 번역되어 사도들(백다라, 보록, 안덕륙, 아가백, 약망, 다목, 아가백, 비리백, 과이다록무, 마두, 서만, 달두)과 성인들(리낙, 격능다, 격능맹덕, 시사독, 가이섭약, 제피리아낙, 노방좌, 기색아낙, 약망급보록, 갈사목, 달미앙)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으며, **천주경도** 양팔을 벌리고(수양개), ‘재천아등부자 아등원이명견성 이국임격 이지승행어지여어천언 아등망이금일여아 아일용량 이면아채여아역면부아채자 우부아허함어 유감 응/내구아어흥악 탁덕응/아맹.’ 한다. ‘제면죄세죄천주교양자련아등’(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제면죄세죄천주교양자 여화평어아등’(세상의 죄를 --, 평화를 주소서) 한다. ‘창귀미살필’(Ite Missa est) 하면, ‘사천주’(Deo Gratias) 하고 대답하며, 아록로야(알렐루야)를 더할 수 있다.

**성인본미살(성인 축일미사)**에 성안덕륙중도(11월 30일) 축일에 **보록**중도여라마부교 우경서를 읽고, 성약한보제사대탄일침례(6,24), **열락니막(에로니모)**성사(9,30)라 하였다. **축** **성수규**의로 목록에 나오는 대로 [미살경전]을 맺고 있다.

<요약정리>. 라틴어 인쇄 표지에는 바로로 5세 교황이 허락하여 예수회의 루도비코 볼리오 신부가 1670년에 북경에서 편집한 것이라 하였다. [미살경전] 표지만 인쇄되었을 뿐, 미살경전 목록부터 성탄전제4주일로 시작되는 미살경전 본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직접 붓으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사의 소견으로는 출판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학정의 말미에, 부 요화사서소화기(1801년 5월 22일 9죄인 정법후 수대기측)가 있는데, (한)신애의 집에묻어두었던 책들을 찾아낸 굴출기 속에, 성경일과, 성경광의6권, 성경광익직회6권, **미살1권(청의첩책진서)**도 있는데, 이는 [미살제의]로 판단된다.

미살경전목록에 서력년월(정월 초1일 야소성명 등 주요 축일 침례표)이 들어 있고, **미살공례**에 가배침례와 가반급단침례 등의 침례 등급과 미사 순서(축문, 알렐루야[아록로야], 만일략경, 신경 등), **미살례절, 미살경전, 축성수규**의 등이 큰 제목이 들어 있다. 본문 내용은 성탄전 제4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I부가, 부활성야부터 성신강림후 24주일과 이어서 삼왕내조여제3-5주일까지 II부로 모두 한 권에 들어 있고, 성인본미살(축일 미사)과 공(통)성인미살까지 다 들어 있다.

성탄전제3주일의 축문 경우에는, ‘망쥬진거오심, 이치이유일즈지도, 퇴이강세, 비오

령청결, 봉사이기(영원봉스 여수), ㅎㅣ이, ㅎㅣ(스비리도)사피리다(산도)삼다, 내생내왕(천주)세세. 아맹(아른).’으로서, 한글필사본 성경직해광의의 축문과 거의 같다. 축일 독서에 사용된 성경의 이름에서 신.구약 독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살차서(Ordo Missae)는 물론, 성찬례(CANON) 부분도 다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어, 사도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으며, 천주경도 양팔을 벌리고(수양개 ‘재천아등부자’) 중국어로 기도한다.

예수회 신부 마태오 리치의 선종이후, 1618년에 로마를 방문한 Nicolas Trigault (金子, 四表, 金尼閣, 1577-1628)의 보고를 받고, 중국에서의 선교 가능성을 확인한 바오로 5세 교황은 미사 봉헌과 성사의 집전, 그리고 성무일도까지도 중국어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양 선교사들 20 여명과 함께 7천여부의 서양 서적을 하사 받아 중국으로 돌아왔다.<sup>183)</sup> 이리하여 강희 9년(1670)에 불리오(Ludovico Buglio, 利 類思) 신부는 중국인 사제가 증문으로 미사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彌撒經典’, 司鐸典課, 聖事禮典, 司鐸日課, 超性學要, 등 5권을 증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교황청에 허락을 얻어 중국인 신부가 중국어로 미사하고 중국어로 성사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문모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어로 미사를 봉헌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84)</sup> 페르비스트 남회인 신부가 강희 16년(1677)부터 중국 예수회 총책임을 맡게 되면서, 교황청에 서신을 보내어 중국인 사제양성을 추진하고, 1680년에 쿠플레 신부를 로마에 보내어 승인을 요청하였다. 쿠플레 신부가 로마에 갈 때 재중국 예수회원들이 저술한 책 4백여 권을 가져가서 1682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에게 진정하였는데, 그 중에는 불리오 신부가 증문으로 번역한 [彌撒經典]도 있었다. 쿠플레 신부는 중국인 신부가 중국어로 미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받으려고 했는데, 아깝게도 비준을 얻지 못하였다. <sup>185)</sup>

이에 대하여 Thor Strandennaes 는 ‘1615년에 바오로 5세 교황이 중국의 예수회원들에게 중국어 성경번역을 허락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Macau에 있는 교회담당자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sup>186)</sup> 필자의 소견으로는 포르투갈 선교보호권 속에서 시작된 서구우월주의와 민족주의, 자기 선교단체 우선주의의 발로였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미사경본까지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출판과 사용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I Vatican 공의회 이후 전례개혁 때까지 라틴어를 중국어로 음역 가차문자화한 [미살제의]만 활용되었을 것이다.

#### IV. 중국어 성경 번역과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1. 북경에 진출한 마태오 리치와 예수회 선교사들은 주로 교리서(성전)들을 지었으나, 성경도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sup>187)</sup> 디아스(1574-1659, 陽瑪諾)신부는 신약성경

183) 白日昇神父, 開拓四川教會之先驅, 書信集과 中國福傳建議書, 2012 Edition You Feng, p. 16.; 줄리오 알레니(천기철 옮김), 직방외기, 2005 일조각, p. 26 각주 33.;

184) 서양자, 중국천주교 순교사, 2008 도서출판 순교의맥, p. 89.;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2010 도서출판 순교의 맥, p. 232, 243, 255, 282.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을 모르는 데서 온 추정일뿐, 사용한 책은 [미살제의]로서, 라틴어를 음차한 중국어였다고 생각된다.; 이 미살제의의 경문은 라틴어를 한자어 발음대로 음역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아덕용(Ad Deum) 고의(qui) 록제비가득(laetificat) 여교도등(juventutem) 목양(meam). 고의(qui) 비제득(fecit) 칙릉(caelum) 액득(et) 덕랑(terram).

185) 서양자, 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p. 310.; 성경직해에서는 중국에서 두건 착용이 허락되었다고 한다.

186) Thor Strandennaes,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1987 Uppsala University.

187) 이환진, 위의 글, p. 2 참조. ; Thor Strandennaes,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1987

으로서는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여, [聖經直解]를 1636년 북경에서 출판하였는데, 이는 주일과 축일 미사 때의 성경이었다. 리유사(Buglio, 1606-1682) 신부가 1670년에 엮은 [미살경전]에는 [성경직해]의 복음을 그대로 실을 뿐만 아니라, II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사용하던 **미사경본의 모든 내용**이 독서를 포함하여 다 번역되어 있다. **완벽한 중국어 미사 경본**이었던 것이다. Francois d'Entrecolles(1663-1741)는 토빗서와 그 주석으로 [訓慰神編]을 지었다. 프랑스 출신의 마이야(1669-1748)도 연중 주일과 축일에 관련된 신약 4복음서의 내용들을 설명한 복음해설서를 [聖經廣益] 상.하권으로 북경에서 1740년에 간행하였다.<sup>188)</sup>

예수회의 뿌아로(Louis de Poirot, 1735-1814, 賀清泰) 신부는 **만주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성경의 대부분을 번역하였는데, 불행히도 그의 번역은 아무것도 출판되지 못하고 원고만 보존되어 있다. 그의 중국어역 [古新聖經]의 원고는 현재 북경의 北堂圖書館에서 북경도서관으로 이전되었고, 上海 徐家淮藏書樓에 그 抄本이 보관되어 있다가 상해 도서관으로 이전되었다.<sup>189)</sup> 프랑스 남부 태생인 뿌아로 신부는 1756년에 이태리의 Firenze 예수회 수도원에 들어가 수학하고 1770년에 중국에 건너왔다. 그러나 중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1773년에 예수회가 해산되자, 그는 청나라에서 중신할 생각을 품고 성경을 한어와 만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신.구약성경을 한역하여, [古新聖經]이라는 이름으로 원고를 남긴 것이다.<sup>190)</sup> Florian Bahr(1706-1771)가 번역한 [聖詠續解]는 1771년에 나온 것으로, 시편 및 주석이 실려 있다.<sup>191)</sup>

그밖에도 송강호의 글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역본으로, 왕다마역본(복음서 1875년, 사도행전 1883년), 로렌트역본(신약 1897년), 드장역본(복음서 1893년), 신경역의(신약 상해자모당 1897년 간행/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신신보역본(복음서 19세기말), 이문어역본(4복음서 1900년), 마상백역본(4복음서 1949년)이 있다. **마상백**은 1862년에 예수회에 들어갔고, 이홍장에게 천거되어 산둥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1881년 일본을 거쳐, 이듬해 **조선에서의 직무도 수행**하였다. 1903년 상해 서가회에서 진단대학을 세웠고, 1905년에는 북단공학을 세웠는데 이 학교가 바로 오늘날의 북단대학이다. 1912년 민국 성립후 강소 도독부와 북경대학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1920년 은퇴하여, 상해 서가회에서 천주교 서적을 번역하였다.<sup>192)</sup>

Uppsala University, p. 19에서, '1615년에 바오로 5세 교황이 중국의 예수회원들에게 중국어 성경번역을 허락하였으나, (인쇄까지) **실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Macau에 있는 교회담당자(주; 포르투갈 선교보호권)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미살경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불가타역>을 제외하고서는 성경의 출판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1924년 상해 공의회가 열려 성경번역이 허락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경번역도 출간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에 머물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앵베르, 베르뇌 주교 등) 개신교의 인쇄 출판된 중국어 성경을 지참하여 참고함**으로써, 우리말 번역에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188) [성경광익]은 [성경직해]의 성경을 그대로 옮겨 실었을 뿐이다. [성경광익]은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피정근본) 팔일 동안 피정하면서 매 시간마다(팔일내매일행공시각, 묘초기래년조과지3각, 묘초3각예비제1목상신공지묘정, -오정사성찰-술초2각예비명일목상제목지술정, 술정조상취침) [성년광익]과 함께 [성경광익]의 어느 주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할 덕목은 무엇이고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책으로 엮은 **묵상 지침서**이다.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성경광익목록에는 '야소성탄전제4주일 성사상공심판, -삼왕래조 열심애주'등과 같이 그 주일성경의 **핵심 묵상제목**이 들어있다.

189) 方豪, <중국천주교사인물전하>, 1988 북경 중화서국, p. 99-101;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p.80, 246; 윤민구 역주, 예수회 뿌아로 신부가 포교성 장관에게 보낸 1790.10.18일자 편지, <시복자료집 4집>, p. 33 참조.; 현재 고신성경(성사마두만일략-성약망목조경) 전체를 찾아볼 수 있고, 구약은 그 목록을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p. 81에서 유조성경(창세기)부터 마가백의(마카베오서)를 참고하라..

190) 金東昭, 동양문고장 만주문어성서고본 연구, <신부전달출회장 화갑기념논총>, 1991 매일신문사 참조.

191) 서종택, 명청간야소회사역저제요, 1949 대북 중화서국 <1989 북경 중화서국?> 에서, 파리 국립도서관과 바티칸 도서관에 가장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2. 한편 **파리 외방전교회**의 랑베르(P. Lambert de la Motte, 1624-1679)주교가 코친차이나 대목으로 1660년에 2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중국 남부에 진출한 이래<sup>193)</sup>, **장 바세(Jean Basset 1662-1707, 巴設, 白日昇)** 신부는<sup>194)</sup> 라틴어 성경(불가타역)을 중국어 **문언문**으로 번역하였는데, 4복음서 합편과 바오로 서간(로마서에서 히브리서 1장14절/1장 끝까지)을 포함하고 있다.<sup>195)</sup> 이 [바세역본 巴設譯本]의 원 표제는 [四史修編(耶蘇)耶穌基利斯督福音之會編 *Evangelia quatuor Sinicae*]로서<sup>196)</sup>, 바세는 신약 전체를 다 번역하지 못하고, 1707년 12월에 광동Canton에서 선종하였기 때문에 필사본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다 (Willeke 1945:451; Strandenaes 1987:23). 성경을 출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잘못된 번역에서 이단이 출현할 수 있다는(루터의 예) 우려에서, 교회가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후 유난 Yunan(광동성 홍콩상류, 조경 건너)의 대목구장 **Joachim Enjobert de Mantiliat**(1706-1755)<sup>197)</sup> 파리외방선교회 주교도 <바세역>에 근거하여 마태오복음을 펴냈으며, 체즈안에서 활동한 중국인 사제 Andre Ly(1692-1774)도 1751년에 <바세역>을 바탕으로 관화체 화합복음서를, 1759년에는 역시 전례용 복음서와 서간들을 펴냈다.(Willeke 1945:452, Spillett 1975:xi). 또한 중국인 협력자 Johan Xu(Su, 徐若翰)의 손으로 필사된 마태오 복음서를 비롯한 4복음서와 히브리서 1장까지도 로마의 Casanatense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sup>198)</sup>

2006년에 로마의 Casanatense 도서관에서, Jean-Baptiste Itcaina 신부는 Jean Basset 신부와 Johan Xu 가 중국어로 번역한 신약 필사본들을 발견하였다. 이 [로마본]은 4복음이 나뉘어 있으나, 영국본과 똑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끝)까지만 번역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7개의 소책자로서, 각 페이지들을 복사 디지털화 하여, 한 책으로 묶여 있다.

바세의 협력자 Johan Su(Xu)가 만든 **다른 두 필사본들도 영국에** 보관되어 있는데, 하나는 **Cambridge 대학**에, 다른 하나는 런던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대영박물관 소장 사본은 1737년에 Canton에서 John Hodgson junior에 의하여 발견되어, 한 사본이

192)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2007 도서출판모리슨, p. 85.

193) 팔뤼(F. Pallu, 1626-1684)는 퉁킹 대목으로 라오스와 중국의 남부지방을, 코톨렌디(I. Cotelendi, 1630-1662)는 남경 대목으로 중국의 중북부와 몽골과 조선까지 포함하는 지역의 선교 책임자였다.(cf.대사전)

194) 白日昇神父, 開拓四川教會之先驅, 書信集과 中國福傳建議書, 2012 Edition You Feng; Maigrot, Notes bio-bibliographiques 참조.-Jean Basset 신부는 1662년 Lyon 태생으로, 1677년에 파리에 있는 Saint-Sulpice 신학교에 들어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Sorbonne 대학을 졸업하면서 1684년 MEP에 입회하였다. 부제품을 받고 1685년에 파리를 떠나 Siam으로 파견되어, 1686년에 현지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Canton에 머물면서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서성 등지를 여행하였다. 마태오 복음서부터 바오로 사도의 히브리서까지 신약성경을 번역하였고, 제례문제에 관하여 파견된 교황 전권대사 Tourmon과 황제와의 협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북경 파견을 명령받았으나, Canton에서 1707년 12월에 병으로 선종하였다.(cf. Thor, 22.)

195) 이 사본의 이름은 Diatessaron ex Evangeliiis, cum Actis Apostolorum et B. Pauli Apostoli, 1737/38 Canton. 이며, Sloane MS#3599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다.(cf.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p.4).

196) Thor Strandenaes, p. 23-각주10. - Concordantia Evangeliorum/ A Gospel Harmony.; 필자가 확보한 **Cambridge 대학본**에서는 (앞장이 하나 떨어져 나간 듯하여) 표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

197) 1706년에 Clermont-Ferrand에서 탄생하여, 1726년에 Saint-Sulpice 신학교에 들어가 Sorbonne에서 학위를 받았고, MEP+에 입회하여 1729년에 삭발례를 받고 Canton에 파견되어, 1731.3.12.에 신부가 되었다. 중국인 사제 Andre Ly와 함께 Hou-kouang 등에서 활동하다가 1739.10.2.에 Yun-nan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고, 도미니코회의 Maggi 주교가 1744년에 죽자 Se-tchon 지역까지 맡았고, Ex quo singulari(1742.7.1.) Bulla를 1744. 10. 9에 반포하였다. 그러자 1745년부터 박해가 일어나, 1746.9.1.에 마카오로 피신하였다가, Jean-Baptiste Maigrot를 후임으로 남기고 1748.1.6.에 유럽으로 떠나, Roma에서 1755. 8. 24.에 선종.

198) 白日昇神父, 開拓四川教會之先驅, 書信集과 中國福傳建議書, p. 508.

Royal Society 왕립학술회원인 Hans Sloane(1660-1753)경에게 전달된 것이다. Cambridge대 사본은 Sloane사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Hodgson이 확보한 원본으로 보인다. 로마와 Cambridge 대학의 두 사본은 Johan Xu 자신의 자필 인식표가 들어간, 같은 필적의 사본으로서, San Francisco 대학 Ricci 연구소의 Malatesta(Guelfa가문) 문서고에도 들어 있어, 세 사본 모두 다 Johan Xu가 직접 다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세 신부의 사후 거의 1세기가 지나서, 그의 번역본이 개신교의 중국어 성경 번역(모리슨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199)

3. 개신교의 중국어 성경 번역사는 1737-38년에, 영국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의 지배인 하지는 2세(Mr. Hodgson jr.)가 광둥(Canton)에서 신약성경이 담겨있는 중국어 사본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이 사본을 영국으로 가져갔고, 1739년에 한스 슬로안(Sir Hans Sloane) 경에게 그것을 보여주자 그는 이 필사본을 영국 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 런던 대영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Sloane MS #3599). 이 슬로안사본(史羅安手本)이 바로 장 바세(Jean Basset 1662-1707) 신부가 번역한 중국어 성경을, 아마도 Johan Xu가 필사한 사본이다. 바세의 성경이 라틴어 <불가타역>을 사용한 역본이지만(Strandenaes 1987:23), 한글 성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성경전문용어가 바로 이 바세역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200)

Robert Morrison(1782-1834) 선교사는 London Missionary Society(런던선교사회) 소속으로서, 영국에서 중국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인 1805년에, 우연히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바세 신부의 중국어 번역본, [四史修編(耶蘇)耶穌基利士督福音之會編 Evangelia quatuor Sinicae]이라는 표제의 문서를 발견하였다.201) 그는 그의 중국어 교사였던 용삼덕(容三德, Yong Sam-tak)과 함께 이 문서를 필사하였고, 이는 모리슨이 개신교 성경을 중국어로 역출함에 있어서 그 출발이 되었던 것이다. 침례회 선교사 Josua Marshman(1768-1834)도 역시 바세 신부와 Johan Xu의 사본에 의지하여 번역하게 된다. 이렇게 Robert Morrison과 Josua Marshman의 두 번역본은 Sloane 사본의 텍스트를 글자 하나하나마다 아주 가깝게 옮긴 것에 불과하다.

출판된 순서를 보면, 1814년에 Canton에서 모리슨 역이 최초의 중국어 성경으로 간행되었다.(1810년에 사도행전, 1811년에 누가복음, 1812년에 요한복음을 먼저 출판하였다.)202) 모리슨 목사는 <바세역>이 본래 누구의 작품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선배의 노작을 바탕으로', <바세역>을 일 년 동안 공부하며 중국어 번역본[모리슨역 馬禮遜譯本]을 1814년에 내 놓았다. [모리슨역]의 이름은 <耶穌基利士督我主救者新遺詔書> 第一至八本, 廣東, 1814年이다. 1815년에는 신약전서 제 2권이 광둥에서 출판되었고, [모리슨역]은 개정되어 1832년에 다시 출판되었다. 개정본의 이름은 <救世我主耶穌新遺詔書> [修訂版, 1832, 馬六甲(말라카)]이다. [모리슨역]의 저본은 [바세

199) 白日昇 神父, 앞의 책, p. 23-24.;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복음의 합편인 영국 Cambridge대본이 먼저 이고, 사복음이 나뉘어있는 로마본이 후기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리사독이 기독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더 세밀한 것이 후기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 Thor Strandenaes, p. 22.;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p. 5. 참조.

201) 모리슨은 1807.1.1.에 영국을 떠나 미국을 경유하여 중국 Canton에 1807.9.4.에 도착하였다. 그가 왕립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 가운데는 로마 가톨릭에서 작성한 [ Latin-Chinese MS-사전 ]도 있었다.(Thor Strandenaes, p.22-각주 1,3참조). 그는 영국 장로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였다.

202)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p. 107, 131.

역]과 라틴어의 불가타역, 영어 흠정역과 희랍어 공인본 등이었다.<sup>203)</sup>

이어서 J. Lassar & J. Marshman의 역본이 Serampore에서 1822년에, R. Morrison & W. Milne의 번역본이 1823년에 Malacca에서 출판되었다.<sup>204)</sup> 한편 모리슨의 필사본은 홍콩대학에 보존되어 있고, 1938년에 한 천주교 신자에 의하여 또 다시 필사된 것은 홍콩 천주교 思高聖經學會(Studium Biblicum OFM)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sup>205)</sup>

이렇게 <바쎌역본>은 개신교 최초의 중국어역인 <모리슨역>의 근거가 되었다.(Wylie 1867:5-6).<sup>206)</sup> 슬로안 사본 #3599와 함께 [라틴-중국어사전] 역시, 오래전 전교를 시작한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노작이며, 이러한 노작에 힘입어 중국어 최초의 <모리슨역>이 탄생하였고, 용어 면에서 20세기 한글성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신교 성경의 전문용어들은 대부분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오래전부터 심사숙고하여 고안해낸 용어들이다. 그러므로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개신교회 전문용어들은 대개 18세기 초부터 중국 가톨릭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용어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207)</sup>

요한복음 3,16의 번역을 보면 바쎌역본(영국본 7장 끝)과 모리슨 본이 거의 똑같다.<sup>208)</sup>

바쎌역본: ‘개신애세 치사기독자 사범신지자 불운 내득상생야.’  
蓋神愛世 致賜己獨者 使凡信之者 不隕 乃得常生也

모리슨본: ‘개신애세 치사기독자 사범신지자 불치침망 내득영상생야.’  
不致沈沒 永當生也

1855본: ‘개신애세 심지어기독생지자사지 비범신지자 면침이?이득영생.’  
蓋神愛世 甚至以其獨生之子賜之 俾凡信之者 免沈淪而得永生

현중본: ‘천주경저양애료세계 심지어사하료자기적독생자 사범신타적인불지상망 반이획득영생.’  
天主景這樣愛了世界 甚至賜下了自己的獨生者 使凡信他的人不至喪亡 反而獲得永生

4인 소조역본(신약 1837 Batavia, 구약 1840 Batavia/자카르타)은 모리슨역본을 근거로 수정한 것이다. 이어서 1850. 8. 1.에 상해에 5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대표로 모였다. 이들은 Shanghai, Ningpo, Amoy, Canton, Hong Kong에서 왔다. American Episcopal 선교회 소속의 W.J. Boone과 런던 선교회 소속의 W.H. Medhurst(상해)와 W.C. Milne(닝포), J. Stronach(Amoy)와 미국 외방선교회의 E.C. Bridgman(Canton과 Hong Kong)이었다. 이들은 1847.6.25.부터 5개 지역의 지부를 갖추고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와 있는 개신교의 여러 성서공회가 새번역으로 신약을 펴내기로 결정하였다.(이는 실상 1843년의 결정이었다.) 그리하여 1852년에 신약을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대표역본, Delegates' New Testament Version]이다. 신약성경의 출판을 인가(Imprimatur)한데 이어, 구약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런던선교회(Medhurst, Milne, Stronach)가 탈퇴하였고, 1854년에 구약성경 대표본이 출판되었다.<sup>209)</sup>

203) 이환진, 앞의 글, p. 7.; 여기서도 耶穌를 컴퓨터의 변환대로 풀초가 들어간 耶蘇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204) Thor Strandenaes 1987, p.23 -각주 12.

205) 白日昇神父, 앞의 책, p. 24; 최순환, 중국 개신교 선교 200년을 2년 앞두고, 2005 모리슨문서번역회 참조.

206)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2000년 9월, p. 4-5.

207) 이환진, 앞의 글, p. 49.; 모리슨이 1819. 11. 25.에 런던 선교사공회 책임자에게 보낸 편지(Morrison 1839[2]:2-11; 슬로안 사본 중 한 부가 선교사공회에 소장되어 있음) 참조.

208)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p. 216 참조.

209) Thor Strandenaes, p. 48-49.; 송강호, 앞의 책 153에서, 영국성서공회는 상제의 이름으로 성경을 출판하였고, 미국성서공회는 신의 이름으로 성경을 출판하였다.

5. 조선에서 **우리말(한글)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중국어 성경**이 직접 들어와 읽히게 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경직해]**와 **[성경광익]** **한문본**이 그대로 먼저 들어와 읽히게 되었고, 다음에는 모두 번역되어 **한글필사본**으로 읽히게 되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700년대 초에 번역된 바세역 등 여러 개의 **중국어 성경 필사본**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필사본들도 조선에까지 전달되어**, 이벽 성조도 입수하여 읽고 [성경요지]를 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210)</sup> 또한 Laurent Imbert(1796-1839) 범주교는 바세 신부와 Mantiliat 주교가 활동하던 四川지역(목평 신학교)을 거쳐 조선에 왔으므로, 중국어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더하여, 범주교는 <바세역> 중국어 필사본 성경이나, 구입이 용이했을 **인쇄본 <모리슨역> 성경**을 조선에까지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앵베르 주교는 사천 포교지에 임명되어 1820년 3월에 파리를 떠나 **1825년 3월에 사천성에 도착하여 12년 이상을 여기에 머물렀고, 1830년에는 Moping 신학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언어와 풍속을 오래 체험하여, 중국말을 잘 하고 한문도 꽤 알았으므로, 한국어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었다.<sup>211)</sup> 앵베르 범주교에 앞서 조선에 입국한,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도, 파리 외방선교회의 선교지들을 거쳐 조선에 입국하였고, Poulo Pinang 신학교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므로, 처음으로 조선 신자들을 만나면서도 (한문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다.(cf. 달레 중 326, 348, 357). 모방 신부가 유학을 보낸 최양업과 김대건 신학생의 편지가 조신철 가롤로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전달된 것이 1837년인데, 최경환 성인이 먼저 받아서 굴암(용인 목리)의 김제준 성인에게 전달하고 있다.<sup>212)</sup>

이렇게 **중국 남쪽 마카오에서 쓴 신학생들의 편지가 조선에 사는 부모에게까지 전해지는 상황**으로 보아, 남쪽에서 필사된 바세 신부의 중국어 사본이나 <모리슨역> 출판본도 조선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천주교에 대하여 반박하는 魏源(위원 1794-1857, 道光 進士)의 <天主教考>, 1830년경의 작품도 조선에 전해져 읽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천주교고에서 위원은 <모리슨역> [수정판, 1832 馬六甲Malacca]과 **1852년의 대표본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救世主 耶穌 新遺詔書**’의 표현과 사복음서와 신약성경의 이름을 ‘**馬泰傳福音書, 馬可-, 路加-, 約翰傳 福音書, 聖徒言行傳, 聖徒 保羅寄人書十篇, 聖徒 約翰 寄人書三篇, 聖徒 耶哥伯書, 彼得羅, 猶大士書, 聖人 約翰 天啓之傳**’이라 하면서, ‘**天主重造人物之事 計自開闢 至今將六千年 自耶穌降生千有八百三十餘年-- 福音書曰 元始有道 道即上帝 萬物以道而造(요한1,1)**’이라 적고 있기 때문이다.<sup>213)</sup>

조선교구의 제 4대 주교인 **성 베르뇌(Simeon-Francois Berneux, 1814-1866)** 장주교는 **1840년 2월에 르아브르(le Havre)항을 출발하여, 6월에 마닐라를 거쳐 9월에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경리부에 머무르는 동안 김대건과 최양업 신학생에게 신학을 강의하였고,

210) cf. 18세기 연행록 기사집성,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p.521에 보면, 1790년에 진하 부사 서호수를 수행하던 박제가는 ‘우리창 서사에 갔다가 여러 줄을 등사하여 왔다.’(박제가적왕유리창서사, 등래수행.) 고 한다.

211) 白日昇神父, p. 26 ; 달레 중, p. 372.; 앵베르 주교 서한, 2011 수원교구, p. 450. -1836년 8월에 목평신학교에서 퇴임하였고, 공주 지역 사목 중 1837년 4월에 조선 대목구 부주교로 임명되어, 5월 14일에 성성되고, 1837년 8월 16일에 사천대목구를 떠났다.

212) 일성록 1839기해 8월 7일 조에, ‘금년 3월에 과친 사는 최영환(프란치스코)이 와서 서신을 전해 주었는데, [이는 조신철이 북경에서 가져왔다] 고 들었습니다. 편지가 나온 해는 이미 두 해가 지났으며, [최가의 아들(최양업) 또한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갔다 ]고 들은 것 같습니다.’ ; cf.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西學.

213) 魏源, 天主教考 上中下, 1830. - 위원은 聖武記와 海國圖志를 지었다. (cf. 오주연문장전산고, 西學; 김정희, 완당전집; 임하필기 39권, 이역죽지사 참조.); [벽위신편1]에도 위원의 천주교고가 들어 있다.

잠시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1841년에 박해를 만나 다시 마카오와 상해를 거쳐 1844년에는 만주 지방 요동으로 파견되었다. 여기서 11년간(1844-1855) 머물면서(실제로 중국에 머문 기간이 16년이다) 중국말 공부를 어떻게나 열심히 하였든지, 6개월 후에는 고백을 들으며 성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달레 하, 214- 260). 이렇게 11년간 중국선교에 힘써 중국어에 정통하였던 베르뇌 주교가 1856년에 입국할 때에는, 불가타본 이외의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 이단이 염려되는 상황이어서, 교황청의 인가가 나지 않아 천주교의 인쇄된 성경책이 없었으므로, 개신교의 인쇄된 성경 1852년 신약과 1854년 구약본을<sup>214)</sup> 참고서로 지참하여 한국에 전파하거나, 이 성경이 Petitnicolas와 Pourthie 신부가 있는 배론의 성 요셉 신학교에도 전해져, 이를 바탕으로 성경을 가르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달레 하 325참조).

1831년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대목구를 설립한 후,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국금國禁을 무릅쓰고 조선에 잠입하여 전교함에, 우리말을 배우고 읽고 쓰기에 힘썼으며, 후일 그 선교사들의 손으로 **한불사전**(일본 요코하마, 1880년)과 **한어문법**(일본 요코하마, 1881년)이 간행되었으니, -**랑그레의 <滿洲文字>**라는 소책자에 전하는 것을 보면, 1790년 재청 선교사가 **주기도문의** 만주어 역문을 랑그레에게 보냈을 때, 거기에는 漢譯文과 韓譯文도 붙어 있었다.<sup>215)</sup>

스코트랜드 장로파 선교사 **로스**와 동료 **매켄타이어**는 만주 봉천에서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옮겼고,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성서공회의 루우미스는 **이수정**에게 **한역**을 시켰으니,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와 의사 스크랜튼은 한국으로 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 요코하마에서 간행된,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얻어 가지고 왔다. --1887년 **봉천 盛京**에서 [신약전서](**원명 예수성교전서**)의 **번역 간행**을 완성하였고, 국내에서는 1900년에 성서번역국에서 [신약전서]를 번역 출판함에 이르렀으며, 1910년에는 구약전서 번역이 완성되어, 1911년에 간행되었으니,-- 앞서 들은 책자들의 **인쇄**는 **처음 요코하마에서** 하게 되었다. [한불사전]과 [한어문법]이 요코하마 레뷔 인쇄소에서, -로스의 [조선어회화]는 중국에서 출판되었으니, 근대적 **한글 활자**는 **다** **외지에서** **주조**되었던 것이다. 특히 **香港에서** **간행한 [라한사전](1891)**에서도 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모는 요코하마 레뷔인쇄소의 활자와 동일한 것 같다고 한다(소창 박사설). -구라파적 인쇄가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 16세기 말엽에서 17세기에 걸쳐 서구라파 선교사들이 극동으로 올 때 인도와 중국에 먼저 왔고, 이어서 일본에 왔던 것이다. 더욱이 일본에 온 포르투갈葡萄牙 선교사들은 일본 선교에 쓰기 위한 책자를 **九州 서남방 天草에 인쇄소**를 두고 간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일본은 일찍이 구라파적 인쇄술을 지니게끔 되었던 것이고, 명치유신 이후 근대적 인쇄술을 다시 지니게 되었다.<sup>216)</sup>

<요약정리>.이상과 같이 **중국오 성경과 우리말(한글) 성경번역의 역사**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790년경에 벌써 한문본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이를 합본한 **성경광익직해**도 번역되고, 필사본이 만들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학정의] 끝에 나오는 한신애가의 글출기 속에 ‘**성경광익직해** | 6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 함부로 성경이 출판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개신교에서는 들어오는 시초부터 체계적인

214) Thor Strandenaes, 앞의 책, p. 48-49 참조.  
 215) 홍이섭, 성경이 한국문화에 끼친 공헌, 1955. 4. 성서한국 1-1.  
 216) 홍이섭, 앞의 곳.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7년에 신약 예수성교전서가 출판되었다. 그러므로 출판된 성경이 없던 천주교에서는 1852신약, 1854구약의 대표역본이나, 1887년의 예수성교전서를 참고하면서 **진교사괘(한기근 신부역)**의 글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 천주교 신부들도 인쇄된 이 성경들을 자유롭게 참고하면서 **가톨릭청년지**에 기고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주교에서는 아직 한글번역성경의 출판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우선 **성경직학** | (성경직해광익)란 이름으로 기존의 필사본들을 정리하여 1892-1897년간에 출판하였다. 1910년에 이르러서야 천주교의 **사사성경**이 출판되었고<sup>217)</sup>, 개신교의 **개역한글판**은 1956년에 출판되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동번역**이 출판된 것은 1977년이였다.

한편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영향을 끼친 또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원의 **[천주교고(1830년경)]**와 한기근 신부의 편역으로 발간한 **[진교4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여 본다.

### 6. 天主教考(魏源작, 1830년경)

天主教考(魏源작 1830년), <패총(稗叢-奇談)>, 는 **[벽위신편1]**에 나오는 위원의 천주교고와 같은 것이다.<sup>218)</sup> 위원(魏源, 1794년 ~ 1857년)은 중국 청나라 후기의 학자이며, 道光 때의 진사로서, **聖武記**와 **해국도지**(도광 22년= 1842년, cf 이만채의 벽위편 말미에 수록)를 저술하였다. 개신교식 **십계명** 풀이가 특이한데, 이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아직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천주교고 상권에; ‘천학전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소견자가 서양 오랑케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보면, 구세주야소 신유조서(cf. 모리슨 1823본; 이환진, p. 9)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10여권이 있다’(天學全函諸書未之見也, 救世主耶穌(!) 新遺詔書用漢文譯刊凡十餘卷曰)고 하였다. 그것은 ‘**알 마태전 복음서가 제1**이고(馬太傳福音書第一), **마가전 복음서가 제2**요, **로가전 복음서가 제3**이고, **약한전 복음서가 제4**라’고 하였다. 모두 다 **야소강생행교** 영적에 관한 것이다. **성도언행전**이 제 5인데, 야소 사후 **제대 제자들이** 전교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마태, 馬可. 路加. 約翰. 聖徒言行傳.). **복음서**<sup>219)</sup> **왈 원시유도 도주상제**(cf. 요한 1장 1절), **막비상제창조**(상제가 창조하지 않은 바가 없다).

천주교고 중권에는, 천주수세위십대계 십대계자 **당중국상조시 신천강지여대국지서**  
天主垂世爲十大誠 當中國商朝時 神天降旨如大國之西  
**내산** 문재석비(天主垂世爲十大誠, 如大國之西奈山 文在石碑). - **성인마서상산수 상제지명** 장  
聖人摩西上山受上帝之命 藏在金匱(櫃).  
**재금궤**(摩西上山受上帝之命 藏在金匱(櫃)).  
在金屬

217) 강도영 마르코 신부 서한집, 2016 미리내성지, p. 40에서, 마태오 복음은 손성재, 홍병철(루카), 김문옥 신부가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안홍균의 글(성경직해 해제)을 옮겼으나, 정규하 신부도(1906. 6.23과 8.6 일 편지)마르코 복음을 번역하였고, 강도영 신부도(1906. 9. 23) 마태오 복음을 번역하여 뫼텔 주교에게 보냈으므로, 여러 신부가 나누어 번역한 것이 기초가 되어 한기근 신부가 종합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cf. 가톨릭 대사전>한기근 참조.)

218) 패총(기담과 같은 글 모음이란 뜻), 세종연구소 소장본 속에도, 양광선의 벽사론 등과 함께 들어 있다.; cf. 오주연문장전산고 西學; 김정희, 완당전집; 임하필기 39권 이역죽지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219) 1853년 상해묵해서관인, 요한 복음을 인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멋대로 인용한다.  
上海墨海書館印



천주교고 하권에는, 천학전함의 여러 책들이 사고전서에 들어있으며(天學全函諸書 四庫全書), 25언일권 명리마두찬, 천주실의이권 명리마두찬, 기인십편, -칠극칠권 명서양인 방적아찬, 우변학유독일권 명리풍두찬<sup>220)</sup>, 우교우론일권 명리풍두찬, 서학범일권 명서양인 애유략찬, 유략유 직방외기 기저연시서성우천계계해 천학초함지제일종야 소술개기국건학육 재지법 분六科.=文科 理科 醫科 法科 教科 道科, 文科如中國之小學 理科如中國之大學, -亞尼瑪之學, 위원魏源曰 西域三大教天主 佛 婆羅門, 乃降聲如德之國 勤石名西奈之山, 傳十誠, 印度上古有婆羅門事天之教, 상제초조인류시 정조일남일녀 故人各一妻 첩극무도 불가의출즉 무자 不可娶妾, 야소는 하늘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한다(耶穌自稱神天之子). 영길리는 예부터 전해진 천주교를 믿지 않으며, 영길리 백성은 목리가주 신지로 옮겨갔다(英吉利舊傳不奉天主教 英吉利民遷墨利加(America)州新地)고 한다.

<요약정리> 위원이 [천주교고]의 서두에, ‘천학전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소견자가 서양 오락케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보면, 구세주야소 신유조서(cf. 모리슨 1823본; 이환진, p. 9)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10여권이 있다’(天學全函諸書未之見也, 救世主耶穌(!) 新遺詔書用漢文譯刊凡十餘卷曰)고 하였으므로, 모리슨본 성경을 참고하였고, 복음서를 논하면서 대표본의 요한복음 1장1절 ‘원시유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은 이 글을 1830여년에 쓴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개신교의 대표본1852년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 7. 예수진교스패(1907년).

예수진교스패, 천주강생일천구백칠년 활판(대한광무십일년 명미), 감목 민와스딩 감준.<sup>221)</sup> 이책의 첫머리 <사패인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천주교는 1. 지극히 하나이요. 2. 지극히 거룩하고, 3. 지극히 공변되고, 4. 종도로조차 전하여 내려오는, 진교의 빙거와 표를 지니고 있어, [예수 진교 사패]<sup>眞教 四牌</sup>라 이름하게 되었다. <스패 셔>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1500년간에 시작하여 이제까지 300여년이 된 사브르데스당과 예수교라 모히는 집 레브 | 당이 렬교(덕국 루테루 등이 창설)임을 밝히며, 예수께서 세우신 진교는 던주성교 뿐임을 증거하고 있다.

마태복음(5), 마가복음(13,40), 루가복음(12), 요한복음(4)의 이름을 신약성경으로 밝히고 있다. 스도행전에서 맛디아와 요셉 가운데서 유다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기도하며 간택하였다고 한다.(14). 두어 사람이 유대(디명)로부터 내려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맞지 아니면 능히 구원을 엿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 | (주;바리새) 교중에 맞는 두어사람이 니러나 말하되, 다른 나라 사람을 할례를 주고 모세의 룰법을 직회라- 스도와 장로들이. <직회 |> 종도들이 예루살넴 경성에 모혀(16).

요한복음 14, 26 - 예수 가라사되, 보혜사가 곧 성신이라.(24).

53항, 마라아 | 잉터1하실 시초에 원죄업스심을 의론함이라. <구약>, 창세기 3, 14. 여호와 (던주의 별명) 상데가 배암더러 닐러 가라사되, 네가 이것을 하였으니(원조를 유감하여 범죄

220) 벽위신편1에서는 리마두라고 바르게 잡았다.

221) 1911년(명치 44년)에 중단된 진교사패는 편집겸발행인을 민 덕효로, 발행소가 경남부중현 천주당이다. 가톨릭 대사전에 의하면 한기근 신부가 1907년에 번역. 간행한 것이다.; 안홍균은 성경직해 해제(1986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뫼텔 주교에게 한기근 신부가 보낸 편지(1906.7.11.과 8월 12일)’에 의하면 성경번역에 앞서 호교서인 예수진교사패를 번역하였다고 한다.(여기서도 한문으로 야소를 잘못 표기하고 있다.)

케 함이라)

55항, <구약>요수에기 5, 13. - 요수에가(사람의 이름) 에리코(읍내 이름)에 가까이 하여 눈을 들어 한 사람을 보니(천신이 형상을 빌어 발현함이라), - 나는 여호와(천주의 별명)의 군장인고로(총령 던신이라). 창세기 19, 1.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도마(따일흠)에 니르니, 58항. <구약> 익소디 32, 13. 네 백성의 죄악을 굽어 용서하쇼셔( 이는 모이세 주의 성노 그치시기를 구하는 말). 네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쇼셔. 여호와 들으시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뉘우치니라.(던주교에서 모든 성인을 공경함).

60항 <구약> 요수에기 7,6. 요수에가 옷을 찢고(애통하는 형상이라) 저와 및 이스라엘 모든 로인들이 여호와의 궤(결약의 궤라) 앞에 부복하야.. 구약 사무엘 하기 6, 6. 오사(사람의 이름) 참람이 결약의 궤를 만지매 여호와 노하샤 그 허물을 책하샤 하여금 궤 앞에서 죽게 하시니라.(39). 신약 고린도 전서 1, 23. 바울이 가로되, 우리등은 십가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상대 권능이오 상대의 지혜니라.

71항, 교회의 성전을 의론함이라(렬교에서는 도리어 휴지와 같이 버리나니라). - 예수와 및 그 종도들의 언행을 책에 쓴 것은 성경이라 닐으고, 혹 성현들이 말로 서로 전하여 오는 것을 성전이라 닐으나니라. - 마태는 예수 승턴 후 대략 15년에 복음을 쓰고, 마가는 대략 18년에 복음을 기록하고, 루가는 대략 25년에 쓰고, 요한은 대략 65년에 복음을 책에 썼으니, 이 복음을 쓰기 전에는 다만 구전으로만 교를 전함이 분명하도다. 신약 성경을 책에 쓰기 전 60 여년동안에는 예수의 진교가 어디 있었으며, 또 종도들이 그동안에 헛되이 무삼일을 하였느뇨?

73항. 고린도 전서 11, 34. 바울이 가로되, 그 남아는 내가 어느때던지 갈때에 귀명하리라. 요한 2서 1, 12. 요한이 가로되, 내가 너희게 글을 써 보낼 것이 많으나, - 너희게 가서 면대하고 말하야(또한 요한 3서 1, 13.에 보라). <직해> 안드리아 비리버 도마 발도로메오 장야고버 마디아 들이 종신토록 전교하셨으되, 한 책도 쓰지 아니하였은즉, 그 전교하는 도리가 반드시 성전에 보존하야 있는 것이 의심이 없나니라.

성스 칠적을 의론함이라.(50)

79항, 루테로 등이 이미 이론을 창설하고 별교를 시작할새 1500년에 항상 행하고 지키던 예수의 성스칠적을 일쫓에 네다섯을 버리고, 그 보존하는 바는 소위 세례와 성찬 두 가지나, 겨우 그 이름만 보존하고 그 실상은 온전히 잃어버렸나니라.(50)

96항. 요한복음 6, 51. 이러므로 유대 사람이 서로 다토아 가로되(유데아 사람들이 오주의 말씀을 듯고 서로 의론함이라.- 유데아국 사람들은), - 인조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조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스님명이 업느니라(말씀이다지 국히 붉으니라) 낫날에 (던지 종궁날, -육신의 부활이라) 나의 살은 진나 | (진실노)(60). 령성테호는자 | 예수로 더 브러 결합, - 령혼 기르는 량식. 61상) 너희들의 조상이 먹어도 죽은 것과 같지 않고( -기묘히 먹이는 바 만나로 녀이지 말라. - 만나 식량을 먹었으되). 이로써 저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좃지 아니하더라.(61).

97항. 2. 예수1 슈난 전날 저녁에 종도들 앞에서 성례와 및 미사제례를 준명(제정)하시니라.

99항. 3. 미사성제는 보턴하에 날마다 행하나니라. <구약>말나키아서 1, 11. 만유의 주 여호와! 가로사되, 고린도 전서 10, 16. 바울이 가로되, 우리들이 축사하는 바 축사(63) 하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들이 찌르는 떡은 그리스도의 육례를 혼가지로 참여함이 아니냐!

신품성사를 의론함이라.(66).

107항. 2. 예수 친히 72위 테즈를 품에 올려 신부를 삼으시니라. <신약>루가복음 10, 1. 이후에 주(이주는 예수라) 또한 별노히 70인을 세우시고, 두사람씩 두사람씩 앞으로 보내 실새, - 샤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67).

112항. 혼배(혼배 | 성스)성사를 의론함이라.(69).

118항 5. 텃쥬 교스1 슈정하야 순 편흠이 만흐니라. -종도 바오로의 말씀(73).

121항. 8. 그런고로 나시매 평스 동정이신 마리아를 간택하샤 모친을 삼으시고 또한 줄세 동정이신 대성 요셉을 간선하샤 기르논 아버를 삼으시니, 하늘에서는 모친이 없으시고 땅에서는 부친이 없으시며, 동정성인 요안을 먼저 보내사 앞을 삼으시고, 요왕 종도를 다른이 보다 격외로 사랑하심은 그 소년으로부터 동정을 지키어 혼취하지 아님으로 불리 종도를 삼으시고, 십자가상에 계셔 동정이신 모친을 동정이신 종도 요왕에게 부탁하섯으니, 동정지키는 사람을 예수 극진히 사랑하심을 가히 알지니라.(75).

이제 텃쥬교와 예수교의 진가를 대략 변론하야 불헛시매, 마치 태양이 동편에 돋으매, 모든 희미한 것이 없어짐 같은지라. 어찌면 영미국 모든 예수교인이 다 텃쥬교에 돌아와 400년 전과 같은 목자되고, 혼우리 되여신 후에 서로 갈리지 아니하면 어찌 크게 쾌한 일이 아니리오. 나 날로 바라노라. 청컨대 스브로데스당 모든 이는 이 글로써 나를 탓하지 말진더.(77). 진교스패 중.

<요약정리> 한기근 신부가 서양의 어떤 글을 번역하여 [진교4패]로 출판해 낸 것 인지는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국천주교에서는 출판된 성경이 없었으므로, 진교사패의 글을 보면 중국성경의 대표역본(1852 신약, 1854 구약)과 로스의 예수성경전서(1887) 한글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진교사패에서 인용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루가복음, 요한복음, 스도하 강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페소서, 빌립보서, 테살로니가서, 디모테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버(보)서, 요한2서, 요한 묵시록서가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 익소디, 민수략기, 요수 에기, 사무엘 하기, 말나키아서, 마가베오 후서가 인용되었다. 여기서 확실하게 개신교의 성경에서 차용된 성경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묵시록, 창세기, 민수기략 등이다. 특이한 개신교의 용어로, 보혜사가 성신(요한 15, 26)과 함께 여호와(60항), 유대인이나 헬 나인, (할례), 시험, 바리새 등이 인용되고 있어, 개신교의 성경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진교4패]가 보급되던 이 시기(1907)를 전후로 필사 되었을, <성교요지> 나 <이벽전> 등에서 개신교의 용어가 나타난다고 하여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국어에 정통하였던 베르뇌 주교가 1856년에 입국할 때에, 불가타본 이외의 다른 성경번역으로는 이단이 염려되는 사항이어서 교황청의 인가가 나지 않아 천주교의 인쇄된 성경책이 없었으므로, 개신교의 인쇄된 성경 1852년 신약과 1854년 구약본을 참고서로 지참하여 조선에 전파하거나, 이 성경이 Petitnicolas와 Pourthie 신부가 있는 배론의 성 요셉신학교에도 전해져, 이를 바탕으로 신학생들이 성경을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달레 하 p. 325참조). 이제까지 다루어진 책 안에서 성경 이름이 변화되는 과정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도표 1. 성경 이름의 변화과정 참조.)

### V. 천주교 중요 용어의 선택과 변화과정.

1. 예수회의 중국 진출 초기에, 천주교의 용어 창출은 루지에리 신부(耶穌會 羅明堅)의 <天主聖教實錄, 1584.8.18.발행>에서 시작되었다. 뒤이어 교우론과 천주실의에서 리치는 上帝와 天上帝, 天主上帝 대신에 天主를 사용하고 있다. 上帝의 칭호는 마태오 리치부터 유교에서 가져와 사용하였으나, 중국인 예비신자 진 요한이 제단 벽에 붙인 글자를 보고 1583년부터 천주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유교의 上帝가 곧 天主임을 천주실의에서 밝히게 되었다.

2. 하느님 天主 호칭의 선택과정을 살펴보면(FR 236-각주1), ‘하늘의 주님’이라는 뜻의 天主라는 호칭은 천주교 신자들의 하느님 Deus의 한자화 된 이름이다. 중국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1704년 11월 20일에 교황 Clemens XI의 훈령(추기경회의에서 중국의례문제를 다룬 후)에 따라, 上帝나 天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天主만을 사용하게 되었다.(Latourette 1929: 140)<sup>222</sup>. 이리하여 오늘까지도, 중국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어떤 적당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느님Deus를 그대로 적기도 어려웠다. (Deus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는 문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중국어에서는 De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고, [天主教要]와 다른 책들에서도 천주라고 표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23</sup>

판토타 신부가 방자유전(1610년) 1권에서 제일 먼저, 하느님을 陡斯(두사, dou si, Deus)라고 음차하였다. 이어서 임마누엘 주니올 디아스(Emmanuel Junior Dias, 陽瑪諾 1754-1659)신부가 지은 <성경직해 제일권> 극서야소회사 양마낙역의 천주야소계리사독주 세주일성경직해(턴쥬 여수 스킴리스두 쥬일성경)에서, ‘天主는 서양 원문으로 陡斯(두사, dou si, 한글필사본=데우스)<sup>224</sup>라 하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다.’(한글본-스스로 계신자, 天主 西士原文曰 陡斯 乃天地萬物之主’).<sup>225</sup> 하였고, ‘진실노 나를 내시고 날 다스리시는 大原大主, 非釋氏諸天各一天主之謂也’(p. 1)라 하였다. 바세 신부의 영국본 22장 끝 부분에서는 아과랑지신, 의살격지신, 아각백지신(Mt.22,32)이라 하였다.

한편 요한 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성자 <말씀>에 대하여, 성경직해9권(p. 22), 야소성탄첨례, 천명지경(성 약한 제 1 편, Jn. 1, 1-14)에서는 ‘궤시물이봉기유’(=Verbum, Logos, 말씀)이라 하여, 뵤아로의 고신성경에서도 ‘기초물이봉 물이봉재동천주일혼’이라 하였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직해광의 필사본에서는 ‘니엘풍’(Verbum; 천진집111, 80,86)이라 하였다.<sup>226</sup> 바세역 로마본에서는 “당시기유언 이언재신”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모리슨은 이를 보고 ‘당시기유언 이(기)언해신’으로 거의 변화가 없게 이기 하였다. 이에 대

222) 서양자, 중국천주교 순교사, 2008 순교의맥, p. 112.

223) FR N. 246 참조.

224) 판토타 신부가 방자유전(1610년) 1권에서 제일 먼저 두사陡斯(Deus)라 하였고, Louis de Poirot(가칭태) 신부의 고신성경(1800경)에서도 두사陡斯라고 하였다.(사도행전 3, 13. /아과랍함무적두사, 의살격적두사,).

225) 민기, 한중일 가톨릭 어휘사, <한국교회사논문집 II, 1985 한국교회사연구소, p.620. - 북경 관어의 발음이 teou seu, 즉 라틴어의 Deus(提字子)는 그리스어의 Theos의 음역이라고 하였다.

226) 이 사본(정자체)은 축문에 한문이 없고, ‘축문, 여수 그리스도 아등쥬, 아멘’의 표현으로 보아, 1800년대 후반의 필사본으로 보인다. 후에 인쇄본에서는 이를 벨봄(천명경)이라 하였다.

하여 1853대표역 상제판에서는 ‘원시유도 도역상제공재’로 바꾸었고, 이 대표본이 위원의 [천주교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원시유도 도역상제 만물이도이조).  
元始有道 道與上帝 共在 萬物以道而造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天主란 칭호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에 처음으로 도착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엘 시대에는, 먼저 大日(큰 태양)로 부르다가, 다음에는 大道(하늘의 길)라 하였고, 마침내는 라틴어의 Deus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ARSI, Jap.-Sin., 105a) 일본에서 天主의 발음은 Tonxu = Tonsciu 이다. 천주의 이름이 유럽에 알려지는 해는 1585년경으로서, Modena에서 발행된 'Breve Raguaglio dell'isola del Giappone'에 들어있다.<sup>227)</sup>

耶穌(여수<sup>228)</sup>)에 대하여 성경직해에서는; 천주강생후지명이며, 譯言하면 救世者(세상을 구하는 자)이시요, 元祖가 지은 原罪로 天主大發慈悲(天主大發慈悲. 是위救世者.)하여 강생하신 구세주로 야소라 칭한다고 하였다.<sup>229)</sup> 耶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耶穌를 변함없이 쓰고 있으나, 일본의 세속의 영향 하에서는 耶穌라고 쓰지 않고 耶蘇라고 쓴다. [성교요지]에서도 耶穌를 쓰고 있으므로, 이 문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신교의 모든 글은 물론 한국의 국어사전(고전번역원과 가톨릭 대사전까지)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耶蘇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만천유고에 실려 있는 성교요지는 적어도 일제의 영향을 받지 않던 1900년 이전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耶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耶穌로 쓰고 있으나, 언제부터인지 한국개신교 측에서부터 풀 ++가 들어간 耶蘇라고 쓰기 시작하여, 우리말 사전과 천주교에서 마저 耶蘇, 耶蘇教, 耶蘇會 등으로 쓰고 있다. 日製 식민사관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계리사독契利斯督(스기리스두)에 대하여 성경직해는; 挀主 여수의 別名號이며, 譯言受油傳也(성유로 바름을 받다말), 古禮에 새로 왕을 세우거나 及聖教宗主를 세울 때 그 頂(니마의 브르나니), 여수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聖教의 大主이시다. 契利斯督이란 표현에 있어서, 契利斯督이라고 천주성교실록에서 쓰기 시작하여 판토히의 방자유전에서 費略耶穌契利斯督(1권 16)이라 하였다. 알레니의 천주강생언행기략의 천신강유영적첩견에서도 契利斯督(1권 9)이라 하였으며, 디아즈의 성경직해 1권에서도 天主耶穌契利斯督이라 하였으나, 성신강림후제 24주일의 마태 24장(8권 40)의 성경풀이에서 暗弟基利斯督기리사독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10권의 성모시태첨례지리에서 마태 1장을 시작하며 耶穌基利斯督으로 정착하고 있다(1636년경). 불리오 신부(Ludovico Buglio 1608-1682)는 <萬物始元> 제 26장에서 부터 基斯督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p.128과 223, 235에서는 基利斯督이라고 하였다.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의 장 바쎈 신부는 영국 Cambridge 대학본(화합본) 2장에서 천사(使)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救世基利斯督主者의 탄생의 福音을 알리고 있고, 이후 Cambridge 대학본 복음서에서는 모두 基利斯督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시작하여(2,36절의 메시아와 4,10절과 15, 26절에서는 아직 기리사독이라 함, 1704년경), 로마본에서는 모두다 그리스도를 基督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로마본 루가 2, 11에서 救世基督이라고 하였다. 마태 1.1, 16, 17; 16. 16, 20; 23. 10; 24. 5, 23, 24 등).

227) FR N.236-주1 참조.

228) 사학징의 말미에서 여수와 녀수라 하였다.; 한글 필사본에서는 여수와 아몬이라 하였으나, 감목 민와스당 감준, 성경직해 1권철, 1893 계스 신판에 이르러, ‘네 아들 우리쥬 예수 그리스도를 - 아멘’ 하고 있다.

229) 성호전집 제 55권, 천주실의발에서도 ‘於是天主大發慈悲. 親來救世.’라 하였다.



로마본 요한 복음서 제목을 아예 [若翰修編耶穌基督福音]이라 하고 있다.

예수회 출신의 뻘아로 신부는 아직도 主基利斯督이라고 하고 있다.(聖徒瑪竇紀的萬日晷). 그러나 <耶穌會士 陸安德 述, 善生福終正路, 1794 主教 亞立山 湯 准> (1852년 重刊 司牧 趙方濟 准)의 글에서(P. 22)는 아직도 費畧耶穌 契利斯督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30)</sup>

基利斯督에 대한 개신교의 번역을 보면, 모리슨 목사가 최초로 바제신부의 영국저본을 이용하면서, 마태오 1장 18절에서 耶穌基利士督으로 士자만 바꾸어 표현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11,17;로마1,4.6.7.8절등) 기독교로 변화되는 것도 바제신부의 영국본과 같다.<sup>231)</sup> 이에 대하여 개신교의 대표본 성경(1853년본)부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모두 基督으로 적고 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그리스도인’을 영국본에서는 基督이라 하였고, 로마본에서는 基[斯]當이라고 하였다. 모리슨은 基利士當이라 하였다.<sup>232)</sup>

3. 개신교 최초의 성경인 <모리슨역>의 하느님 호칭 번역어를 보면, <모리슨역>은 일반적으로 <바제역>을 따라 하느님을 神으로 옮겼다. 上帝나 天 으로 옮기지 않고 神으로 번역한 것은 나중에 <대표역>에서 영국계 선교사들이 上帝를 고집하여 <상제관>이 따로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계 선교사들은 神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중국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1704년 11월 20일에 교황 Clemens XI의 훈령(추기경회의-중국의례문제)에 따라 上帝나 天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天主만을 사용하게 되었다.(Latourette 1929: 140)<sup>233)</sup>.

4. 上主의 칭호는 [만천유고]의 발문에서 상주의 칭호를 2회 사용하고 있고, 성교요지의 각주에서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한 避諱피휘의 뜻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sup>234)</sup>, 천주교 신자로서 박해를 피하기 위한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황사영 백서에서는 주로 主와 天主(66행)의 칭호를 사용하나, 때로는 上主(4행의 上主赤子)의 칭호도 사용하고 있다. 정하상의 상재상서에서도, 천주와 상제, 상주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상주의 칭호는 중국어로 된 기인십편 하권에서 6회, 천주강생언행기략 2권에서 7회, 주제군정 하권에서 2회, 진도자증 2권에서 13회 등이 사용되고 있다. 徐光啓 撰의 關妄(關釋氏諸妄 1권, 1903 上海자모당활판;關妄 2권, 1904 香港 納匪肋靜院;關妄 3권)에서는 大主와 함께 上主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벽망의 한글번역본에서는 이를 모두 天主로 번역하였다.(人類猶可以傳新肉身, 而上主爲大哉乾元.)<sup>235)</sup> 耶穌會士 陸安德 述, 善生福終正路, 1794 主教 亞立山(Gouvea) 湯 准(1852년 重刊 司牧 趙方濟 准)의 글에서(P. 22)는, 費畧 耶穌 契利斯督과 함께 天主聖子, 吾主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879년에 광서주교의 인준을 받은 [신록고려주증]에서도 천주와 상주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sup>236)</sup>

230) <선생복종정로> 하권에서, 梅瑟聖人 在錫乃山(p. 5)이라고 하였다. <만물시원>에서는 西灑山이라 하였다.

231) Marshman1822본도 모리슨과 똑같이 변화를 주어, 기독교로 변환되는 것도 사도행전 2,31 이후이다. 2,31에서 모리슨은 기독교부활(마쉬만은 기리사독), 2,36에서 모리슨은 미세아(마쉬만은 영국본을 따라 기리사독), 2,38에서 영국본을 따라 야소지명으로 똑 같이 기독교를 생략하고 있다. 이후로는 모리슨이 4, 10에서 기리사독이라고 다시 쓰고 있으나, 모리슨과 마쉬만은 모두 바제 신부의 영국본을 따라 기독교라 표현하고 있다.

232) 바르나바를 巴納伯으로, 사울을 掃羅(sao lu)에서 保羅으로(행13,9) 바꾸고 있다.

233) 서양자, 중국천주교 순교사, 2008 순교의맥, p. 112.

234) 송강호, 중국어 성경번역사, p. 222 참조. - ‘어떤 성경 번역본은 상제를 음역하여 아위(야웨)나 야화화(여호와)로 번역하였다.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1975년 현대중문역본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상제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피휘하는 관습을 따라서, 상제를 상주로 번역하였다. 구약에서 ‘그의 이름은’으로 나오는 부분은 모두 야화화(여호와)로 번역하였다. 주나 상주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지교적상주’로 번역하였다.’고 한다.

235) 서광계, 벽망 2권, p. 11; 白日昇 神父, 앞의책, p. 140. 각주 412.



조선교우들의 편지에서도 **상주와 천주**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상주님과 성교회의 은총으로 대인(갑사의 주교)께서는 조선의 양들을 보살피고 칠 책임을 지셨습니다. -罪人巴斯弟央(남이관 세바스티아노)等白 上主及聖教會伏惟大老爺 領牧東羊’(1834년 말경 편지 - 달레 중 295)

<요약정리>. 이상과 같이 **상주**의 표현은 천주교에서 자주 쓰고 있으나,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서, 상주는 **상제와 천주**의 합성어로서 피휘의 뜻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해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만천유교]의 발문(2회)과 [성교요지]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이 [만천유교]등의 필사 문서를 천주교 신자가 쓴 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아직도 박해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박해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새로운 용어(박해자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상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 VI. 조선에 천주교 전파와 가차문자의 한글 표기.

1. 고려 시대에 조지(關里吉思, 기와르기스, Georgius)는 1299년에 고려 정동행성의 평장정사로 부임해 와서 개경에서 2년간 살았고, 그의 행적이 조선 세종(1430년 12월 2일)때에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가 고려에서 행했던 일련의 조치에는 그리스도교의 색채가 가미되어 있었다. 택당집에 의하면, ‘**허균이 비로소 천주교의 책을 얻어 학습하며 말하되, “하늘은 성인보다 한 등이 높으니, 나는 하늘을 따르고 감히 성인을 따르지 않겠다.”**’ 하였으니, 이미 그 조짐이 드러난 것이다.’ 하였다.<sup>237)</sup>

조선에 천주교가 유입된 경로에 대하여, 다블뤼 주교는 조선천주교사 비망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천진암강학(1779년)이 있기 전 200년경부터 천주교가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호가 성호이고 이가환의 종조부인 **이익도** 자신의 글에서 천주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천주교인들의 신(神)은 **유생들의 상제(上帝)**와 다를 바 없고 천당과 지옥은 Foë (불교?)교리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름이 **약용인 정 요한**은 천주교가 조선에 알려진 것이 이벽의 저 강학 (李燦 講學, **les conférences de Ni Pieki**)이 있기 200여 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지충의 공술 내용에, ‘실행할 것은 십계와 칠극에 포함되어 있다’ 고 하면서 십계와 칠극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윤지충은 김범우의 집에서 빌린 **천주실의와 칠극**을 빌어서 **시골집에 돌아와 베꼈다**. 윤지충은 이벽의 경우처럼 집안의 전염병을 내세워 어머니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도록 하였고, 주교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열성적이였다.<sup>238)</sup>

정묘 무신년(1788)에 홍낙안의 대책에 의하면, ‘을사년(1785) 봄과 작년(1787) 여름에는 **호우일대(내포)**가 거의 **집집마다 성경을 외고 전하며, 한문으로 된 글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베껴써서** 아래로 부인네와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그 후 좌상 채제공에게 올린 글에서는, ‘전에는 작은 글씨로 써서 깊이 뽕뽕 숨겨두었던 책들이 이제는 **버젓이 간행되어 경향에 반포되고,**’ 하였다. 정조가 지은 홍채전서 가운데에는 사학을 배척하는 교서가 있는데, “**서양의 서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벌써 수백 년이 되었다.** 이

236) 이[신록고려주증]에서는 이(벽)덕조를 배교자로 치부하고 있다.; 1900년에 상해자모당활판으로 간행된 강남 대목 姚 准의 [고려치명사략] 글에서도, 이벽과 이승훈을 배교자로 서술하고 있다.

237)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서학 조 참조.; 김시준역 벽위편, 108 - 114.

238) 달레 상, p. 345-349.

것으로도 구입해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상 **충문공(이이명 1720년)**이 **연경에 갔을 때**, 서양사람 소림대(퇴글러와 사울레스 신부)와 왕복하면서 그들의 교법에 대한 서적을 구해보고는 말하기를, ‘천주학은 하느님을 대하느니, 본성을 회복하느니 하여, 애당초 **우리 유학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 불교와는 같이 말할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sup>239)</sup> 1791년에도 홍낙안의 상소에, ‘또한 요서가 집집마다 간수되는 모양이고 **번역 등서만 할 뿐 아니라, 또한 인쇄한 책자까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였다.<sup>240)</sup>

**이만수의 토역반교문에**, ‘이승훈은 중국에 따라가서 사서를 구입하여 왔고, 양당에 들어가서 외국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더라. 정약중은 온 가족이 모두 물들어 구별하기 어려우며, **권철신의 한 마을이 모두 침혹하였으니**, 모두 일가친척이었도다. -**이가환은** 두 분 성상의 넓은 은혜를 입었고, 외람되게도 2품 벼슬에까지 올랐도다. -지휘하고 배포하는 실제의 주장은 역적 생질인 이승훈이 했고, **번역하고 등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은 생사를 같이하는 친구인 이벽이 했더라**. 당대의 오랑캐 종자는 모두 그 제자요, 사방에서 도망친 무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삼고 은연중 괴수 노릇을 했도다.’(cf.김시준역,벽위편,p 250-251).

기해박해 때에도, ‘옥사를 다스릴 때 **사학의 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는 없는 것이 없었으며, 의술이나 농업에 관한 것도 있었다 한다. -순교할 때는 반드시 **취소마니(241)** 만 부를 뿐, 조금도 소리 내어 우는 법이 없다. -목석과 같이 해서 그 독하기가 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sup>242)</sup>

2. 그러므로 천진암강학 때 이미 **한문으로 번역 필사된 성경과 기도문들이 만주를 거쳐**, 조선을 왕래하던 사신단이나 상인들 편에 들어와 읽혀질 수도 있었으니, **랑그레의 <滿洲文字>**라는 **소책자**에 전하는 것을 보면, '1790년 재청 선교사가 **주기도문의 만주어** 역문을 랑그레에게 보냈을 때, 거기에는 **漢譯文과 韓譯文**도 붙어 있었다.'<sup>243)</sup> 하였다.

또한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천진암강학 이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난 선조(先朝) 무인년(1758 영조 34)에 황해도 지방에서 사학(邪學)이 생겨 거의 집집마다, 사람마다 사당을 허물고, **제사를 폐지하는 등 황해도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그 신도가 많아져** 중외가 자못 두려워하고 의심스러워했으나, 선조께서는 일찍이 연석에서나 율음 가운데 조금도 개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없어지는 것으로 넘겨버렸다. 그때 한 연신(筵臣)이 그 일을 조사하기를 청하자, 그때야 비로소 어사를 보내 조사해 다스리게 하시되, 단지 앞장서 말한 자 한 사람을 죽이게 하였을 따름이었다.’<sup>244)</sup> 이는 아직 제사를 금지하지 않던 마태오 리치의 적응주의적(보유론적)인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사를 폐지하는 동방교회가 조선에 유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유대교, 동방정교, 루터교를 제외한 개신교의 십계명은 천주교의 성 아우구스티노의 분류법과 다른 구분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선암의 십계명**가는 [친학초함] 만으로는 아직 천주교의 십계명을 모르던 시절에, 만주 지역과 황해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동방교회의 십계명에 관한 글을 보고 십계명가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39)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서학 조 참조.

240) 김시준역 벽위편, p. 146.

241) 耶자를 取자로 읽은 것으로, 취소마니는 예수와 어머니를 잘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이며, 병인 박해시에도

일반인들은 **여수머리**(여수와 마리아)로 알아듣기도 하였다.

242)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서학 조 참조.

243) 홍이섭, 성경이 한국문화에 끼친 공헌, 1955. 4. 성서한국 1-1.

244) 정조실록, 1791. 11. 6.; 일성록, 1791. 11. 6.; 김시준역, 벽위편, p. 162.

稗叢(패총) 가운데 1830 여년에 魏源이 쓴 [天主教考中]에는, 天主垂世爲十大誠 이라하였는데, 西奈山에서 摩西성인에게 石碑에 새겨 주셨다. 이후 십계명의 분류는 개신교와 같아서, 1계부터 4계까지 以上四誠皆屬敬天이라 하였고, 以下六條乃及五常이라고 하였다.<sup>245)</sup>

벽위편에 ‘4. 정미 1785년 반회사건’ 중에서, 거상 중의 신 이기경의 상소(11월 13일)에서, ‘ 을사 1785년 봄에 사학금령이 내린 뒤로 승훈이 책을 불태웠다 하여서, 모두 태우고 남음이 없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정미 1787년 10월 계---어떤 날 승훈이 [등본], [진도], [자증]을 팔소매에 넣고 왔습니다.--- 한 열흘 뒤에 승훈, 약용, (강)이원이 성균관에 가서 공부할 때, “모임에 가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 시험제목이 걸려나오기를 [漢粉楡社]였습니다. 승훈이 말하기를, <천주학을 하는 사람은 천주 외의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으며, 그뿐만 아니라 비록 이런 것에 대한 글자도 작성하면 이것 또한 큰 죄라=爲天主之學 天主之外不祭他神 非但不祭他神 雖作此等文字 亦是大罪云>하므로---’ 하며, 1계명(개신교의 2계명 포함)에 따라 제사에 대하여 언급조차도 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구베아 주교의 조상제사금령이 전달되기 전에도 이미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선암의 십계명가와 함께 이승훈도 이미 개신교식의 우상 숭배 금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sup>246)</sup>

‘갑진1784년 4월 15일에 만형수의 기제(忌祭)를 지내고 나서 우리 형제와 이덕조(李德操)가 한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올 적에- 서울에 와서 또 덕조를 찾아가 《실의(實義)》와 《칠극(七克)》 등 몇 권의 책을 보고는 비로소 마음이 혼연히 서교(西敎)에 쏠렸으나, 이때는 제사지내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다.(而此時無廢祭之設). -後世必有知其心者矣<sup>247)</sup>

3. 파리의방선교회 선교사들보다 조금 먼저 조선에 입국하여(1834), 중국어로 된 성모송을 조선어로 음역한 유 파치피코 신부의 성모송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Da una lettera cinese del P. Pacifico Ju, L' Ave Maria in Coreana.  
<야우 마리아, 만피 에라지야자, 주여이히어 녀중이위찬미, 이트1즈여수, 병위찬미,  
( 亞物 瑪利亞, 滿被 額辣濟亞者, 主與爾偕焉 女中爾爲讚美, 爾胎子耶穌, 並爲讚美,  
턴쥬성모마리아, 위아등죄인, 금기턴주, (지?)아등사후 아든. >  
天主聖母瑪利亞, 爲我等罪人, 今祈天主, 及我等死候 阿們.<sup>248)</sup>

耶穌(여수)에대하여 성경직해에서는; 천주강생후지명이며, 譯言하면 救世者(세상을 구하는자)이시요, 元祖가 지은 原罪로 천주대발자비(天主大發慈悲. 是위救世자.)하여 강생하신 구세주로 야소라 칭한다고 하였다. 耶穌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천주성교실록 이후 처음부터 지

245) 벽위신편 1에도 천주교고가 똑같이 들어 있다.

246) 벽위편, 초토신 이기경 상소 11월 13일; 김시준역, 벽위편, p. 154-155.

247) 다산 시문집 15권, 선중씨 묘지명.

248) 유 파치피코 신부의 편지, 홍콩 1847년 6월 19일(최승룡신부 제공)- 'Dopo il mio ritorno dalla Corea, all'anno 1839 i cristiani venisero scoperti; un vescovo e due missionari Europei furono presi e massacrati, due cento e piu' fedeli perdettero la vita, diversi in poi la persecuzione ha continuato, ogni anno abbiamo dei martiri. Anno dopo venne catturato un missionario di cognome Kao(김대건?), che meco entro' nella Corea chierico, ed ordinato sacerdote vi entro' di nuovo, con cui furono presi otto cristiani, tutti furono versi? ancora in carcere. Appena giunte le tre navi da guerra francesi, vennero martirizzati. Il vescovo coll'ammiraglio finissero un ultimatum al Re della Corea, nell quale concludevano, che il seguente anno ritornerebbero a prendere la risposta?' ; 主教 類斯田 准, 揀言要理, 1873 增刊, p. 2.; 육안덕 찬,선생복종정로하권, 1794 탕아립산 준(1852 중간, 사목 조방제 준), p.21하 참조.

금까지 耶穌를 변함없이 쓰고 있으나, 일본의 영향 하에서는 耶穌라고 쓰지 않고 耶蘇라고 쓴다. **성교요지에서도 耶穌를 쓰고 있으므로, 이 문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耶穌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천주교창립 때부터 여수라고 표기하여 사학징의에서도 ‘여수, 녀수’라 하였으나, 1800년대 중반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의 지침으로 **예수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신교의 모든 글은 물론 한국의 국어사전(고전번역원과 **가톨릭 대사전**까지)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耶蘇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만천유고에 실려 있는 성교요지는 적어도 일제의 영향을 받지 않던 1900년 이전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말로 **아멘과 아믄**을 중국어로 표기함에 있어, 처음 라명견역본에서는 亞明이라 하였고, 이마두역본에서는 亞孟이라 하였다. 성경직해광익 제 일권 상편, 여수성탄전제일 주일부터 삼왕르 | 도후데오주일까지 한 사람의 필사자가 <아믄>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직해광익 제 이권 하편의 삼왕르 | 도후데눅주일부터 봉즈 | 전데이주일까지는 필사자의 글씨체(정자체)가 다르고, 당무지구의 축문에서 <아멘>이라고 끝맺고 있다.(천진암성지 자료집 114권). 성경직해광익 주세첨례 테구권에서도 필사자에 따라서 아멘과 아믄으로 표기하고 있다.(천진암성지 자료집 116권). 이러한 현상은 한국초기교회에서 용어의 통일을 이룰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차된(Transliteration) 한문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필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였음을 나타낸다. 영국 Cambridge 대학에 있는 Jean Basset의 필사본에서는 아직도 亞孟이라고 하였으나, 로마Casanatese 도서관에 있는 Jean Basset의 필사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필레몬서 25절 등에 이르는 말미에서 **阿孟**이라고 표기하였다. 바세역 영국본에서 아멘을 발견하지 못한 모리슨은 그 역본(1823)에서 口亞口門이라 하였고,<sup>249)</sup> 유 빠치피코 신부는 **阿們**이라<sup>250)</sup> 하여 현재까지 이름으로써, 아멘의 중국어 표기가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1700년대에 번역되어 1800년대 초중반에 필사되었을 [성경직해광익] 한글본의 성모승천 첨례성경에서 가차문자를 보면, ‘엇디 **에사오**를 보디 못하였나냐’하면서 **에쇠**라고 하지 않아 현대적 표기법이 1700년대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51)</sup> 11월 3일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의 경우에는, ‘**성 바아랑시스구 사베뤼와 성 이나쉬**로 표현하고 있다.(천진암성지자료집 111권, p. 266, 268.)

신유박해시 ‘윤현의 집에서 압수된 **한글본 [성년광익]**은 명도회가 설립된 1797년 이후에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이 사학징의 부록에, 1801년 당시 신자들에게서 압수하여 불태운 서적 목록에 들어 있다. 이 책은 이승훈이 1784년에 가져왔고, 이벽과 이가환의 토론을 거쳐, 한글로 번역되어 일반 신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였다.<sup>252)</sup> 1700년대 말에 번역되어, 신유박해시에 압수되었던 한글본 성년광익에서도, 현대적인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성년광익 I] 춘계 제 이편의 목록에서 ‘십구일성**어서비오**주교, 일이일 성나

249) 개신교의 성경에서 아멘을 표기한 과정을 보면, 모리슨이 口亞口門이라고 표기한 이후, 1852년 대표역본에서는 아멘을 찾아 볼 수 없고, 1886년 양경비 목사의 신약전서에서 입구자가 빠진 **아믄**으로 표기되고 있다.

250) **아믄**으로 표기된, 천진암성지에 보관중인 한글 필사본(성경직해광익)의 필준자를 앙베르 범주교로 추정할 수 있다. 앙베르 주교가 중국 목평 신학교 등에서 12년 이상 머물러 중국어를 잘 알고 있었고, 모리슨 인쇄역본 성경을 지참하고 들어와(1836), 한글 필사자들에게 아맹이 아니라 아믄 표기를 보여주면서 보다 가까운 음을 확인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251) 성경직해광익, 성모승천첨례성경, <천진암성지자료집 113권>, p.325.

252) 황사영 백서, 47행; 방상근, 성년광익의 서지 연구, <성년광익>, 2014 한국교회사연구소, p. 14-15 참조.

사로현슈'라 하였고(p. 258)<sup>253</sup>, 본문에서도 그대로 **어서비오와 나사로**로 표현하고 있다.(p. 321, 332). 성년광의 I 하계 제 4편 10일에서 마카리오 주교를 본문에서는 마가되로 썼으나, 명단에서는 **마가리오**로 풀어쓰고 있고(성년광의 영인본 I, p. 650, 692; 11일의 레오 교종은 **로게(레오)**로 썼다.). 제 오편 5일에서 성 비오 교종 제오위를 명단과 본문 (p. 775, 796)에서 모두 **비오**로 쓰고 있다. 성년광의 한글본 추계 제 7편 에서도 '십일일 성비오 교종 데칠(일)위 치명'에서 **빅**로 쓰지 않고 그대로 현재의 표현대로 **비오**로 쓰고 있다.<sup>254</sup> 추계 제팔편에서, 십사일 성 **어세비오**(에우세비오)탁덕치명이라고 기록하면서, 명단에서 어세되라하지 않고 어세비오로 현대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어스비오**라고 썼다.(p. 264, 312). 추계 제구편에서, 일일성**어디디오**(에지디오)현슈라고 명단과 본문에서 어디되라고 하지 않았다.(p. 397, 399). 이십일 성**어스나키오**(에우스타키오) 치명에서도, 명단과 본문 모두에서 **어스나되**라 하지 않았다.(p. 398, 469) 동계 제십이편 십륙일 성**에세비오** 주교 치명에서도 명단과 본문 모두에서 **에세되**라 하지 않았다.(p. 910, 971).

이러한 전통은 그 후대에도 이어져, **성교감략, 1883년 블랑 부주교 감준의 2권에**서, **교종 데스위 인노성시오(80), 니코나오 대덕신부(82), 성 방지거 사베리오 예수회스(86), 성 원선시오회(99) 등의 현대적 표기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sup>255</sup>

1895 을미년에 간행된 치명일기에서는, 598. 김그레고되, 624. 박 암보로쇠의 경우 등과 같이 대부분 한 글자로 붙여쓰고 있으나, 223. 손 니코나오 와 444. 홍 다니스나오, 622. 김 비오의 경우에는 그대로 풀어서 쓰고 있어, 1800 년대에도 **현대적인 철자법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7년에 감목 민와스당 감준으로 발행된 [일과절요]의련옥도문에서, 성 **마토끼**라 하면서도 성 **니코나오**는 (p.63) 풀어서 쓰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1900년에 민와스당 감준으로 발행된 [틴주성교공과]의련옥도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성 **마토끼**라 하면서도 성 **니코나오**는 (p.62) 풀어서 쓰고 있다. 성 **제르바시오**와 성 **쁘로다시오**의 경우에는 성 **열왜(熱爾瓦削 제르바시오)**와 성 **보드(玻羅大削 뿌로다시오)** 라고 하였다.(p. 63; 경향잡지 1920, p. 56 참조)

5. **경향신문의 별지 부록으로 발간된 보감** (1906년) 은 처음부터 현대적인 풀어쓰기를 하고 있어, 대한성교사기 첫 면(p. 6)에서만 **아오스딩과 그레고리오**를 9회나 현대적 표기법으로 풀어서 쓰고 있다. 이같이 보감은 처음부터 벌써 **아오스딩과 그레고리오, 안스도니오와 원선시오, 암보로시오, 방지거사베리오, 바오로, 알노이시오, 비오, 스타니스라오**를 현대적 표기법으로 쓰고 있어, 1900년대 초반에 이미 현대의 표기법이 나오므로, 글자를 음절별로 나누어 쓰는 현대 표기법 사용 년대를 반드시 1920-1930년 이후로 특정할 수 없다.(cf. 쟁점연구, 297)

또한 천주강생 1907년(대한광무 11년 덩미)에 활판본으로 간행된 [예수진교스패]에서도 현대적인 표기법과 **개신교의 성경 용어가 상당하게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오로, 아오스딩, 그레고리오** 등이 현대적 표기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성경의 이름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루가복음, 요한복음, 스도흐 강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페소, 빌립보, 테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버(보)서, 요한2서, 목시록서(요한**

253) 예수진교사패, p. 37에서, '나사로를 내 부친의 집에 보내쇼셔.' 하였다.  
 254) 성년광의 영인본 II, p. 15, 134, 174.  
 255) 성교감략, 1883 블랑 부주교 감준, 권이 참조. ; 성교감략, 1897년 민 와스당 감준.에서도 **인노성시오, 방지거 사베리오와 원선시오**로 현대적으로 똑같이 풀어서 쓰고 있다.(p.80, 86, 89, 99).

목시룩)의 신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경으로는 창세기, 익소디, 민수약기, 요수에, 사무엘 하기, 말라키아서, 마가베오 후서 등이 인용되고 있다. 유대, (할례), 바리스 ], 보혜사가 곧 성신, 시험에 들지 아니키를, 여호와(천주의 별명, 요수에기5), 유대인이나 헬나인이나 그리스도는 상데 권능이오(1Cor.1)란 표현도 모두 당시 개신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개신교의 대표본 성경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56)</sup>

6. 경향잡지 1920년 p. 570(성인호 2적 목록)을 보면, 성아나타시오, 성비오, 성스타니슬라오, 성그레고리오, 성에비파니오, 성네레오, 성아길네오, 성방그라시오(p,374 본문에서는 성방그라쇠), 성보니파시오(p, 419 본문에서는 성보니파쇠), 성바고미오, 성베난시오 등, 모두 현대적인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탁덕 한바로 역주 四史聖經(1922년판을 참함)에서도, 한바로와 민와스딩과 같이 아직도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니벽전]에서는 ‘덩유 덩아오스딩서우등서정이라’ 하였고, [유한당언행실록]에서는, ‘경자납월 덩아우스딩 서우슈표’라 하였고, [한글본 성교요지]에서는 ‘임신년 덩아오스딩 등서우약현서실’이라고 하였다. 이런 사본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1900년대를 전후로 한, 1897정유년에 [니벽전]을 필사하고, 1920경자년에 [유한당 언행실록]을, 1932임신년에 한글본 [성교요지]를 필사하였다고 여겨진다. [만천유교]에는 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년대를 알 수 없으나, 한글본 성교요지(1932년)의 모본으로서 이보다 일찍 필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필사본에 나오는 '덩아(우)오스딩'은 한국천주교회의 창립과 이벽에 대하여 페낭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페낭신학교 역사교과서 참조), 초기교회의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1900년대를 전후한 이시기를 살았던, 정규하(1863 - 1943) 신부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정규하 신부는 영세대장 등에서 와스딩이라고 자신의 본명을 쓰면서도, 라틴어의 S. Augustinus를 알고 있었기에 [유한당 언행실록]에서는 무의식 중에 아우스딩이라고(라틴어의 발음을 모르면서 아우스딩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표현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sup>257)</sup>

당시에 이 문서를 공공연하게 발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장상들인 파리의방선교회의 주교와 신부들이 모두 이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 내지는 배교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천주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파리의방선교회의 선교사들 덕분임(서구우월주의와 민족주의)을 내세우려는 당시의 분위기였고, 그래서 기해박해(1839) 때부터 순교한 외방 선교사를 포함한 순교자들 82명의 시복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선교보호권(Patronatum, Padroado, Patronato)의 영향으로, 성경과 미살경전이 다 번역되었으나 인쇄,출판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교회 내에서도 민족주의로 인하여 자국을 우선하고, 자신의 수도회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교회 내에서 마저 나타나는 서구우월주의와 식민주의 역사관이다).

7. 또한 漢字의 경우에는, 음차문자의 표기법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본 [천주실의]<sup>258)</sup>에서는, 한글로 필사하면서 Augustinus 성인을 奧樞斯梯諾(오오사제낙 - 천주실의 상권, 1편)으로 쓰고 있어,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한문 그대로

256) 필자는 1853년 간행 신약과 1865년본 구약 성경을 참고하였으나, 이것은 1852년에 발행된 신약과 1854년에 발행된 구약성경 대표역본(Delgates' Version)의 중간본으로 보인다.

257) 한국천주교회창설주역의 천주신앙 3권, 2013 수원교구, 139 참조.

258) 천주실의 턴주실의, 한국교회사 연구 자료집 4/5, 1972 한국교회사연구소, p. 373.



로 옮겨 쓰면서도, 奧悟斯諾 이라고 표기함으로써 悌를 잘못하여 탈자 하고 있다. 그 다음 [영언여작]에서는 亞吾斯丁으로 변화하였고, 황사영 백서에서(43행)는 디아즈의 성경직해(1636 -진복팔단 풀이)와 알레니의 천주강생인의(상20)와 같이 奧斯定이라고 쓰고 있다. 1654년에 발행된 초성학요에서는 聖奧定이라고 하였다.<sup>259)</sup> 브르기애르 소주교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던 유진길의 경우에는 奧斯定과 亞悟斯丁이라고 번갈아 가며 적고 있다. (달래 중, 285 각주 2, 302 각주 23, 304 각주 27, 310 각주 39). 현재 중국에서는 聖思定(奧思定) 이라고 쓰고 있다. 한글의 경우에도, 필사본 [신명초하 3] 예수부활, 기도와 성체 부분에서, ‘성 **와스디노**’라고 표기하고 있다. (천진집 113권, p. 170, 203.) 성경직해광의, 예수성명성경에서는 ‘**와스징과 와승징**’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천진집 111권, 133,137.)

8.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세례명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아예 호적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인 신부들의 이름에, 83번째 양기섭 베드로 신부(1905-1982)는 [가톨릭청년]이 1933년 6월에 창간되었을 때, 梁 彼得이란 필명으로 <비오 11세와 출판물>을 썼으나, 다음 호부터는 梁基涉이란 실명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88번째 김 彼得(1907-1954) 베드로 신부는 황해도 풍천 출신으로, 11세에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에 입학한 후 1930년에 서품을 받았다. 그는 1930년대에 金 彼得이란 이름으로 [가톨릭 청년]에 많은 글을 쓰며 활동하였다(1934년 5월호에 [천국의 존재]를 시작으로, 1935년 3월,4월,5월,9월,10월호 등). 82번째 이복영(1905 -1958) 요셉 신부의 [이스라엘은 어디로]란 제목의 가톨릭청년 1935년 8월호 글에서는, ‘예호아(天主)<sup>260)</sup>의 간선하신 백성 유대민족(猶太民族)은 구세주 예수를 학살한 죄벌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어, 1900년대를 전후하여서, (즉 만천유고 등에 관한 문헌들이 필사되던 시기에도,) 천주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개신교의 용어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61)</sup> 이는 당시의 천주교 신부들이 인쇄된 개신교의 성경을 읽고 참조하여, 개신교의 용어들도 천주교회에서 사용하였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경교로부터 한글성경에** 이르기까지 번역된 중요한 **용어의 변화 과정**을 도표로 정리해 본다. (부록; **도표 2** 참조).

## VII. 결 론.

1. 서안에서 1625년에 발견된 경교비는, ‘唐 建中 2년 1월 7일 (양력 781년 2월 4일) **일요일 아침에 광자의가 새긴**’ 것으로, 중국어와 시리아어로 7-8세기 경교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70여명의 서양 선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이 비문에 새겨진 중요한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미시가彌施訶로, 삼위일체를 아삼일我三一, 천사를 神天, 동정녀를 室女, 동로마를 大秦, 페르시아를 波斯, 유다국을 大猷(猷大를 잘못하여 거꾸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성령을 淨風으로 표현하였고, 신약성경 27권을 말하고 있다. 1908년에 돈황에서 발견된 경교문헌에는, **성서가** 정정Jing Jing 이라는 사람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이 문헌들은 모두 가죽함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곧 아라본(알로펜)이 가지고 들어온 530권의 기록한

259) 極西 利類思 譯義, 超性學要, 順治甲午(1654)孟春, 北京 天主堂梓行 권1, p. 34 - 여기서 성 토마스는 聖多瑪師(p.31)라고 하였다.

260) 예수 진교 사패, p. 35에서, 창세기 삼장 십사절, ‘여호와(턴주의 별명) 상대가 배암다려 닐러’ 하였다.

261) 성년광익I<영인본>, p.459에서 **나자렛**이라 하였으나, 가톨릭청년 1933. 10월호 15, 17쪽, 빠리 외방선교회 송세홍 신부의 글에서는 **나사렛**이라 하였다.

책 가운데서, 그가 번역한 30 여권 속에는 창세기, 모세오경(또는 출애굽기), 시편,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지금 전하지 않는 이 번역서들은 아마도 돈황의 어느 동굴에 묻혀있을 것으로, 중국인 왕웨이환 Wang Weifan 목사는 추측했다. 그러므로 경교도들이 성경을 전부, 또는 일부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 북경에서 40 마일 떨어진 한 十字寺 터에서, 960년과 1365년 1월 23일에 조각된 돌들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에 7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중국인들이 알고 있던 세례명이 나타났는데, 愛薛(애설=예수=요수아), 盧伽, 保祿과 寶路, 玉函(요한 瑜罕難, 主(注, 亦)安), 雅琥(야고보), Sergio 薩吉思, Carlo 徹里, Giulio 伊曉?, Zosimo 藥失謨, Giorgio 關里吉思 등이다. 한국천주교회 초기 신자들은 [성경직해], 성모영보첨례의 내용을 읽고 경교에 대하여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하상의 상재상서에서도, ‘손권의 동오시대 적오년간에 이르러 쇠로 만든 십자가를 얻었고, 당나라 정관 9년에는 경교가 크게 다루어졌습니다.’하였다.

프란치스코회의 몬테 코르비노 주교는 1300년대에 위그르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였고, 소년들을 시켜 시편과 성무일도, 성가를 필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첫째 성당과 둘째 성당에서 신부 대신 성무일도를 바치게 하였다. 58세가 된 그는 이미 달단어(蓬鞞語:타타르어)와 문학을 배웠고, 달단어로 신약성서 전권과 구약의 시편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예수회가 중국에 진출한 이후 처음 책으로 출간한 루지에리 신부(耶穌會 羅明堅)의 <천주성교실록>(1584)에서, 중요한 교리용어와 내용이 이미 확립되었다. 예를 들면, 天主 파덕룩 비약 사피리다 삼다, 구세자 야소 계리사독, 성모 마리아 실녀, 십계, 영혼, 승천당, 유일천주제작 건곤인물, 천지만물지주(1) 등이다. 후에 마태오 리치가 펴내는 천주실의 등의 용어와 내용은 이 성교실록에서 비롯된 것이다.

리치 신부가 처음으로 펴낸 교우론이 우리나라에까지 널리 읽혀진 사실을 살펴보면, [이벽전]에서 이벽 성조가 **홍군사로부터 [천학전함]을 전수하여** 천학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벽이 홍대용에게서 한문서학서들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대용은 노론쪽 인물이고 이벽과 그의 집안은 남인에 속하기 때문이다.’(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의 천주신앙 I, 천주교수원교구 시복시성위원회, 2011, 157쪽) 하며, 남인과 노론의 교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쟁점연구 374), 앞에서 이벽과 홍대용의 교류 가능성을 충분히 논증하였다. 노론 집안의 김건순 순교자도 제사문제로 권철신과 교류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천주교 신자로서 순교하기까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과를 넘어서는 교류의 현상은 이제까지의 연행일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홍대용의 부연사행**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박제가의 사도시 ‘이벽을 추모함’에서도, “크나큰 온 宇宙, 天上天下를 가슴 속에 모두 품고 함께 보며, 胸中大璣衡 홍중대기형, 東西南北 온 누리에 홀로 외로이 드높은 境地에까지 올랐도다. 四海一孤詣 사해일고예” 하며, 이벽이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읊고 있다. 또한 [성교요지]는 그 서술 방법에 있어 [교우론]과 같은 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교우론의 56장처럼 작은 글자체로 부기를 하고 있고, 교우론의 98, 99, 100장에서와 같이 **가차(假借)문자**로 쓴 서양말 등,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교요지는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교우론]을 많이 반영한 작품으로 보인다.

[방자유전]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두사로**, 예수님의 **파사괘지레(과월절)**, 복음을 **액**

만일락으로 표현하는 등 가차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성교요지 5장의 ‘모씨슬쳐’란 표현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모씨마리아, 마리아씨’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자경문]에서도 시몬씨를 백다룩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曰西滿氏 西滿見主 改伯多祿)(15). 천주강생인의 하권 제 10장에서, 공자를 공씨로 칭하듯, 당시의 “-씨”란 표현이 지금의 ‘여보게! 차씨, 윤씨!’ 등과 같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존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직해] 잡사지목록에는 천주, 천주삼위일체, 천주성부로부터 사후, 심판, 천당, 지옥까지 145개 항목의 천주교 용어가 정리되어 있다. 한국교회 안팎에서 천주를 두사라 부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에완여퇴(복음서)를 기록한 성사를 하나는 若翰(요안) 성인이요, 하나는 瑪竇(마두) 성인이요, 하나는 路嘉(루사가) 성인이요, 하나는 瑪爾譚(말구) 성인으로 4사위라고 한다.(7) 삼왕래조후 제3주일을 보면, 성경직해에는 구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창세기의 내용중, 아담과 하와(亞當(아당)厄穢(악탈), 노아의 주(諾厄造舟)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성교요지 1장-2장 참조). 입야소성명침례에서, 할손지례를 언급함과 동시에, 잠에서는 할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 문헌에서 할손과 할례라는 신조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 문화권에서 이 용어들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용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할례의 용어는 만물시원에서도 계속된다.

성교요지 제1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未生民來 前有上帝’는 [사자경문]의 ‘미유천지 선유천주’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6일창조(六日造(=乃備))(p.2)와 화성인조(化成人祖)(4)는 성교요지 1장의 설명과 같다. 할례를 할체로 잘 못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성교요지 10장에서는 할육이라 하였고, 주에서는 육할례라 하였다. [성경직해] 야소성명침례에서도 할례라 하여 할례가 천주교의 고유 용어임이 확인되었다. ‘三王來朝 異星顯示’는 성교요지 5장의 ‘동계우사 군광성광야’를 연상케 한다. 성경직해에서 교황, 살책이, 탁덕을 사자경문에서는 ‘立教化皇 命比斯坡 授爾鐸德 數萬風波 救我靈魂 永保眞福(32)’이라 하면서 성교요지 30장에서 한서(추위와 더위)를 불문하고 오직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사(전도지교사)들을 지칭하는 것 같다. 4자 운을 맞추기 위하여 살격랄맹다를 줄쳐서 살자를 생략 ‘격랄맹다’ 하였듯이, 성교요지 2장의 구전아백은, 천주강생인의 상권 6의 아백이와 바세역본의 아백이를 운을 맞추기 위해 아백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십계명을 준수하면, “살아서는 성인이요 죽어서는 천신이라(生爲聖人 死同天神)”를 [천주공경가]에서는, 그 반대로 ‘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고 하였다.

[천주강생인의]에서, 천주를 진주와 대주, 조물주, 상주라 표현하고 있다. 성교요지 제 2장의 ‘거칠종팔’과 관련하여, 옛 성인 낙액(노아) 때에 천주의 명으로 큰 배를 지었고, 40주야의 홍수 시에 낙액의 가족 8인이 그 배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서 아백이(Abel)와 액낙(노아)등을 기록하면서, 낙액을 액낙으로 바꾸기도 한다. 예수회의 전통에 따라, 진계리사독.(14). 야소견 발리새아(바리사이, 발리새아학사 여당시사교배), 칭위마노액이(Immanuel), 가리룩아(갈릴레아), 고성 엽룩미아(예레미아), 액즉기액(에제키엘, 601년), 미격아(미케아, 746년), 잡가리아(자카리아, 521년), 오자서완(시온?), 험로살능(예루살렘, 도성본명), 매슬(모세, 1599년), 목기슬득(멜키세덱), 마랄기(말라키) 등의 성경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천주강생인의]하권에서, 정관 9년에 경교비문이 세워졌다는 사실과 함께 도마 종도가 인도에 와서 전교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고(정관9년, 유대덕아라본 전교동래 태종12년7월, 금고경교비서, 차중도다묵 부교어인도지방시), 공자를 공씨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야소는 천지의 대주로서 일대 성인에 불과한 분이 아니요, 공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야소 위천지대주 상불과일대성인 여폐방지공맹자이)고 하였다.

[만물시원]에서는 [성교요지]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 1장에서; 천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는데, **6일동안** 나누어서 만드셨다(天主肇成天地-作之乃分工於六日/성교요지1장 육일역작).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假因이고 둘째는 雅白이요, 셋째는 瑟德인데(p. 13), 가인이 嫉妬하여 殺胞弟雅白하는 大罪를 지었다고 한다. 이는 **성교요지 제 2장의 ‘구전아백-적살급급’**이 잘못된 표현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성경직해 13권 성사덕망 수선치명자침례의 성경, 마태오 23, 35의 설명에서는, ‘亞伯爾亞黨元祖次子也 彼善兄惡 兄妬其善而殺之’ 하였다고 하였다. 諾厄의 홍수 시대에, 낙역은 상주의 총애를 받아 주님의 예시로 홍수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일독 즉 대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다 (諾厄氏饗?寵於上主 主預示之以將發洪水浮天下之意命造一櫓即大方舟)는 **내용으로, 성교요지 제2장의 방주**가 천주교에서 생겨난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천주의 계명을 준수하는 諾厄家八口男女, 즉 諾厄夫婦와 3아들(生, 岡, 雅弗)과 三個媳婦가 大櫓(天主聖教會를 表한다)에 들어가 (일년동안 머물며) 各種禽獸와 함께 洪水를 면하였다고 한다. 제 10장 천주십계에서, 의남이인依臘爾이 액일다厄日多에서 나온후 제삼일에 서내산西酒(=乃)山에 이르러 매슬每瑟에게 파사괘 후 50일에 발현(巴斯卦後第五十日忽見)하여 천주십계를 두 석판에 새겨(刻于二石碑上)주셨다고 하여, 성교요지 제 3장의 ‘서내산’도 천주교에서 시작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성교요지 7장의 ‘약단하’도 글자만 좀 다를 뿐 천주교에서 시작된 가차문자 용어이며, 야소 기리사독, 할례 등의 용어도 천주교에서 시작된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9장의 야소께서 제자를 부르심耶穌召徒(p.140)에서, 12사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문자화>된 서구 언어의 중국어식 표현인 假借된 한자 표기는 마태오 리치 신부의 중국입국 초기부터 계속 변화하여 왔다. 그러므로, [성교요지] 가운데 일부 개신교 가차문 용어들이 들어 있다고 하여, 성교요지를 포함한 [만천유고]의 내용 전부를 ‘가짜이고, 사기다’라고 추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틴어 미사경문을 가차하여 한문으로 실은 [미살제의] 책은 분명히 주문모 신부의 입국 때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보미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황사영과 정약중 등이 보미사 경문(가차문자)을 필사하여 한문 발음대로 응답하며 복사를 하였을 것이다. [미살경전]의 라틴어 인쇄 표지에는 바오로 5세 교황이 허락하여 예수회의 루도비코 불리오 신부가 1670년에 북경에서 편집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미살경전] 표지만 인쇄되었을 뿐, 필자의 소견으로는 출판이 허락되지 않아 인쇄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살차서(Ordo Missae)는 물론, 성찬례(CANON) 부분도 다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어, 사도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으며, 천주경도 양팔을 벌리고(수양개 ‘재천아등부자’) 중국어로 기도한다.

예수회 신부 마태오 릿치의 선종이후, 1618년에 로마를 방문한 Nicolas Trigault (金子, 四表, 金尼閣, 1577-1628)의 보고를 받고, 중국에서의 선교 가능성을 확인한 바오로 5세 교황은 미사 봉헌과 성사의 집전, 그리고 성무일도까지도 중국어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양 선교사들 20 여명과 함께 7천여부의 서양 서적을 하사 받아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하여 Thor Strandennaes 는 ‘1615년에 바오로 5세 교황이 중국의 예수회원들에게 중국어 성경번역을 허락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Macau에 있는 교회담당자들이(포르투갈 선교보호권)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포르투갈 선교보호권 속에서 시작된 민족주의와 자기 선교단체 우선주의의 발로였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미사경본이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출판과

사용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I Vatican 공의회 이후까지 라틴어를 중국어로 음역한 [미살제의]만 활용되었을 것이다.

4. **중국어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 1700년 경의 바세역 필사본이 모본이 되어 모리슨역본이 백여년 후에 인쇄본으로 나오게 되었다. 1790년경에 벌써 한문본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이를 합본한 **성경광익직해**도 번역되고, 필사본이 만들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학징의] 끝에 나오는 한신애가의 굴출기 속에 ‘**성경광익직학** | 6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 함부로 성경이 출판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개신교에서는 시초부터 체계적인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7년에 신약 예수성교전서**가 출판되었다. 그러므로 출판된 성경이 없던 천주교에서는 1852신약, 1854구약의 **(중국)대표역본**이나, 1887년의 예수성교전서를 참고하면서 **진교사패**의 글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 천주교 신부들도 인쇄된 이 성경들을 자유롭게 참고하면서 **가톨릭청년지**에 기고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주교에서는 아직 한글번역성경의 출판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우선 **성경직학** | (**성경직해광익**)란 이름으로 기존의 필사본들을 정리하여 1892-1897년 간에 출판하였다. 1910년에 이르러서야 천주교의 **사사성경**이 출판되었고, 개신교의 **개역한글판은 1956년**에 출판되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동번역**이 출판된 것은 1977년이였다.

중국어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 **인명과 지명 등의 가차문자**는 일반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자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인 자신들에게도 한문은 여전히 어려운 글이다. 대륙에서 쓰고 있는 간자체도 또 하나의 벽이 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일찍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 자체의 중국어 발음표기(주음부호)를 성경전체에 달아서 극복하고 있다. 국제적인 발음표기인 병음(PIN YIN)은 중국의 소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앞으로는 쉽게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이제는 1823년 모리슨의 성경에서 2003년 병음성경까지 중국어성경은 완벽한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sup>262)</sup>

**<종합결론>**. [성교요지]에서 문제가 된다는 용어는 모두 가차문자이다. 천주교의 기초 교리용어들이 예수회의 문서들 안에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세역본] 성경이 1700 년경에 나왔고, 이를 저본으로 한 [모리슨역본]은 가차문자를 영어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모리슨역]을 근거로 [대표역본]들이 이어져 나왔고, 인쇄된 성경이 없었던 한국 천주교의 앵베르와 베르뇌 주교등이 인쇄된 [대표역본]을 지참하여 들여와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기근 신부가 번역하여 출판하는 [진교사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가톨릭 청년>지에 기고하는 신부들의 글도 [대표역본]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사영은 백서에서, ‘그 때 **이벽은 비밀리에 성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승훈은 이를 물랐습니다. 계묘년1783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게 되자, 이벽이 그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말하기를(時李樂密看聖書 而承薰不知 癸卯隨父入燕 李樂密托曰)’ 하며 적고 있다. 당시 양반 가문에서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만주어와 일본어를 상식처럼 익히고 있었으므로, 앞서 밝힌 것처럼 바세역 성경 필사본이나, 뿌아로 신부의 만주어 필사본 등도 구해서 읽을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이벽과 천진암성지에 관한 발자취는, 황사영의 백서 101-102행에서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방의 우리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컸습니다. 일찍이 전교자가 온 일도 없이, 주님께서 친히 특별하게 성교교리를 가르쳐 손을 맞잡아 이끌어주셨고, 이어서 성사자를 보내어 주시는 등, 내리신 갖가지 특은을

262) 최순환, 중국 개신교 선교 200년을 2년 앞두고, 2005 모리슨 문서번역회 참조.



손가락으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101/主恩之於東國 可謂迥越尋常 初未嘗有傳教者來而 主特舉斯道而親 /102/여之 繼又以授聖事者予之 種種特恩 指不勝屈.) 이러한 표현은,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평신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접 하느님나라의 진리에 도달한 천진암강학을, 황사영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cf. 2014. 8.14.과 2015. 3.12.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주교단에게 하신 말씀).

이 [성교요지]를 필사하게 된 1900년대 전후의 교회내외 사정도,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791. 10. 8일에 형조 판서 김상집은 상계하기를, ‘사학을 뿌리채 뽑는 길은 그 책을 아주 금하는 것만 한 것이 없겠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방방곡곡을 두루 수색하여, 물과 불에다 던져 버리고 -엄하게 훈계하자’고 하였다. 1791. 10. 30.에 홍낙안의 問啓에서는, **천주교 서적이 인쇄되었거나 등사되었는지를 세밀히 조사를 받게** 되었고, 1785년에 이승훈도 형조에 끌려가 변명을 해야 했고 책은 불살라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자들은 **창립초기의 관한 모든 글을 이미 깊숙이 파묻거나 감추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계속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만천유고]와 같은 글이 쉽게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1900년대 전후에 이르러서는 박해의 상황이 외부적으로는 바뀌었으나, 이벽과 이승훈을 모두 다 배교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한 교회 내부의 상황에 직면하여, 정규하 신부처럼 남긴 글을 필사하면서, (니벽전의 경우) 정학술을 가명으로 쓰면서 정하상 성인을 연상한 것은 아닐지 생각하여 본다. 필사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아니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선조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창립선조들의 신앙을 배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새롭고 긍정적인 글을 꾸며내 제시하였는지, 반대자들은 자세하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sup>263)</sup>

행위는 그 존재의 본성에서 나온다(Agere sequitur esse)고 하였다. 무엇이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존재의 능력이나 양상에 따라 받아들여진다는 공리이다. 품은 생각이 말이 되고, 곧 이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좋은 글에는 저자의 심성이 담겨 있고, 좋은 글이 위작이 될 수는 없다. 좋은 심성으로, 좋은 글을 남기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성교요지]에는 선교사와 같이 희생과 고통을 가리지 않으려는 이벽의 열정과 심성이 담겨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성교요지] 같은 좋은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필사하는 사람이 위작을 만들어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을 갖춘 한학자들의 판단으로는, [만천유고]가 위작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즉 하느님에 대한 호칭, 보유론적인 태도, 형식상의 근거를 통해 볼 때, [성교요지]의 저자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벽임이 분명하다.<sup>264)</sup> 이상과 같이 필자는 [성교요지]의 저자가 이벽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 반대로 이벽이 아닐 가능성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도 바오로가 열정과 적응주의로 이방인 선교에 나섰던 것처럼, 마태오 리치와 예수회의 선교사들은 중국에 와서, 열심히 연구하고 동양을 존중하는 **적응주의**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서구우월주의와 이기적인 수도회간의 경쟁심으로 무장한 후발 주자들은 번역된 성경도 인쇄.출판하지 못하게 하며 제레논쟁을 일으켰고, 예수회마저 해산시켜, 동양의 선교를 망쳐놓았다.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선조들도 예수회의 문헌을 공부한 끝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바오로 사

263) 윤민구는 초기교회사의 쟁점연구 p. 302-303에서, ‘1908년 발행의 보감과 청구학회의 논문들이 1925년 시복식을 계기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나, 당시의 어떤 글에서 [만천유고]와 [니벽전]에 나오는 상세한 정보를 밝혀내었는지, 추정이 아닌 근거로 밝혀야 할 것이다.

264) 김정수, 성교요지의 교리교육학적 고찰, <한국교회사연구논문선집>,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대근, 255 참조.

도와 같은 열정을 지니고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로 증거하며, 민족 구원의 터전을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진솔한 연구와 각성을 바란다.

**부록.**

**도표 1.(cf.p. 60) 성경 이름의 변화 과정**

성경직해(미살경전)	바세로역본	모리슨역본	1854대표역본	진교스패	예수성교전서
------------	-------	-------	----------	------	--------

마두만일략경 마두수편야소기독성복음. 성마두전복음서. **마태**전복음서. **마태**복음. 맛드1복음.  
瑪 實 萬 日 畧 經 瑪 實 修 編 耶 穌 基 督 聖 福 音 聖 馬 實 傳 福 音 書 馬 太 傳 福 音 書

마이가(말구)#. 마이곡수편##. 성마이가전복음서. **마가**전복음서. **마가**복음. 말코복음.  
瑪 爾 譯 麻 耳 谷 修 編 聖 馬 耳 可 傳 福 音 書 馬 可 傳 福 音 書

로가(가, 루사)#. 성로가수편지복음. 성로가##. 로가전복음서. 루가복음. 누가복음.  
路 嘉 加 聖 路 加 修 編 之 福 音 聖 路 加 路 加 傳 福 音 書

약한(약망,요안)#. 약한수편##. 성약한##지서. **약한**전복음서. 요한복음. **요안**니복음.  
約 翰 若 望 聖 約 翰 之 書 約 翰 傳 福 音 書

종도행실경서 사도행. 사도행전. **사도행전**. **수도행전**. 사도행전(개역).  
宗 徒 行 實 經 書 使 徒 行 使 徒 行 傳 使 徒 行 傳 使 徒 行 傳

라마부교우경서.복보룩사도여라마배서.성보라사도여라마배서.보라달라마인서. 로마서.  
羅 瑪 府 交 友 經 書 福 保 祿 使 徒 與 羅 瑪 蒙 書 聖 保 羅 使 徒 與 羅 馬 蒙 書 保 羅 達 羅 馬 人 書

=**년성보룩종도**여라마부교우경서  
念 聖 葆 祿 宗 徒 與 羅 瑪 府 交 友 經 書

가림다부교우경서.복##여과림배제1,2서.성#여가림다배1,2서.#가림다인후서.고린도전,후서.  
歌 林 多 府 與 戈 林 蒙 第 一 二 書 與 哥 林 多 蒙 哥 林 多 人 後 書

=**년성보룩종도**여가림다부교우제1경서(성체첨례, p. 243) + **여가림대부**(성신강림후13주일, p. 232 -Gal3,16/아파랑급꺾종자승허약지유 불운제종이지1월급이종자 즉계리사독-천주 소서430재); 진교4패62항- 고린도전서1,23절/**바울**이 **콜**으드 | -유대인의게는.

가랄제야교우경서 복보룩여아랄달배서.성#여액납저아배서. #가납태인서.  
加 辣 濟 亞 與 羅 辣 達 蒙 與 厄 拉 氏 亞 蒙 書 加 拉 太 人 書

=가랄달부교우경서(봉재후4주일, Gal 4,22-31)  
嘉 辣 達 府

엑불소부교우경서 복#여엑불소배서. 성#여이불소배서. #이불소인서. 에페소서.  
厄 弗 所 府 交 友 經 書 與 厄 弗 所 與 以 弗 所 蒙 書 以 弗 所 人 書

비리백부교우경서 복#(비+ 파)리비배서. 성#여비리비배서. #비립비인서. 빌립보서.  
斐 理 伯 府 非 巴 里 比 蒙 書 腓 利 比 腓 立 比

격낙소부교우경서 복#과락소배서. 성#여가라소배서. #가라서인서.  
格 樂 所 戈 絡 所 蒙 書 哥 羅 所 哥 羅 西 人 書

=**년성보룩종도**각낙소부경서(p. 100/ 성첨례7 수난도문 다음에/ 미살차서,미살강령 후에 부활주일이 122쪽부터 시작된다.; 성신강림24주일-**여가라소부**/Col1,9-14. p. 279 )  
念 聖 葆 祿 宗 徒 各 樂 所 府 經 書 與 哥 羅 所 府

득살낙니가부교우경서.복#특살라배제1,2서.#제살라니아배(제2)서.#첩살라니가인서.테살노니  
得 撒 樂 尼 加 特 撒 羅 蒙 第 撒 羅 尼 亞 蒙 書 帖 撒 羅 尼 迦

가후서.

=**덕살라니가**부교우경서(봉재후제2주일, 1Thess. 4,1-7;삼왕래조여제6-득살낙니가 p.285)  
德 撒 落 尼 加

제막득아경서 복#저말두제1,2서. 성#여제마저제1,2서 #제마태전서. 디모테전서.  
弟 莫 得 亞 氏 末 徒 弟 摩 氏 提 摩 太 前 書

=**년보룩종도**여제막득아경서(p. 292 앙박라삭성사(12,7). 제막득아경서(7,21 의납작첨례;  
念 葆 祿 宗 徒 與 弟 莫 得 阿 經 書 益 博 羅 削 聖 師 弟 莫 德 阿 經 書

8.4.성다명아-도민고?)  
聖多明亞

제(제?)다경서 북#적다서. 성#여제다서. #제다서. 디도서.  
第第多 的 多 書 與 弟 多 書 提 多 書

필레몬에게 북#여비룩영서. 성#여비리문서. #비리문서.  
與 斐 勒 蒙 英 書 腓 利 門 書 腓 利 門 書

여덕아국교우경서 북#여혁백배서. 성#여희비류배 #희백래인서. 히브리서.  
如 德 亞 國 友 友 英 書 與 赫 伯 輩 書 希 伯 來 人 書

=념성보룩종도 액백늑의교우경서(Heb 9, 11-15);성지주일(액백늑의민중지파이마 환영오주  
念 聖 葆 球 宗 徒 厄 伯 勒 意 交 友 經 書 厄 伯 勒 義 民 衆 持 巴 爾 滿 歡 迎 吾 主

오제기원 차영시봉재차.응/구세자왕계리사독운운.  
吾 僕 祈 願 且 詠 侍 奉 在 此 應 救 世 者 王 契 利 斯 督 云 云

아각백종도경서. 자미사혹칭아가백지공서. 사도아각서. 야고버(보)서.  
雅 各 伯 宗 徒 經 書 者 米 士 或 稱 牙 可 百 之 公 書 使 徒 雅 各 書 亞 各 伯 (保) 書

백다라(종도)경서 성피다라지제1,2공서. 사도피득전서.  
伯 多 羅 宗 徒 經 書 聖 彼 多 羅 之 第 1,2 公 書 使 徒 彼 得 前 書

약한종도경서(부활1) 성약한지제1,2,3공서. 사도약한제1서. 요한2서.  
若 翰 宗 徒 經 書 聖 若 翰 之 第 1,2,3 公 書 使 徒 約 翰 第 一 書 約 翰 二 書

=념성약망종도경서(p. 242, 29일)  
念 聖 若 望 宗 徒 經 書

(유다서간) 사도유대서.  
使 徒 猶 大 書

약망종도묵조경서. 성약한현시지서. 전도약한묵시록. 요한묵시록서.  
若 望 宗 徒 默 照 經 書 聖 若 翰 現 示 之 書 傳 道 約 翰 默 示 錄 約 翰 默 示 錄 書

=념성약한종도묵조경서(p215-건성미격이대천신전/9월29일)

(창세기) 창세기(1865상해판). 창세기. 창세기(개역 한글).  
創 世 記

=진교4패 57항-아브라함과그품에잇는나사로를보고(아바람이유데아국브그성의조상)

엑소다경서 이소다서즉시출거이지비다전. 출애굽기 익소디. 출애굽기(개#).  
厄 所 多 經 書 以 所 多 書 卽 是 出 去 以 至 比 多 傳 出 埃 及 記 逸 所 迪 出 埃 及 記 (開 #)

(민수기) 민수기략 민수략기. 민수기(개#).  
民 數 記 略 民 數 記 略

(여호수아기) 약소액(강생인의) 약서아기. 요수에기. 여호수아(#).  
若 蘇 厄 約 書 亞 記 約 書 亞 記 約 書 亞 記 約 書 亞 記

(사무엘기) 사무이후서. 사무엘하기. 사무엘하(#).  
撒 母 耳 後 書 撒 母 耳 後 書 撒 母 耳 後 書

진교4패 60항-요수에기/이스라엘 모든로인들이 여호와와의(결약의)애회부복.

지덕경서(지혜서)  
知 德 經 書

지식(Sir, 집회서)  
知 識

=념지식경서 (성모시잉모태첨례 12월 8일, p. 292; 성모승천첨례 8.15.)  
念 知 識 經 書 聖 母 始 孕 母 胎 齣 禮

의살의아선지자경서(일로살냉) 선지이새아지서. 이새아. 이사야(#).  
義 撒 義 亞 先 知 者 經 書 日 路 撒 冷 先 知 以 賽 亞 之 書 以 賽 亞 以 賽 亞 (#)

마랍기아선지자경서(2.2일).마랍기(인) 달미래자마납기전서. 마납기. 말나키아서. 말라기(#).  
瑪 辣 斐 亞 先 知 者 經 書 瑪 辣 基 達 未 來 者 馬 拉 其 傳 書 馬 拉 基 馬 拉 基 (#)

마가백아경서-p.49? 마납기아(미살제의) 마카베오후서.  
瑪 家 伯 阿 經 書 瑪 辣 斐 亞 瑪 加 伯 阿 經 書 瑪 加 伯 阿 經 書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인 [성경지해]의 복음서 번역 이름을 알면서도, 마태, 마가라고 표기한 것은 개신교의 대표역을 참고하였다는 증거이다. 마태, 마가, 사도행전, 창세기, 민수략기 등이 모두 대표역본에서 인용한 진교사패의 용어라고 판단된다.

**도표 2. 성경 용어의 변화 과정<sup>265)</sup>**

경교로부터 한글성경에 이르기까지 번역된 중요한 용어의 변화 과정을 도표로 정리해 본다.

약어 예; 천주성교실록/록. 교우론/교. 방자유전/방. 천주강생인의/인. 패총,천주교고/패.  
 성경직해/직.성경직해광의/광(+ '93계스신판).만물시원/원.사자경문/4. 빠쎬역 로마본/쎬로.

사사성경	경교	바쎬역(영국본)	모리슨역 <sup>266)</sup>	예수성교전서	이수정역 <sup>267)</sup>
천주교공용	예수회문헌	쁘아로역	대표역1853	진교사패/청년 <sup>268)</sup>	현중국역

턴쥬,상주,주. 天尊,世尊 主,天主,神. 天主, 神, 主. 하나님. 神.  
 하느님/창2,5. 교,방/上帝.직/물이봉,주,天主. 主,上帝(+ 패). 진/쥬,턴쥬,상테, 상주천주.  
 미살/대주,아등주,딕웅,딕아.록/ 천주. 인/대주,상주. 1방16하/아등주. 오쥬,하느님  
 성경직해,턴쥬(데우스,陡斯-Dousi);성경직해광의,여수성탄에서 ㅂ엘풍(천진집111, 80,86)  
 직/ 오쥬, 대주. 광/바더리, ㅂ엘풍(Verbum). 민/성부, 성자, 벨뵘(천명경)이라 함.  
 쎬22장끝/ 아파랑지신, 의살격지신, 아각백지신. 방/명위陡斯.

\*야웨(선종완) 阿羅訶 口耶口何口瓦(탈6,3). 조물주. 耶和華.  
 야훼(공역) 1853/야화신,耶和華신/1865. 진/여호와,예호와/청'35.8. 아위(yawei).

경교에서는, Aloha 阿羅訶(아라가, 성경의 엘로힘을 연상케 하는 시리아어의 Ala'ha를 따르고 있다.), Misceho 彌施訶(미시가), 그리고 Lokha ni cuscia 盧訶寧俱沙 (로가녕구사, 시리아어의 Ruha d'qudsa-)으로, 한 본성의 3 위격을 고백.

록,인/삼위일체, 天主一性+ 三位 Persona(伯瑣亞백쇄아), 일위가 罷德肋(Pater/4)이요, 이위가 費畧(Filius)이요, 삼위가 斯彼利多三多(Spiritus Sanctus, 父罷德肋 子費畧 斯彼利多三多). 삼위일체(록27). 광/ 스비리도 산도(건립성체축문). 민/ 성신, 바라글니도.

[성경직해] 성모영보침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용어를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

엠마누엘(1,23) 厄慢爾. 이마노이. 임마누엘. 이마내리.  
 임마누엘 인/마노엑이. 마노엑이. 이마내리. 엑마노이.

턴쥬성즈(Mc.1,1) 쎬로마/神子야소기독복음. 神子,人之子. 하나님의아달. 神之子.  
 하느님의아드님 인/천주자. 天主子(성자). 上帝(之)子/+ 패. 진45,61/상테의아들. 천주자.

265) 이환진, 중국어 성서 번역사 1, <성서와 함께> 1988. 9월호, p. 79 참조.  
 266) 모리슨역, 1823 싱가포르 본.  
 267) 이수정의 현토 신약성서 마가전(1884) 일본횡빈인행과 한미경, 초기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인명비교연구, 1999 서지학연구를 참고하였다.  
 268) 예수진교스패, 1907년 덩미 활판, 민와스딩 감준.; [가톨릭 청년] 1933-. 참조.

		패/上帝爲神父 耶穌爲神子.		
인즈(24,30)	人子.	人之子.		人子.
사람의 아들	人子(십자호).	인자(지조). 人子 之 兆	진/인즈.	인자. 人子
그리스도 彌施訶,迷詩訶 구세 <small>救世</small> 基利斯督,基督.	基利士督,彌賽亞.	키리스토.		基督.
그리스도(Mc.1)룩/契利斯督 基利斯督,基督.	基督.	그리스도.		基督.
방,직,4,인/계리사독. 직/기리사독. 직/暗弟基利斯督(강림24주). 원 26장에서	基斯督.			基斯督.
그리스도(2,4)彌施訶,미시가. <small>迷時訶</small> 基利士督,基督.	基督, 彌賽亞.	주.(미시아,메시아)		基督.
메시아(26,68)契利斯督,基利士督. 基利士督.	基督.			묵시아. 默西亞
예수 移鼠,愛薛,序聽(yisho) 耶穌.	耶穌(1822馬殊曼)	예수.		耶穌.
예수(1,1) 룩23/耶穌 耶穌.	耶穌(+ 패).	예수.		耶穌.
인상10/ 오주야소.				
*여수(광/천진집111, p.59 목록; 112, p. 140-234; 광/계사신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耶穌와 同字이나 일본영향인지, 지금 모두 바뀌었다!); 사학정의 말에서는 ‘녀수’라고도 하였다.				
성신(1,20)정풍,凉風 <small>淨風</small>	聖風,神風,聖神.	聖神,神風聖風.	성령,안위하는자(Jn).	
성령(보호자) 룩/聖神	聖神.	聖神.(보혜사) 保惠師	진24/성신,보혜사(Jn15,26).	聖神.
직/ 성신강림주일에서 사피리다 삼다 =령+성이라고 풀이함. 광/ 스비리도 산도.				
동정녀 室女,童女. 童身女,童女,童身(揀言). 童身者.		처녀.		
동정녀(1,23) 룩,인/동정녀,室女.	정녀. 眞女	정녀,童女(+ 패)	진75/평생동정.	정녀. 眞女
방/동녀,동신. 직,광/동정. 룩,인/성모,불여교감. 직/동신지동신.				
모씨마리아(1방23), 동모마리아씨(4방24)269). 원27장/노성인 서목홍씨.				
쎄2/수여쳐M. -동정장회잉생자 이명액만이. 쎄2/육해궤쳐M자상적--즉산궤수자. 受汝美 童貞將懷孕生子 歎名厄慢爾 者上備 卽產厥首子				
마리아(1,16)/未艷	瑪利亞.	馬利亞.	마리암.	馬利亞.
마리아 룩,직/瑪利亞.	瑪利亞.	馬利亞(+ 패).	진/마리아,마라아.	瑪利亞.
[성경직해] 성모영보침례에서, 마리아를 ‘천주의성모’(天主聖母之稱)라 칭한다.				
턴신(1,20) 神天.	主使,使,神使.	神使,使者.	주의 사자.	성사. 聖使
천사(2,13) 룩,방,4,인/天神. 天神.	使者(건물).	진38/턴스,호슈턴신.		天使.
직/ 암약을 성경직해광익에서 안요(Angelo)로 기술함. 暗若				
턴주의아들	(쎄)神之者	(모)神之子輩	하나님의아달.	천주적자녀. 天主的子女
하느님의 자녀(5,9) 모리슨 루가3,38/아대맥(아담)은 神之子.				
갈닐네아(2,22)4/일룩미아. 加里辣.	加利利,厄亞利利.	가니느1.		加利利.

269) [만물시원] 3장과 27장에서도, “낙역씨획총어상주 -명조일독즉대방주 상개내족용금수매종”이라하였고, “老聖人西默紅氏寡婦能先知者亞納氏並証”이라 하였다.

갈릴레아 가리특아(직) 加里肋亞. 加利利. 광/스가리리아, 민/갈닐네아 加里肋亞.

인상10,13/가례특아,가리특아. + 직/가리특아.

\*결약의궤(히브9,4) 約箱(요수아3) 約匱.

계약궤 結約聖櫃. 約匱(1853). 진39/결약궤. 約匱.

성교회(16,18) 록,방/액격특서아. (建我)會. ㄴ1의 교회.

교회 방,원/천주당,입성교회. 직/오교. 회. 직/성당,성전,천주교,공교,성교. 교회.

성당,천주당,액격특세야.

나자렛(2,23) 納匝肋. 拿撒勒. 나살잇. (나사렛).

직/納匝肋(득,덕),나잡룩. 那匝肋. 拿撒勒. 민,진/나자렛 納匝肋.

인상10/納匝肋,인상12/納雜勒. 성경 직익/나자리러(천진집). 광/납잡룩득,나자리,나자리더.

나자로(요한11,1;루카16,20) 랄잡락. 拉撒路 라사룻,나사로.

라자로 직/납잡락 納잡락. 拉撒路. 진37/나사로. 광/나자로,나자루 납잡룩.

나사렛(송세홍,청년1933.10.)

\*노에(24,37) 4/액낙격. ㄷ16/諾厄입득. 按亞進口亞口耳口革(Arca). 노아. 挪亞.

노아 록/諾厄거함. 諾厄조선. 挪亞(입방주). 광/노의,노에(계스). 諾厄진입방주.

인상5/諾厄 男女八人 大櫃. 직/諾厄조주. 원13에서, 낙역造一櫃卽大方舟라 하였다.

다두(10,3) 원/여달大陸. 달두. 大氏阿土. 닷드과에. 달태.

타대오 달두. 달태. 달두.

다위(1,1) 인상10/달미. 達未. 大五得. 다빋,다빋왕. 대폐왕.

다윗 직/達未 달미. 대벽,달미.(패/대辟) 광,민/다위 달미.

도마(10,3)인,4/다마사. 다목. 다마사. 도마. 다마.

토마스 방,인,원/다목. 다목. 다마. 광,진/도마. 다목.

직/다목, 독마(강림2부)

룻(1,5) 인상21/낙덕. ㄷ16/락특. 로득. 룻. (람)로득.

룻 록,직/落德. 록덕. 로득. 광/루더.진/룻. 노덕.

루가,누까 盧伽,路加. 路加. 路加. 路加.

루카 직/路加, 路加 路加(만일락). 路加. 광/루스가.진/루가복음. 路加.

마귀(8,16) 魔. 魔,魔鬼. 氏亞波羅,鬼 귀신.



마귀 방/魔鬼,鬼魔. 魔. 사鬼,鬼. 광/마귀. 진67/샤귀. 부마,악신.  
邪, 附魔, 惡神

말구 마이곡. 마이곡. 馬耳可 말코.  
瑪爾谷, 瑪耳谷

마르코 직/마이곡,마이가 마이곡(만일략). 마가. 진/마가(복음). 광/말구. 마이곡복음.  
瑪爾谷, 瑪爾爵, 瑪爾谷, 萬日曆, 馬可, 瑪爾谷

직/수난주일경=마두,마이곡,로가,약한.

마테오(10,3)明泰,瑪竇. 瑪竇. 馬太. 맛드1. 馬太.  
瑪竇

마태오 직,인,원/瑪竇. 瑪竇. 馬太,패/馬泰. 진/마태(복음),마두/광 瑪竇.  
瑪竇

만나(Jn.6,31) 만납 口馬口拿. 만나.  
邊納

만나 직/안미,마납(성체) 瑪那. 구마구나 진61/만나.광/므슴거시,만느. 瑪納.  
按味, 瑪那, 口馬口拿

모이세(8,4) 매슬.+인상2. 매슬. 마서 모쇼. 마서.  
梅瑟, 摩西

모세 방/미슬.직/매슬. 매슬. 마서. 진38/모세,모이세. 광/미스 매슬.  
美瑟, 梅瑟, 摩西

제드1(5,23) 4/미살. 祭臺. 단.

제단에예물 직/미살 祭臺. 단상(진). 진62/미사제례,성제. 광/미살. 미살,제단.  
彌撒, 壇上, 前

바랍바(27,16) 파납파. 파납파 바랍바. 파납파.  
巴拉巴, 巴拉巴

바라빠 파납파(2방6,직) 파납파. 파납파 민/바랍바 파랄파.  
把拉罷, 巴拉巴, 巴拉巴

\*바리서이(3,7) 法吏叟(輩),法利西. 口法口利口西(輩,16,1; 27,62) 바리스1.口法利塞.  
法利西

바리사이 인/發利塞俄(아). 法里塞阿. 法利세인. 진16/바리스1. 法利塞.  
亞, 法利塞人

직/법리색의,法吏叟 광,민/바리서이, 파리세이/광(+ 침례)  
法利色義

봐로 保祿,寶路 保祿,保路. 掃羅,保羅(행13,9) 보루,保路,保祿.  
寶

바오로(A13,3) 인상/保祿,직/保路,보루. 保祿. 바오로,봐로,바울 보록.  
保, 保路

원/保路, 보루. 광/봐로, 봐루, 봐르루(=바울루/+ 침례).  
葆

발도로메오(10,3) 파다무. 파이다라무. 발도로마. 파다라매.  
巴多茂, 巴耳多羅茂

바르톨로메오 원/발다무. 파이다록무. 파다라매. 진/발도로메오. 파이다록무.  
拔多茂, 巴爾多羅茂

\*(노에의)궤 록/巨艦. 櫃,蓋,船 蓋,口亞口耳口革(Arca). 브1.

방주(1Pt.3,20) 직/조주. 諾厄조선. 挪亞(입방주). 諾厄진입방주.  
造船, 造船, 人, 方舟, 進人, 方舟

만물시원 p. 13/ 낙역諾厄씨-造一櫃卽大方舟 上蓋內足容禽獸每種.<sup>270)</sup>

록24처자부녀팔인. 거칠중팔-cf방4권21/製一櫃상하2층+ 기3자+ 처입+ 조수만류納七雙.

신약성서, 서간.목시편, 1941 덕원 분도수도원편, 1Pt. 3,20 -방주(方舟)에 여덟사람.

베두루(10,2) 원/백다라. 백다라,伯多祿 彼多羅(패/彼得) 피들. 피득.  
伯多羅, 伯多羅

베드로 2방3/백탁록,직/백탁라 伯多祿. 彼得(반). 베드루,彼得88,광/버도루. 伯多祿,반석.  
百鐸錄, 伯鐸羅, 盤

270) 성교요지 제 2 장 참조.



세(3,7) 세.방/발지(제)사마. 직/성세지레	施洗.	밧뎡레.	
세레 록/保弟斯摩, 영수성수.인/영세.4,원/부세	수세,시세.	진/세레,성세.	세.
살노몬(1,6)	소라문.	솔노몬.	소라문.
솔로몬 4방24,직/살랄만. 撒落孟.	소라문.	사로몬(광,계스)	살랄만.
소도마(11,23) 세15장/색투마.	소다마.	소도모.	
소돔 직,강림18/속독마. 쇠多瑪.	소다마.	소도마(파이름,진36,광)	색다마.
하늘에오르샤. 쎄로/승우천. ㅼ/승천.	進天.	하날에 올라.	승천.
승천 록,1방,4,미/승천. 4방,직승천첨레/승천.	승천좌상제우.	승천.	승천.
*시내산(행7,30) 쎄로/西乃山.	西乃山.		
시나이산 원/서내=내산. ㅼ/西奈山.	西乃山.괘/西奈山.		西乃山.
선생복종정로271)하5석내산. 만물시원/西洒山.			
시몬(10,2) 원/西滿.	西滿.	西們	시몬.
시몬 직/西滿,서묵완	西滿.	西門.	시몬. 광봉재후4/시먼버도루.
십계(Ex.34,28) 4/十誠命.		十條誠命.	
십계 록/(천주)십계.		십계(1865).	
아담(Lc.3,38)	亞大麥.	아담(37절).	
아담 록/(원조)亞當.인,직/아당. 亞當.	亞當.	아담원조(광계스)	亞當.
록12,기기도설13/亞當厄襪. 방4권27/亞當厄革+ 茂(버선말,wa). 인상3/厄娃(예빨왜,wa).			
*아벨(23,35) 원/아백.	쎄로/阿白.	亞比勒.	아브닐.
아벨 직13,인상6亞伯爾.	아백이.	亞伯	亞伯爾.
아바람(1,1)4방23/아발랄항. 阿巴郎.	亞百拉罕.	압라함.	亞百拉罕.
아브라함 인/阿巴郎.	아파납함무.	亞伯拉罕,亞伯口刺罕/괘.	亞巴郎.
직/아파랑,아파랑,亞巴郎.		광/아바랑.진37/아브라함,성조아바람.	
아구스도 세살(Lc.2,1) 살책오사다.	阿厄色土.	기살아구스토. ㅼ/새살룩(Mc12,17)	
아우구스투스황제 오오사다(라마총왕).	아고사독	민성탄자시경/아오구스도.	오고사도.
방/아오사(사)정. 교,직,인/奧斯定.		진/성인아오스당,아오스당회.	
아멘(마태6,13) 아명	阿孟,亞孟. 口亞口門(목시1,6).	아멘.	亞孟.
아멘(Mc.16끝) 직/阿孟	亞孟.	亞門(1886본). 광/아멘, 계스강림14/아면.	阿們.
한글필사본성경직익/아문,		대만?/亞孟,阿們으로 표기.	

271) 耶穌會士 陸安德 述, 善生福終正路, 1794 主教 亞立山(=Gouvea) 湯 准. (1852년 重刊 司牧 趙方濟 准).

안드리아(10,2) 윈/安德肋.安德肋. 安得路. 안들야. 安得烈.  
 안드레아 4/압덕득. 安德肋. 安得烈. 안드리아. 安德肋.  
 야고버(10,3)雅호. 윈/雅伯. 雅各(伯). 者米士,牙可百. 야곱. 雅各.  
 야고보 방/아가묵. 亞各伯. 雅各(복배),패/耶哥伯. 진38/야곱,야곱 雅各伯.  
 직/아가,아각백,아곡백,아각. 윈/아부지자雅가伯. 광/야스고버,야스곱,야거버.  
雅歌亞各伯亞谷伯亞各 哥

에덴동산(창2,5) 地堂 快樂之所(성교실록14).

엘니아(11,14) 직/액리아. 이래자 이니아. 이리아.  
 엘리야 4/액리아. 액리아. 이리아. 광/에리아 액리아.  
 령혼(Lc.23,46) ㅁ/靈. 父我以靈託. 령혼.  
 영 록/靈魂(云위로).4방20/영혼3능. 아신탕이의. 靈魂.  
厄利亞 以來者 以利亞 厄里亞  
我神託爾矣

예루사름(2,1) 烏梨師斂. 柔撒冷. 耶路撒冷. 예루살임. 也路撒冷(피휘)272).  
 # 인/協露撒稜. 직,ㅁ/日露撒冷. 耶路撒冷. 민,스/예루사름.광/여루사름. 耶路撒冷.  
 필사본성경직.익/예루사름,예루사름(천진집111,p.33,35). 진/예루살넴.

\*오리와(24,3) 遏理瓦산. 阿利瓦 감남산. 橄欖.  
 올리브 阿里瓦. 橄欖산. 광/아리와산(봉재후6). 橄欖산.  
 3방4. 직/아리말,아리와/직.아리와. 유관검공초,540/西國巴耳撒末樹果汁(파이살말=chrisma).  
阿理機阿理瓦 阿里瓦

Martino Martini, <中國新地圖帖, Novus Atlas Sinensis 1655>에서 유橄欖.

요셉(1,16)(M.장부) 若瑟. 若色弗,若西. 요셉. 約瑟.  
 요셉(M남편) 직/若瑟. 정부若瑟. 約瑟,M지부約瑟. 진/요셉. 광/요즘. M장부若瑟.  
 필사본성경직.익,천진집114권/요사급. 진/줄세동정.

요안세자 若昏,谷昏,瑜罕難,主(注,朮)安,玉函. ㅁ/若翰 모/約翰. 요안느1. 約翰.  
 세레자요한(3,1)직/若翰보제사대(+ ㅁ). 約翰. 진/요안,-밥디스다. 광/세자- 若翰.  
保第斯大

인상10/若翰./+ 윈28장. 미살제의/若望보제사달(선구),약아니파지사덕.  
保第斯達 洗驪 若亞尼把地斯德

요왕(10,2) 若望.+ 인,윈,미. 若翰,若望(복음). 若翰. 요안느1. 若翰.  
 요한 1방9/若望.직/若翰종도. 若望성경. 約翰(+ 패). 진/요한(복음,목시),요왕(종도). 若望.  
 스/요왕. 광/요안종도 줄세동정.

\*율단강 述難,多難. ㅁ/若丹(河) 若耳但(之河). 율단. 約但.  
 요르단강(3,6) 직/若耳當河 若耳當/ㅁ. 約但. 광/율당물 約但하.  
 4/若이當河. 윈28장/若當河.  
而

유다(1,2) 茹達 如達斯 如大(사). 유다. 猶大.  
 유다 如達斯. 猶大. (대장군,진42)유다 猶大.

272) 송강호,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p. 145, 222 참조.;耶蘇아소로의 변환도 이때에 피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록24처자부녀팔인. 거칠종팔-cf방4권21/製一櫃상하2층+ 기3자+ 처입+ 조수만류納七雙.

신약성서, 서간.묵시편, 1941 덕원 분도수도원편, 1Pt. 3,20 -방주(方舟)에 여덟사람.

\*바리서이(3,7) 法吏叟(輩),法利西. 口法口利口西(輩,16,1; 27,62) 바리시1.口法利새. 法利塞.

바리사이 인/發利塞俄(아). 法里塞阿. 法利새인. 바리시I(진16) 法利塞.  
직/법리새의,法吏叟 光,민/바리서이, 파리세이/광(+ 첩례).

\*아벨(23,35) 윈/아백. ぜ로/阿白. 亞比勒. 아브 글. 亞伯.

아벨 직13,인상6亞伯爾. 아백이. 亞伯 亞伯爾.

\*오리와(24,3) 邊理瓦산. 阿利瓦 감람산. 橄欖.

올리브 阿里瓦. 橄欖산. 광/아리와산(봉재후6). 橄欖산.

3방4. 직/아리말,아리와/직.아리와. 유관검공초,540/西國巴耳撒末樹果汁(파이살말=chrisma).

유橄欖이 언급되는 Martino Martini의 <中國新地圖帖, Novus Atlas Sinensis 1655>.

\*유다(2,6지방)경猶大(大猶) 如達. 如氏亞. 유 드1. 猶太.

유다땅 직/여덕아,여대(삼왕) 如達斯. 猶太.패/猶大國. 유데아국,유대(디명) 猶大.

如達國(성년광익) 光/유더아. 猶太(칭'35.8.)

\*올단강 述難,多難. ぜ4/若丹(河) 若耳但(之河). 올단. 約但.

요르단강(3,6) 직/若耳當河 若耳當/吧. 約但. 光/올당물 約但河.

4/若이當河. 윈28장/若當河.

\*이사리아(3,3) ぜ8,로/선지 依賽, 以賽亞. 이사야. 以賽亞.

이사야 직,인,吧/依撒意亞. (선지)以賽亞. 依撒意亞선지.

依撒의亞(2방십),依撒意亞(인12), 직/의살의,의살의아. 光/이사리아,이사이.

\*이스라엘(2,6) 依臘爾. 以色列以勒,以色列(+ 패). 이살일. 以色列.

이스라엘 직/의납액이 依斯拉耶(이). 以色列(민). 光/의납액이,이라에르. 以色列.

직/의열,의열액이(3왕),의납액이 光/이라엘,이스라엘12지파/진72. 이스라엘/민,칭.

\*헤로데왕 윈/黑落忒. 黑락特,黑落得 王希羅得,희라저아. 헤롯왕(2,1). 希律王.

헤로데임금 직/액락덕,액록덕. 王黑落得. 希律王. 光/에로더,헤로테/민 黑落德.

\*할손례 4자/할체. ぜ/(損)割 損割. 割禮.

할례(A7,8) 吧/割損,수손할, 割禮. 光/할손례,할례/진16. 受割損.

직(야소성명첩례),윈/할례. 윈47장/수할례. 직/할손지례(야소성명),수할.

끝.